
일진 스님(前 운문사 주지)
인생의 봄 맞으려면
"낡고 묵은 것 훌훌 털어야"
8면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불유교경〉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다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3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44호 2015년 5월 14일 목요일

"일심 동행, 동국대 새 미래 열자"

동국대 제18대 총장 보광스님 선출
2일 법인 이사회서…29년만에 스님 총장



"일심동행의 바탕위에 대학다운 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괄목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5월 2일 동국대 이사회에서 제18대 동국대 총장으로 선출된 보광 스님〈사진〉은 '총장 선임에 즈음한 소회'를 통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생각과 총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스님의 동국대 총장 선출은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이후 29년만의 스님 총장이다. 보광 스님의 임기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약 4년간이며 4일부터 집무를 시작했다.

스님은 총장으로서 불교의 일심동행(一心同行)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구성원을 존중하고, 화합을 이루어, 구성원들의 도덕적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반듯한 총장이 되겠다"며 "대학은 본질적으로 이윤추구기업이 아닌 인재육성교육기관인 만큼 불교이념에 바탕을 둔 최고 지성과 인품을 갖춘 인재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가장 먼저 현재 성과주의에 매몰돼 기업형 조직으로 바뀐 대학구조를 교육기관에 적합한 대학형 조직으로 변환할 예정이다. 지난 총추위 과정에서도 총장추천위에서 양질의 교육 및 연구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평가제도 등이 지적된 바 있으며 보광 스님은 이에 대한 개선방침을 밝힌 바 있다.

스님은 "21세기 시대정신과 대학 현실에 맞는 목표를 두어야 한다"며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지혜를 모아 동국대의 새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이기 때문에 발전 기대"

제18대 총장 보광 스님은 성남 정토사 주지로서 허허벌판인 현재 정토사를 일군 사찰경영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맡는 등 불교계의 마당발로 통한다. 대각회 이사를 비롯해 중앙종회 의원도 역임하는 등 종단 내에서도 넓은 인맥관계를 자랑한다. 이러한

발전기금 모금 최우선 과제
대학형 조직 구조 변환 천명
연구윤리 · 교수초빙위 등 개선
첫 작업으로 정각원 개혁 착수

동국대 의료원 발전 등 기대
"학교다운 대학을 만들겠다"

역량을 바탕으로 1996년부터 90주년 사업본부장, 100주년기념사업본부장, 대외협력처장 등을 8년간 역임하며 610억여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스님은 성명에서 본인의 이러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108주년 기념관 및 동국대 의료원 발전 문제 등 과제를 안고 있는 동국대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먼저 정부를 비롯해 불교계 등의 발전기금 확충을 총장의 최우선 업무로 설정해 동국대를 재정걱정이 없는 탄탄한 대학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며 "오히려 출가수행자이기에 종단과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자신한다. 앞으로 적극적 지원협조를 얻어내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등 제도개선 과제

보광 스님은 이와 함께 총장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편파적 검증'으로 비판을 받았던 연구윤리진실정위원회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연구윤리기준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의 논문 표절 시비과정에서 재심 청구와 소명기회 박탈 등의 절차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스님은 "논문표절 시비는 개인적인 부주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편파적이고 졸속적인 판정이 큰 원인이었다"며 "관련제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학구조개혁 대응 등 관심

보광 스님의 이 같은 계획에도 동국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먼저 4월부터 교육부가 진행중인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동국대의 운명을 좌우할 대표적인 과제다.

동국대는 현재 이사장 일면 스님의 체제 하에 대응팀을 만들어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총장 선임이 이뤄진 만큼 이에 대한 활발한 대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같이 학교법인 재정의 큰 힘이 될 의료원의 정상화 또한 과제로 꼽힌다.

스님은 총장으로서 가장 먼저 정각원 개혁에 착수했다. 정각원이 학내 불교신행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각원장에 비구니 해주 스님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불교대학 발전을 막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불교대학발전위원회와 불교대학교원초빙위원회 등 대학발전에 저해되는 기구들의 개편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더이상 역풍에 휘둘리지 않고, 동국호는 순풍에 돛을 달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밝은 앞날을 주제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모두가 힘을 모아 동국대 발전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보광 스님은 1975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 후 1980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사학위, 1985년 일본 교토불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정토학 분야의 전문가로 일본 조동종 개산조 도겐 스님의 〈정법안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대작불사를 진행 중이다. 저서로는 〈용성선사상연구〉 〈정토교개론〉 〈신라정토사상의 연구〉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염불의 실천방법에 관한 연구〉 등 150여편이 있다.

스님은 동국대 정각원장, 대외협력처장,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9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대외협력처장 등 학교 대외업무를 관장했다.

현재 정토사 주지, 대각사상연구원장, 한국정토학회 명예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문화재위원에 불교계 인사 대거 위촉

문화재청 1일 위원 선임…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등 8명

전문위원에도 5명 진입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5월 1일 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는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과 문화재위원장을 선출했다. 특히 문화재위원에는 불교계 인사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위원에는 혜일 스님(건축문화재분과), 흥선 스님(직지사 주지, 동산문화재분과), 정념 스님(흥천사 주지, 사적분과), 미등 스님(전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무형문화재분과), 돈관 스님(은해사 주지, 천연기념물분과), 화범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 매장문화재분과), 보광 스님(동국대 총장, 근대문화재분과), 명법 스님(서울대 강사, 세계유산분과)이 위촉됐다.

전문위원에는 각림 스님(중앙종회의원, 건축문화재분과), 함결 스님(중앙종회의원, 사적분과), 심주완 조계종 총무원 문화팀장(동산문화재분과),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팀장(근대문화재분과),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실장(세계유산분과), 박기련 조계종 총무원장종책특보(세계유산분과)가 위촉됐다.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4일 문화재위원장으로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를 선임했다.

노덕현 기자


해인총림 해인사 제9대 방장으로 추대된 원각 스님이 5월 7일 열린 추대법회에서 법장을 봉정받고 있다.

"홀로 바로 서야 참된 공부인"

해인총림 제9대 방장 원각 스님 추대법회

해인총림 제9대 방장 벽산 원각 스님이 공식 추대됐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선해)와 해인총림 방장추대위원회(공동대표 선해 · 향적 · 원택)는 5월 7일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제9대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선사 추대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방장으로 추대된 원각 스님은 불자와 법장 봉정 후 대중들에게 법어를 내렸다.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 주장자 소리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며, 중생과 부처가 하나임을 나타내는 소식"이라며 "번뇌와 보리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지옥과 부처를 통째로 삼켜 일념화두로 씹을 줄 알아야 본분납자라 할 것"이라고 설했다.

이어 "금일 대중은 세간과 출세간, 생사와 열반 그 어디에서도 살활자재하여 독행독보하는 출격장부의 길을 가야한다"면서 "수행자는 홀로 우뚝 설줄 알아야 한다. 홀로 서지 못하면 참된 공부인이 아니다. 독좌 대웅 할 수 있는 수행자라야만 천상천하 비로정상을 활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회에서는 추대위원회와 종단 주요 스님들의 추대사와 축사 등이 이어졌다. 중앙종회의장 성문스님은 추대사를 통해 "원각 스님은 발심출가 이래 오로지 화두참구에만 정진해 온 정통수좌의 표상이자 당대의 선지식이며, 해인총림의 유나로써 제방 납자들을 제접해왔을 뿐만 아니라 재가불자 참선지도를 통해 간화선 대중화에도 앞장선 가야산문의 최고 종장"이라며 "총림 대중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명안종사의 법력을 갖춘 원각 큰스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방장의 리더십과 권위를 실현함으로써, 자랑스러운 해인총림의 수행가풍을 더욱 크게 떨쳐주었으면 하는 것이 불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추대위, 7일 해인사서 개최
사부대중 1천여 명 참석
화합으로 총림 운영 다짐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은 고불문에서 향후 총림이 나아갈 방향을 다짐했다. 선해 스님은 "방장 스님을 모시고 문중과 대중간의 화합으로 총림의 당기를 굳건히 세우겠다. 해인총림의 전통인 용맹정진으로 총림의 기강을 굳건히 하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총림으로 거듭 나겠다"고 다짐했다.

방장추대법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 향적 스님도 봉행사를 통해 "해인총림 대중은 제9대 방장에 취임하시는 벽산당 원각 대선사를 중심으로 대중화합과 원융살림으로 총림을 운영하겠다. 또한 총림을 설립한 정화 1세대와 2세대의 사상을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계승하여 수행과 교육의 중심도량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은 축사를 통해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고 했으니, 방장 스님을 뛰어넘는 제자들이 많이 나와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씨앗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라"면서 "그것이 사부대중이 오늘 가야산문의 방장을 모시는 뜻"이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수행정신의 총화라고 하는 해인총림에 눈 푸른 납자를 제접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눈 밝은 스승인 방장스님을 모셨다"며 "이제 이곳 해인총림에 스님의 덕화가 펼쳐져 수행가풍이 새롭게 서고 도제양성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라고 축하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도 "새로 추대되시는 원각 선사께서는 해인총림을 여법하게 이끌어 서래밀지를 진작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추대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원로의장 밀운 스님과 원로의원 명선 고산 월탄 도문 혜승 세민 정관 암도 지성 원경 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호계원장 자광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합천 해인사= 하성미 기자

〈관련 인터뷰 3면〉

새연재 |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막혀 14면



불교적 생태민주주의를 모색한다

화쟁아카데미 녹색불교, 14일 1차 포럼

생명권과 생태민주주의 주제

생명권과 생태민주주의의 불교적 접목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화쟁문화아카데미(대표 조성택)와 생명평화 녹색불교콜로키움은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화쟁문화아카데미 중앙홀에서 '생명권과 생태민주주의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제1차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제1주제인 '생명의 권리와 불교의 생명관'과 제2주제 '생명권과 생태민주주의'로 나뉘어 발표가 진행된다. 1주제에서는 △생명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동물보호단체 카라 김혜란 비전연구소장) △불교의 생명사상과 생명권의 시각(재마스님, 조계종 노동위원)이 발표되며 토론자로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와 서국화 변호사, 서재영 불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나선다.

제2주제에서는 △생태민주주의와 미래세대의 책무(안건훈 강원대 철학과 명예교수) △미래세대와 자연생명존중, 국제적 성공사례(한면희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발표된다. 정규호 한살림 모심과 살림연구소장,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생명평화 녹색불교콜로키움은 지난해 평창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월정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과 불교의 생명가치' 주제 워크숍에서 태동됐다. **신성민 기자**

"마곡사 돈 선거, 종단 사법부가 징계해야"

불시넷 마곡사 관련 성명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최근 법원이 마곡사 금권선거 혐의로 기소된 원경스님과 태진스님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공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다. 조계종 사법부는 존폐를 걸고라도 금권선거 문제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시넷은 5월 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주지 선거에서 사형사제관계인 스님들이 원경스님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9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고, 태진스님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종단은 산중총회법 15조와 18조에서 산중총회의 구성원과 후보자 중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또는 제적의 징계, 선거법 36조와 90조에서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하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시넷은 "호법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원경·태진스님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며 "금권선거문제는 종단사법부가 존폐를 걸고서라도 철저히 다뤄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경스님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주지직을 내려놓을 것을 제안했다. 불시넷은 "원경스님이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사형사제지간인 스님들이 원경스님의 주지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스스로 주지직을 내려놓음으로서, 종단이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신의를 얻어 공적책임을 다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군포교 앞장설 예비군승 요원 모집

군종교구 5월11~29일 접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포교원력을 갖고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장병포교에 진력할 '예비군승(비구·비구니스님 요원)'을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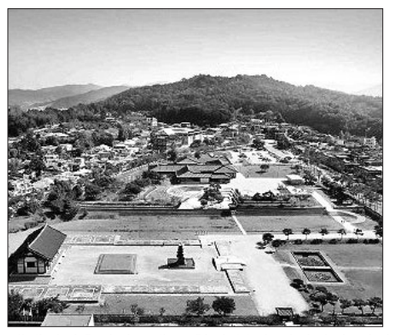
응시 희망자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미계 수지 이상의 비구 및 비구니 스님으로 4년제 대학 졸업(예정)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임관년도 연령이 만35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예비군승은 군종장교 선발 시 육해공군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한 뒤 군사찰 주지로 임명돼 군포교에 매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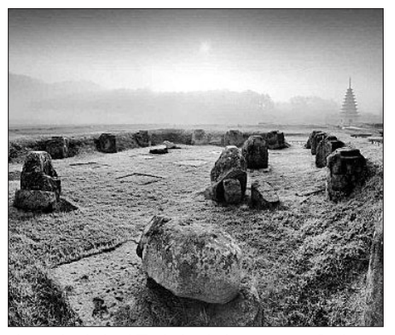
희망자는 소정 양식의 지원서와 추천서, 자기소개서, 졸업 또는 재학증명서, 승적증명서, 사진 등을 구비해 군종특별교구 종무실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시험(6월 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의식, 설법, 교리, 가치관, 상식, 인성검사 등을 평가한다.

한편 비구니 명법스님이 지난 2014년 7월 최초의 비구니 군승으로 임관한데 이어 비구니 균재스님(동국대 졸업)도 지난 4월21일부터 6월26일까지 괴산 학생군사학교에서 군종사관후보생 군사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중에 있다. **신성민 기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나

ICOMOS, 평가보고서에서 등재 권고… 가능성 높아져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 부여 정림사지<사진 왼쪽>과 익산 미륵사지<사진 오른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제역사문화지구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5월 4일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등재 권고'로 평가해 유네스코(UNESCO)에 제출하였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ICOMOS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심사·자문을 하는 민간 전문가 기구로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 유산에 대해 신청서 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술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등재 가능성을 판단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최종 평가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COMOS는 5월 중순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이에 앞서 등재 신청국에 대해서 사전에 결과를 통보한다.

이 단체가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에 따라 6월 28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의 등재 가능성도 높아졌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 부여, 익산에 산재된 백제 문화 유적을 묶은 연속 유산으로 △공주 공산성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 정림사지 △부여 나성 △익산 왕궁리 유적 △익산 미륵사지가 해당된다. 불교 유적으로는 정림사지와 미륵사지가 포함된다.

정림사지·미륵사지 포함 돼
백제 시대 불교 확산 증거 보여
6월말 세계유산위서 최종 결정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유산 등재기준 10가지 중 특정 기간과 문화권 내 건축이나 기술 발전, 도시 계획 등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를 가지거나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에 부합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며, 교류의 결과로 나타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보여주는 유산"이라며 "수도 입지 선정을 통해 백제의 역사를, 불교 사찰을 통해 백제의 내세관과 종교를, 성곽과 건축물의 하부구조를 통해 백제의 독특한 건축기술을,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예술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 체계와 보존 정책을 비롯하여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 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최종적인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6월 28일부터 열리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위원국(21개국)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2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조계종은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발족하고 속리산 법주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천등산 봉전사, 봉황산 부석사, 영축산 통도사 등 7개 사찰을 '한국 전통산사'의 연속 유산 형식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행정 체재 변화 움직임

보광 스님 6일 보직 인사 단행
해주 스님 첫 비구니 정각원장
학술원장, 보광 스님 직접 겸직
7일 109주년 기념식서도 연설



동국대는 5월 7일 개교 10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자리는 총장으로 선출된 보광 스님이 참석했다.

동국대 학내 구조가 변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일 선출된 동국대 신임 총장 보광 스님은 6일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7일에는 개교기념일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학사운영일정에 들어갔다.

인사 단행안을 보면 변화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정각원장에 1976년 정각원 개원 이후 최초로 비구니인 불교학과 교수 해주 스님이 임명됐다. 또 동국대 불교대학장에는 선학과 교수 종호 스님이, 도서관장에는 계환 스님의 후임으로 신성현 불교학과 교수, 불교문화연구원장에는 김종욱 불교학과 교수가 재임됐다. 학교 운영에 손발을 맞출 부총장에는 경영부총장 겸 남산학사 관장 신재호 전자공학과 교수, 학술부총장 겸 대학원장에는 양영진 사회학과 교수 등이 임명됐다. 문제가 있었던 불교학술원은 보광 스님이 당분간 학술원장을 직접 겸직하며 내부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보광 스님은 임명식에서 "화합할 수 있는 인물, 그동안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인물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7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개교 109주년 기념식에서 보광 스님은 존중과 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개교 109주년을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동국대의 새로운 백년, 아니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갈 것"이라며 "각자의 뜨거운 애교심 때문에 빚어진 갈등과 고뇌의 고리를 끊어내고 합장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화합에 힘쓰면서 한 마음 한 걸음으로 동국의 내일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자"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국우수교원상 및 연구자상, 동국불자상과 함께 장기근속자와 우수 직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도 진행됐다. 계환스님, 정우택, 봉일원, 임현식, 박강령, 최한호, 유병승, 이광근, 정승석, 김성민 교수가 우수교원상을 받았다. 또 37년 만에 대학야구 4관왕의 대기록을 달성하는 등 동국대 야구부의 전성기를 이끈 이건열 감독 등 6명에게 공로상이 돌아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8회 불미전 작품 공모

운영위, 9월 1~3일 접수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대회장 자승)는 최근 제1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5월 7일 세부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불교미술대전은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원서를 다운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작품을 접수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2015년 1월1일 현재)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작품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단 모든 작품은 응모원서 1부, 출품자 경력서 1부, 작품설명서 2부 등 제출서류와 실제 작품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액자에 유리를 끼운 작품은 접수가 불가능하다. 또 공동작업이라도 응모자는 1명만 명기해야 한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오는 1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날 대상(1명)에 1500만 원, 최우수상(2명)에 500만 원, 우수상(3명)에 300만 원, 장려상(6명)에 1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들은 11월25일부터 12월8일까지 2주간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다. **신성민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9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BBS 사장 후보 공모

진흥원, 5월 27일부터 접수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이 BBS 사장 추천을 위한 후보자를 공모한다.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불교정신과 불교사상에 투철한 불교인 △시대의 맥락과 변화 방향에 맞추어 불교정신과 사상 및 불교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 · 개발 · 보급할 강한 의지 △방송에 대한 식견을 갖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응할 방송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지도하고 뒷받침할 역량과 경륜 △BBS의 청사진 및 방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재원 발굴과 증대 등 경영 능력의 발휘 가능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사진 · 상벌사항 · 서명 또는 날인 포함 필수), 경영계획서 1부(A4 5매~10매), 수계증 등 불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타 의견서(선택사항) 등이다.

제출 기간은 2015년 5월 27일~6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의 사장 후보 추천 공모는 BBS 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의 복수(2인) 추천 후 BBS이사회에서 1명 선임하는 'BBS정관 제5조 5항'에 의거해 실시된다. 문의 (02)719-185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 제정해야"

재가연대 등 4대 단체 성명 발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 히로시마 원폭피해자 및 후손을 지원하는 법률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허태곤)와 불교생명윤리협회(대표 흥선스님),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바른불교재가모임(상임대표 우희종) 등 4개 단체는 5월 6일 성명을 내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수용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그 후손(2,3세)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그런데 한국 정부는 피해 진상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으며 지난 70년간 일본의 연구자료에만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눈 밝은 선지식 배출이 총림의 역할"

인터뷰 – 해인총림 제9대 방장 원 각 스님

"해인총림의 역할은 눈 밝은 공부인이 나오도록 하는 것, 도인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인총림 제9대 방장 원각 스님<사진>은 5월 6일 해인사 퇴설당에서 7일 열리는 추대법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원각 스님은 해인총림의 위상과 퇴설당의 의미를 설명하며 수행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원각 스님은 "해인사에 안거 기간 동안 모여 수행 정진하는 대중이 5백여 명이 된다. 효봉 스님이 계실 때 가야총림으로 시작해 1967년 성철 스님이 주석하실 때 해인총림으로 모습을 완성했다"고 설명하며 "눈 밝은 도인이 나오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지 스님들이 뒷받침을 해서 총림이 여법하게 운영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각 스님은 주석처인 퇴설당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며 참선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퇴설당의 뜻은 '눈 더미'란 뜻"이라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눈덩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그 말은 대중이 모여서 세상일에는 관심을 두지 말고 참선 공부하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퇴설당은 한국불교 중흥조인 경허 스님이 구한말에 지은 것으로 이곳에서 경허 스님은 선원을 개설하고 대중을 모아 정진했다. 원각 스님은 "은사이신 혜암 스님이 방장으로 주석하실 때도 이곳에 계셨다"면서 "은사 스님께서는 '공부하다 죽어라'는 법문 자주 하셨다. 공부 열심히 해서 생사 해탈하라는 의미다. 퇴설당의 이러한 역사를 잇고 해인 총림의 역사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가풍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현대 선지식으로 모시고 수행 정진한 스님은 공부의 치열함이 없는 현재 수행 풍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원각 스님은 "1967년에 해인사에 왔을 당시는 잠을 자려 누웠다가 잠에서 깨보면 1/3은 앉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면 나도 깜짝 놀라 앉아서 함께 공부를 했다"면서 "요즘은 참구하고 묻고 하는 스님들이 없다. 성철 스님이 계실 때만해도 공양 후 차담도 하고 대중이 앉아 방장 스님의 법문을 듣곤 했다. 잘못을 하면 대중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치열하게 살았다"고 말했다.

해인총림 방장 추대과정의 대립과 불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가 해인사 대중이고 부처님 제자"라며 화합된 모습으로 지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원각 스님은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해인사 대중이고 부처님의 제자다. 등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내일 추대 법회에도 대원 스님은 참석하신다. 서로 잘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설당, 세간에 관심두지 말고 참선 공부에 매진하라는 의미"
치열함 없는 수행 풍토 아쉬움
"대중과 공감하도록 중지 모아야"
젊은이 소통위해 SNS 사용 고려

주지 선출과 임기에 대해서 스님은 "동그란 구멍은 동그란 것으로 막아야지 리무진으로 막으면 안될 것"이라면서 "화합해 잘 지내야한다. 공익을 의논해서 주지 스님과 모두가 합리적으로 잘 돕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조화스럽다는 말은 어떤 일을 처리 할 때 산중 구성원들이 공감 할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넣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서로 노력하면 총림도 달라지고 위상도 높아진다 "며 원융화합을 강조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스님은 본래 마음자리를 찾을 것을 당부했다. 원각 스님은 "세상이 많이 복잡해지고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살기가 편리해졌지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도리어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각박하다"면서 "부처님은 이런 세상을 두고 '불난 집과 같다' 고 했다. 불을 꺼야 하는데 그 방법은 본래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일화라고 했다. 본래 입장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자세로 세상을 대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다.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말미, 원각 스님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SNS 사용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여지껏 구형 폰을 사용하다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면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조금 더 익숙해지면 SNS도 이용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원각 스님은 1966년 해인사 입산, 1967년 혜암 스님을 은사로, 자운 대율사를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비구계 보살계를 수지했다. 법명은 원각, 법호는 벽산이다. 수계 후 해인총림에서 첫 수선안거 이래 통도사 극락암 선원. 송광사. 상원사. 봉암사. 범어사. 불국사 등 제방선원과 토굴에서 20여 년간 정진했다.

이후 거창 고견사 주지. 백련불교재단 이사 및 조계종기본선원 운영위원. 선원수좌회 복지재단 이사. 선원수좌회 공동대표 그리고 해인총림 유나 등 대중소임을 맡아 수행공덕을 회향했다.

특히 재가불자 수행을 위한 원력으로 2002년부터 원당암 달마선원장으로 참선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혜암선사 문화진흥회' 이사 소임을 맡아 은사스님의 유지계승 및 선양사업에 매진해 왔다.

합천 해인사= 하성미 기자

네팔 지진 참사, 韓 불교 자비 손길 이어져

조계종 봉사단 구호물품 배분
사찰 · 단체들 모금 활동 이어가
진각종 등 네팔 대사관에 성금

네팔 대지진 참사를 돕기 위한 한국불교계의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네팔 현지에 파견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단장 각평)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현지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배분했다.

봉사단의 구호물품 배분이 이뤄질 곳은 네팔 정부가 지정한 12개 최우선 식량지원 지역 중 하나인 신두팔촉(Sindhupalchowk) 지역으로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 약 60km 떨어져 있다.

봉사단이 현지에서 구매한 15만 달러 상당(한화 1억 6000만원)의 긴급구호키트는 쌀, 납작쌀, 소금, 콩, 라면, 식용유, 전통차, 설탕, 밀가루, 비누 등 10가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사단은 125톤 분량의 구호키트 5천개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에 하나씩 전달했다.



지난달 4월 27일 네팔에 파견된 봉사단은 현지 사정에 맞춰 활동 기간을 10일까지 연장해 활동했다.

천태종 등 종단들도 네팔 돕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천태종은 5월 1일 열린 삼광사 정기법회를 시작으로, 3일 서울 관문사 정기법회와 부산 삼광사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등 전국 사찰에서 봉행되는 정기법회 등 각 행사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불성금을 모연 중이다. 또한 한달동안 '네팔 지진피해 희생자 애도와 피해 복구를 위한 한 등 더 달기 운동'도 전개한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5월 4일 네팔 지진 피해자들의 긴급구호와 재해복구를 위한 성금 1만 달라를 네팔대사관에 전달했다.

총무부장 덕정 정사와 교무국장 수각 정사는 카만 싱 라마 주한네팔대사를 만나 통리원장 회정 정사의 애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4월 25일 지진피해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왕생성불과 상해를 입은 이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구호 단체들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이하 공생회)는 5월 1~2일 최대피해지역인 신두팔촉 내 멜람치, 두바초르, 키울, 팔촉, 볼캉, 바스하카 등지에서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번에 전달된 구호물품은 쌀과 콩, 소금, 라면 등 식량을 위주로 모두 8000kg 분량이다.

공생회 측은 "구호팀은 네팔 현지인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피해지역 조사와 접근이 유리하다"며 "앞으로 추가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피해주민들을 효율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만들어요 조계사는 이미 부처님오신날이다. 5월 7일 조계사(주지 원명)는 일주일 동안의 정성을 들여 봉축표어를 등으로 장엄했다. 1만여개의 등이 이뤄낸 장관 이면에는 각자의 등에 적힌 불자들의 소원이 있었다.

사진=노덕현 기자

보련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초파일 용품 |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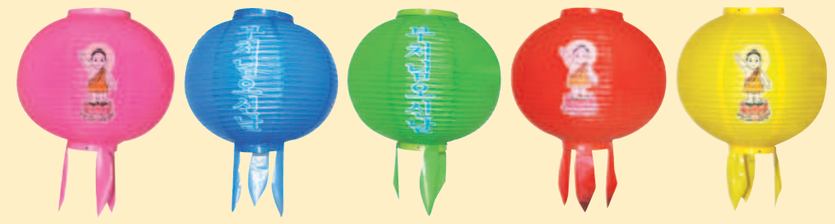


| 인등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일 주 문



지역 어르신 효도 잔치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양주 별내동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잔치를 불암사 경내서 5월 12일 개최했다.



클래식 콘서트 마련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15일 오후 7시 대법륜전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와 뉴욕친구들 클래식 콘서트 2015'를 개최한다. (033)245-6600



초의 대선사 108 헌다례

쌍계사 주지 효명 스님은 5월 22일 쌍계사 팔영루 및 진감선사대공탑비 앞 등 경내에서 '제13회 초의 대선사 108 헌다례'를 진행한다. (055)883-1901



정오의 음악회 진행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5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잔디마당에서 봉은사국악합주단과 함께하는 목요상설 정오음악회를 진행한다. (02)3218-4866



고양 연등축제 축하공연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대오 스님은 5월 20일 오후 5시 20분 화정동 중앙공원에서 '제13회 2015 고양 연등축제 축하공연'을 진행한다. (02)381-7970~1



서산서 방생법회 열어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은 5월 10일 충남 서산 일대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원효보살 추모대재 봉행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5월 16일 오전 11시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원효보살 1329주기 추모대재를 연다.

"젊은 불자 유치 프로그램 개발 할 터"

부산공무원불자聯 이 종 원 회장 취임



"부산은 불교 신행이 다른 도시에 비해 활발한 편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불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불자가 많은 부산에서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죠. 공무원불자회를 중심으로 젊은 불자를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부산공무원불자연합회 제 5대 회장으로 부산시의회 이종원 사무처장(57 · 불자신도회연합회 회장 · 사진)이 취임했다. 부산공무원불자연합회는 4월 30일 안국선원 교육관(조계종 불교회관)에서 이종원 신임회장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해 부산 공무원 불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종원 회장은 "불자 집안에서 자랐고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꾸준히 공불련 활동을 해왔다. 늘 이웃과 함께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거울삼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특히, 신입회원 유치를 위해 기존의 회장단과 도반들의 의견을 수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시군구의 회원들을 만나 오찬자리를 갖고 회원 유치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5월 13일 남구 · 수영구 · 영도구의 핵심간부를 만나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도 듣고 다양한 의견수렴도 하면서 젊은 회원 유치에 대한 1차적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 간부들과도 오찬 자리를 마련해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또한 이 회장은 6월 송광사에서 열리는 전국 공불련 모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9월경에는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참배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봉사회 조직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그는 "업무 관련 봉사모임이 있어 따로 봉사 모임을 갖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던 탓에 공불련이 간헐적으로 봉사를 해왔던 점은 늘 아쉬웠다.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의 큰 덕목인 만큼 교계 복지관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하성미 기자

"청빈의 삶 기억…수행의 거울 삼고자"

향적 스님, 파리서 출판 문화행사 가져



향적 스님의 저서 불어 번역본 〈깨달음에는 국경이 없다〉(L'Eveil n'a pas de frontieres)의 출판 기념관련 다양한 문화행사가 파리 현지에서 열렸다.

향적 스님은 4월 11일~19일 파리 외방전교회를 시작으로, 파리 길상사와 주불 한국 문화원, 삐에흐 끼비르 수도원 등에서 강연을 가졌다.

특히, 마지막 일정은 책의 배경이 된 삐에흐 끼비르 수도원(브로고뉴 지방에 위치)에서 4월 18일~19일 열려 의미를 더했다. 향적 스님은 번역자 야닉 부루느통 교수(파리7대학 한국학과),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과 함께 수도원에 머무르면서 출판 기념 행사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40여 수사들을 대상으로 가진 특별 강연회에서 향적 스님은 "낯선 동양의 불교 수도자를 기꺼이 맞이해 주신 수도원의 수사님들께 죽기 전에 고마움을 표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정리했다"며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또한 "당시 수도원에서 체류하면서 배운 수사님들의 청빈의 삶을 기억하며 본인도 불교 수행에 거울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2009년 국내에서 소개된 〈프랑스 수도원의 고행〉은 스님이 1989년 약 1년여간 프랑스의 가톨릭 수도원 삐에흐 끼비르에 머물면서 불교 수행자로서 가톨릭의 수행 방식과 공동체 생활을 체험하면서 느낀 단상들을 기술한 저서다. 정혜숙 기자

목탁 스님, 미얀마 상원의장 면담

5월 2일 삼청각 연회실에서 상호교류



한국을 방문중인 미얀마 상원의원 킨 아웅 민 일행이 미얀마 문화원 목탁스님을 만나 상호 교류에 대해 환담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4월 29일 내한한 미얀마상원의장 킨 아웅 민 일행은 방한 일정의 하나로 미얀마문화원 목탁 스님을 만나 환담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국회의원 미얀마 친선협회장 우 켄 쉐이 의원과 소 르윈 주한 미얀마대사 등 미얀마 주요인사 20여명과 목탁 스님, 붓다봉사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고운사 화엄전 삼존불 탱화 점안



고운사(주지 호성)는 5월 6일 화엄전 삼존불 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회주 송암 혜승 대종사, 동당 원조 각성 대종사, 주지 호성 스님, 김재원 국회의원, 김주수 의성군수, 권영세 안동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청소년 또래상담자 양성 프로그램



수원시가 건립하고 조계종 용주사 수원포교당이 위탁운영 중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학수)은 '청소년 해우소-심(心)심(審)클럽' 개강식을 지난 5월 2일에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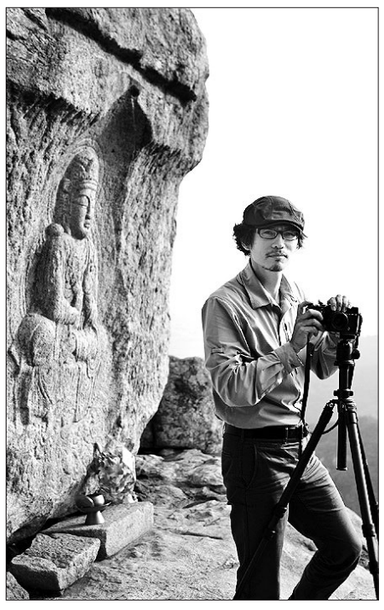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고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 또래 상담자 양성 과정이다. 정혜숙 기자

불교종립 정광학원 이사장 원일 스님 선출



불교 종립학교인 정광학원 정광중 · 고등학교 이사장에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원일 스님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5월 4일 이사회를 열고 제12대 이사장에 원일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정광학원 당연직 이사인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암사 주지스님 등이 참석했다.

정광학원은 광복 후 불교교육을 통한 대중포교와 국가사회의 동량이 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백양사 만암 스님의 발의로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선암사 등 광주 전남지역 5대 본사 재산출연과 협의를 통해 1946년에 설립된 광주 유일의 불교종립 명문사학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축 앞두고 아름다운 절집 풍경 공개"

불교사진작가 하지권 개인전…5월 13일부터 갤러리 브레송에서

늘 거기 있었으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절집 풍경들이 사진에 담겨 공개된다.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하지권 작가가 5월 13일~23일 갤러리 브레송에서 개인전 '절집'을 연다. 작가는 "절집의 문은 늘 열려 있지만 그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카메라를 메고 절집 문지방을 넘어 다닌 지 14년이다. 그간의 작품 중 19점의 흑백 사진을 대중에 선보인다"고 전했다.

선암사에 매화가 한창이던 봄날, 작가는 촬영에 여념이 없다. 스님도 꽃삼매경에 더불어 빠졌다. 문득 사진가의 눈에 동백나무에 가려져 하반신만 드러난 스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수행자가 꽃에 가려져 실체가 없어지고 고혹한 향기만 남은 듯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은 작가는 직관적으로 셔터를 누른다. 사진 너머의 세상, 즉 불법과 수행자의 정신이 이 현실세상과 만나는 찰나의 순간이 한 컷의 사진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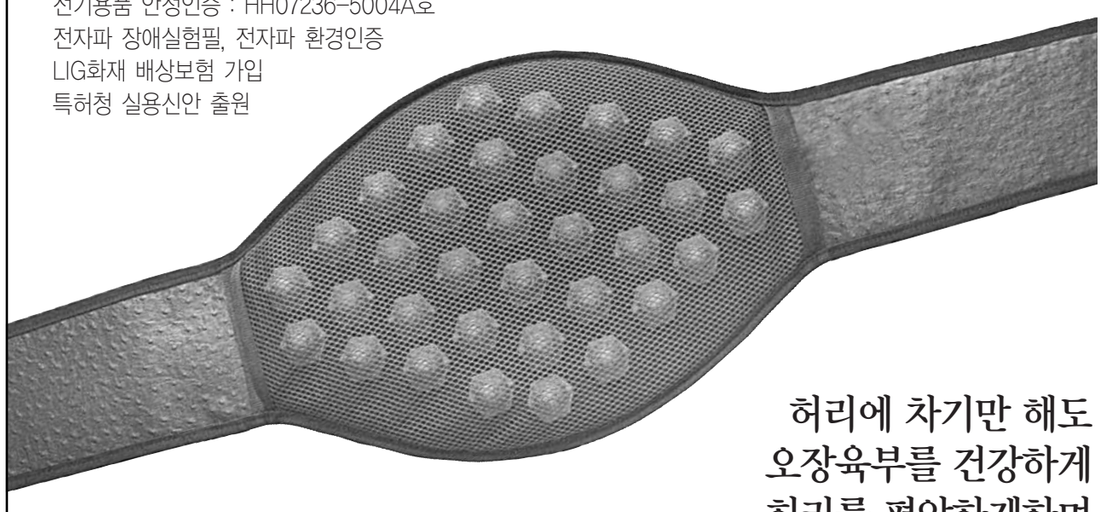
눈 오는 날 법주사 풍경도 시선을 끈다. 눈 쌓인 보리수나무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아래로 길게 줄지어 걸어가는 스님들의 모습은 수행자의 멈추지 않는 정진을 보여주는 듯하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나무 아래 풍경은 25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처럼 아름답다.(02)2269-2613 정혜숙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원각사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에서 배식봉사에 참여한 서초반야회 회원들이 밝게 웃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만큼은 법관과 변호사 등의 사회적 위치를 잊어버리고 한명의 봉사자로 즐겁게 배식봉사에 나섰다.



새로 개원한 무료급식소는 50여명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찾는 어르신도 늘어나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민일영 대법관(사진 왼쪽 2번째)과 이선미 변호사 등이 배식 행렬에 앞서 직접 나물반찬을 밥 위에 올리고 있다.

“어르신 한끼 공양에 우리 마음도 불러옵니다”

다시 시작된 서초반야회 탑골공원 배식봉사 현장

4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원각사 무료급식소 주방. 무료급식의 배식시간이 다가오자 녹색 앞치마를 갖춘 봉사자들의 손놀림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멸치볶음, 도토리묵 등 나열된 각종 반찬을 한번 더 확인하고 큰 솥에 끓고 있던 미역국의 간도 다시 맛봤다. 1년 365일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열리는 배식행사지만 이날만큼은 봉사자들의 표정엔 긴장과 떨림이 가득했다.

지난 4월 1일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다시 문을 연 이후 불자법조인 모임인 서초반야회가 한달만에 배식봉사를 재개한 것이다. 서초반야회는 2009년부터 원각사에서 꾸준히 배식봉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참여한 12명의 법조인들과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 회원들은 및 장애인 등 주민 200여 명을 위해 직접 식재료를 손질하고 조리와 배식, 설거지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서초 반야회 봉사자들은 설거지팀 · 조리팀 · 배식팀으로 역할을 나누었다. 선배 법조인들이 가장 힘든 설거지를 ‘내가 하겠다’고 자청하자 젊은 연수생들이 거들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밖으로 드러났다.

점심 무렵이 되자 서울 탑골공원에서부터 무료 급식을 받으려는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섰다. 원각사 무료 급식에 평일에는 100~150명, 휴일에는 250~300명의 노인이 찾는다. 22년만에 잠시 휴식을 갖고 재개된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초창기보다 규모가 커졌다. 30명 들어가는 식당도 지금은 50명 가까이 수용가능하게 됐다.

매일 봉사에 나서고 있는 김 막걸리(幕傑理) 원각사 봉사회장은 “새로 스님이 오시며 배식장소가 깨끗하고 넓게 바뀌어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여섯명 정도이던 봉사자가 지금은 하루 10여명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도 평소보다 많은 이들인 200여명이 찾아와 급식소는 10분만에 가득 찼다.

어르신들이 늘어난 만큼 봉사활동에 6년째 개근하고 있는 이광훈 변호사는 쉴 새 없이 그릇에 밥을 퍼 담았다. 민일영 서울법원부장판사도 그 위에 반찬을 올리며 거들었다. 서초반야회 총무인 반정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종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다른 회원도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였다.

배식 후에는 음료수와 빵을 돌렸다. 예전 서초반야회를 취재한 기자와 그 가족이 봉사에 동참해 어르신들에게 다과를 나눠줬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마워하며 저녁거리로 빵을 챙겨 갔다.

식사를 마친 김모씨(72)는 “설날이나 추석에도 쉬지 않고 문을 여는 무료급식소는 이곳 밖에 없다”며 “오늘도 한 끼 맛있게 먹고 간다. 저녁에는 이 빵을 먹어야 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만큼 노인들에게는 이곳의 밥 한 끼가 ‘점심 한 끼’ 이상이었다.

2009년부터 봉사 진행
60여 법조인 ‘나눔·회향’ 한마음
십시일반 회비모아 배식비용 충당

오히려 이날 봉사자들은 급식소를 찾아온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서초반야회가 배식봉사를 시작한 이후 빠짐없이 봉사활동을 해온 민일영 대법관은 “나이가 드셨지만 젊었을 적 이분들은 나라 발전에 기여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도리”라고 했다.

옆에서 배식을 돕던 이선미 변호사는 “고시 공부할 때 아동 후원을 처음 시작한 이후 여러 곳을 돕고 있는데, 이곳 어르신들을 직접 보니 더욱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웃었다.

배식을 마친 후 식판과 수저를 설거지하던 다르마법우회 소속 한 연수생은 “향후 법조계 활동에서 사회소외계층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법의 테투리 밖에 소외받는 이들이 많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급식소에는 애로사항도 있다. 22년째 배식이 진행되며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이 건강악화로 봉사활동을 그만 둔 것이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반야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다녀간 흔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남은 달력에는 군데 군데 빈공간이 눈에 띄었다.

급식소를 운영하는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은 “4월 운영 재개 이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찾아줘 감사하다”며 “힘닿는데 까지 급식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승 안양지법 법원장은 나눔은 곧 자신을 돕는 것임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서초반야회도 처음에는 수행과 신행모임으로 출발했다.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보자는 뜻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봉사는 사실 업무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스스로에게 힐링이 된다”고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초반야회는?



4월 1일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된 서초반야회 성지순례 모습. 서초반야회는 매주 수요일 대성사 법회와 함께 매년 2회씩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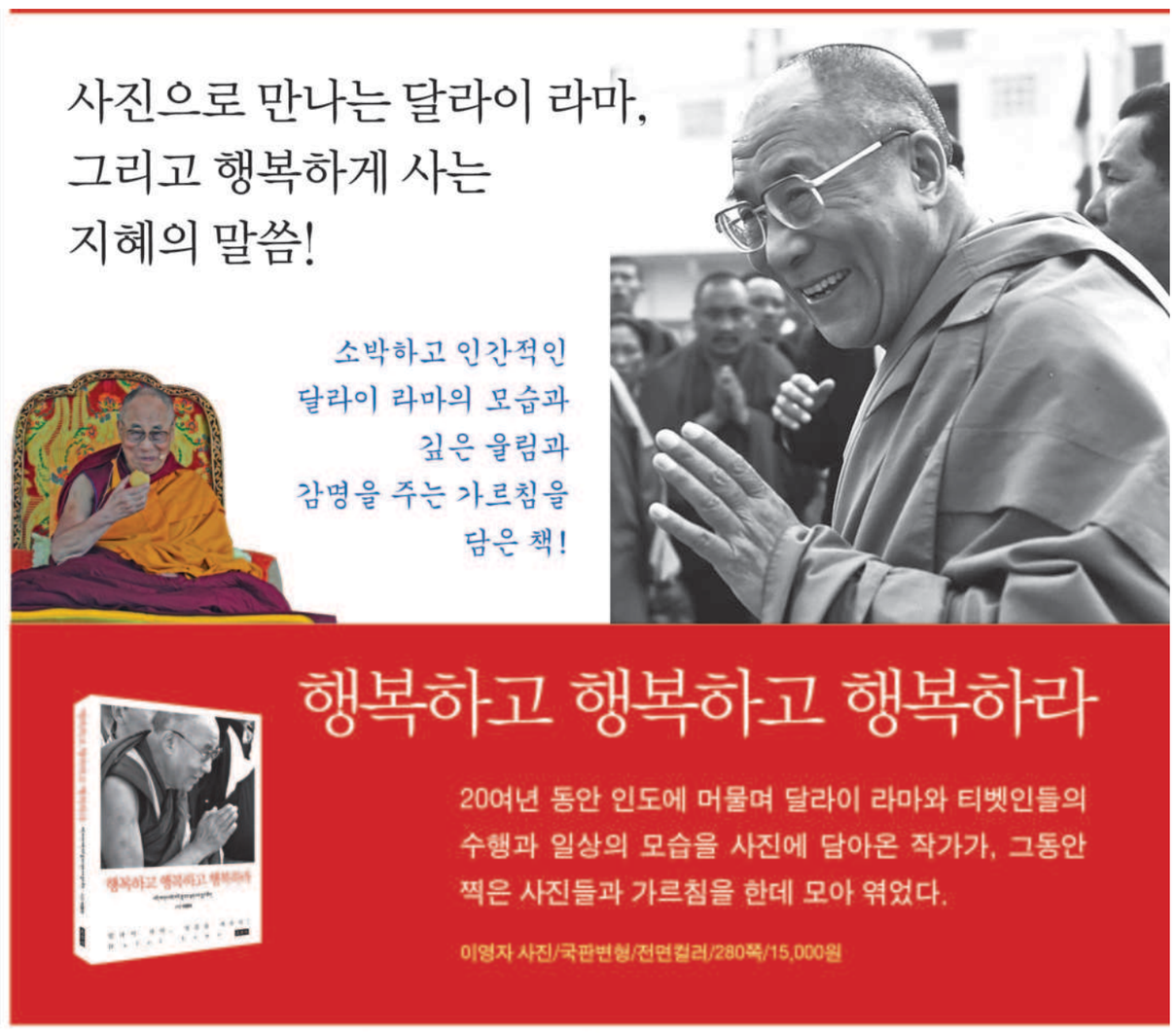
1995년 서초동 법조단지에 근무하는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 13명이 주축이 돼 만든 서초반야회는 정치적인 성향을 배제하고 매주 수요일 우면산 대성사에서 정기법회와 봉사활동을 병행한다.

현재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직원, 법무사 등 60여명이 회원으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서울 우면산 대성사에서 정기법회를 보는 한편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원각사에서 노력봉사를 진행한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는 서초대법원 청사 내에서 경전공부를 하고 있다. 원각사 배식봉사는 박홍우 현 대전고법원장(당시 의정부지법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원각사 무료급식의 경우 회원들이 매번 20만원씩 모아서 낸다.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명예대표를 비롯해 최병덕 법무법인 동인 대표(사법연수원장 역임), 이동흡 前 헌법재판관 등이 역대 회장을 지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신행 · 포교 소식

봉은사, 서산·사명 장학금 8천만원 수여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5월 3일 법왕루에서 '2015년 서산사명장학 및 봉은장학금 상반기 수여식' 을 개최했다. 이날 봉은사는 서산사명 장학생 62명에게 총 4950만원, 봉은장학생 15명에 3000만원을 전달했다.

주지 원학 스님은 "신도님들의 지극하고 따뜻한 정성으로 모인 장학금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학문의 길을 열심히 닦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봉은사는 불교인재 양성 및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년 서산사명장학금과 봉은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전서도 행복바라미 지역문화제 열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5월 3일 대전 으능정이거리에서 마곡사 풍물패의 사물놀이, 타악기 연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 2015 행복바라미 지역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한 제6교구 말사의 주지 스님 등 약 30여 명이 약 30분간 인근 거리를 돌며 탁발을 실시했다. 이날 모인 성금은 다시 행복바라미 모금함에 모아져 해당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탁발을 제안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처음 해본 탁발이지만 행복바라미가 앞으로 전국 범위의 나눔문화 캠페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5월 14일까지 전국 140개소에서 행복바라미 모금캠페인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 5월 29일까지 예비군승 모집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포교원력을 갖고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장병포교에 진력할 '예비군승(비구·비구니스님 요원)' 을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응시 희망자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사미계 수지 이상의 비구 및 비구니 스님으로 4년제 대학 졸업(예정)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임관년도 연령이 만35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비군승은 군종장교 선발 시 육해공군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한 뒤 군사찰 주지로 임명돼 군포교에 매진하게 된다.

희망자는 소정 양식의 지원서와 추천서, 자기소개서, 졸업 또는 재학증명서, 승적증명서, 사진 등을 구비해 군종특별교구 종무실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시험(6월 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의식, 설법, 교리, 가치관, 상식, 인성검사 등을 평가한다.

노덕현 기자

도선사, 지진피해 네팔 구호에 팔 걷어 부쳐

네팔불자회, 5월 3일 도선사와 공동 모금 법회 열어

지진피해로 큰 난국에 빠진 모국 동포들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불자회가 도선사와 공동으로 모금법회를 5월 3일 도선사 야외법당서 펼쳤다.

이 자리에서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우리의 이웃 불교국가인 네팔 국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며 "가족과 자신의 터전을 잃은 슬픔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네팔 국민들에게 십시일반 힘을 보태 위로하자"고 당부했다.

네팔불자회 회장인 이소러 구릉씨(49)도 "한국불자들의 뜨거운 온정에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비록 고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크나큰 재앙을 겪어 고통스러워 하는 우리의 동포 형제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부처님전에 매일 기도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법회 현장에 조금 늦게 도착한 주한 네팔 대사 카만싱라마도 "본국으로부터 재산과 문화유산의 피해가 생각보다 심하다는것을 보고 받고 대사관자체에서도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 특히 각 사찰마다 불자들이 보여준 뜨거운 형제애는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감동적"이라고 눈시울 붉혔다.

카만싱라마 대사도 "성금 액수보다도 네팔인들을 생각하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년 정도 남은 대사 잔여 임기동안 네팔과 한국의 우호적인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인사말에 이어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을 비롯해 교역직 스님 10여명이 미리 설치된 모금함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법회가 열린 야외법당은 네팔 불자들에게도 의미가 깊은 장소였다. 불교계 대표적 신행단체인 '선묵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가 대한민국 정전 60주년을 맞아 지난 2013년 5월 평화정착을 위해 부처님 탄생성지인 룸비니서 채화한 평화의 불이 모셔져 있다. 또한 그 불단위에도 네팔서 가져온 불상이 있어 네팔인들에게는 친숙한 장소다.

2013년 룸비니서 이운한 평화의불 앞에서 진행

네팔불자회 1993년 창립… 월 1회 도선사서 법회

네팔불자회가 창립된 것은 1993년 이다. 한국에 일하러 온 노동자들이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3백여명이 활동중이다. 부회장인 라메스씨(37)는 "네팔과 인연이 깊은 도선사측의 배려로 2년전부터 매월 첫째주 일요일마다 월 1회씩 자체적으로 모여 법회를 열고 있다"며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 등지에서 오는 회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도선사 야외법당서 네팔 불자회와 도선사가 공동으로 모금 법회를 펼치고 있다. 오른쪽 아래사진은 법회가 끝난 뒤 네팔 카만싱라마 대사에게 도서 스님이 기념품을 전달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한국에 온지 9년 정도 됐다는 타시셸파(31)는 "네팔불자회 사무실이 없어 모일 수 있는 여법한 공간이 없는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도선사측에서 자료나 법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은 "도선사도 각종 규제 등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 지금 당장은 청을 들어 주기가 힘들다"며 "하지만 네팔불자 회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도선사 신도 무량심보살(63)은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더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나 동업중생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위로하고 돕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법회에 동참하고 나니 불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환희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네팔불자회 회원 30여명과 도선사 사부대중 70여명 등 총 1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제3기 청소년10분 집중명상 지도자과정 입재

포교원 인증 초 · 중 · 심화 3단계 탄허기념박물관서 진행

금강선원(선원장 혜거)은 5월 2일 서울 탄허기념박물관 보광명전에서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수탁운영하는 제3기 청소년10분 집중명상지도자 과정 입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재식에서는 스님과 현직 교사, 의료계 종사자를 비롯한 청소년지도층 관계자 28명이 연수에 들어갔다.

지도자과정은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심성개발프로그램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혜거 스님과 함께 10년 넘게 금강선원에서 청소년 기초참선을 지도해온 김우현 교사가 맡는다. 혜거 스님은 1부 입재식에서 그동안 집중명상을 지도받은 17명 학생 중 13명의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님은 "참선 명상지도에 앞서 먼저 이 아이들이 우리사회와 세계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끄는 사명을 지닌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참선 명상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입재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발원문 봉독에 이어 혜거 스님의 법문 등으로 이어졌다. 이어 박물관 관람, 오리엔테이션, 청소년 명상프로그램 안내 등과 함께 본격적인 연수과정이 진행됐다. 한편, 연수는 초급(5월2일~6월 27일), 중급(7월18일~9월6일), 심화(10월24일~12월5일) 3단계로 탄허기념박물관과 인근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진행하며 템플스테이와 현장 실습 등이 포함된다. **노덕현 기자**

"사회 곳곳서 밀교정신 실천하겠습니다"

위덕대, 제 1기 위덕진각봉사단 발대식 거행

위덕대(총장 홍욱헌)는 4월 30일 위덕관 대회의실서 홍욱헌 총장 및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누리 사무처장과 봉사단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기 위덕진각봉사단 발대식' 을 거행했다.

〈위덕진각봉사단〉은 3대 건학이념 중 하나인 '이타자리(利他自利)' 를 바탕으로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대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5년 위덕사회봉사단으로 출발해 발전 과정을 거쳤다. 특히 올해는 설립종단의 이념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위덕진각봉사단으로 새 출발을 한 것이다.

이 날 선서한 소방방재공학과 2학년 이승윤 학생은 "위덕진각 봉사단원이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진각 봉사단의 일원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홍욱헌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선서를 시작으로 봉사 활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마음가짐을 오래도록 유지해 대학생활서 봉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도 성장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포교사 역할을 많이 해 주길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위덕진각 봉사단은 이 발대식을 계기로 봉사하는 대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내외 많은 단체와 협력한 봉사 활동을 계획중이다.

김주일 기자

만불라

명당발복(풍수), 천도재, 사업번창, 용궁재

개운발복 운이 찾아오는
영험함을 경험해 보십시요



사업자를 위한 사업재수(事業財數)발원 독불공

부처님 가피로 증득한 천안통과 타심통으로 중생구제를 실천하시는 선승의 밝은 해안으로 고(苦)의 원인을 찾아 풀어드립니다. 삼보와 그 화신인 천지신명과 조상의 발복(發福)으로 힘을 입고 선승의 법력과 재가자의 하나된 마음으로 불보살님을 감동시켜 고(苦)를 벗어나, 금시발복(今時發福)하는 복력증장(福力增長)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도청(禱請)하시어 영험함을 경험해보십시요.

동국스님 친견 상담 예약 : 010-3676-5555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201-27 (대부북동)
홈페이지 | www.manbula.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kihealing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정신과 불교사상에 투철한 불교인으로서 시대의 맥락과 변화 방향을 인식하여
불교사상 및 정신문화를 전달 · 보급할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방송과 현대 미디어 발전 상황에 대한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불교방송(BBS)의 현안 해결방안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을
BBS 사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자격
  ① 불교정신과 불교사상에 투철한 불교인
  ② 시대의 맥락과 변화 방향에 맞추어 불교정신과 사상 및 불교문화를 전달 · 개발 · 보급할 강한 의지를 가진 분
  ③ 방송에 대한 식견을 갖고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응할 방송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지도하고 뒷받침할 역량과 경륜이 있는 분
  ④ BBS의 청사진 및 방송 여건의 개선을 위한 재원 발굴과 증대 등 경영 능력의 발휘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
  ⑤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사진/ 상벌사항/ 서명 또는 날인 포함 필수)
  ② 경영계획서 1부 (A4 5매 ~ 10매)
  ③ 수계증 등 불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④ 기타 의견서 (선택사항임)
- 제출(응모) 기간 : 2015년 5월 27일(수) ~ 6월 12일(금) 18:00 (12일 우편소인 유효)
- 제출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02-719-1855, 교환 210)
  주소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 면담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참고사항 : 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의 복수(2인) 추천 후 BBS이사회에서 1명 선임함(BBS정관 제5조 5항).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어르신과 이주민 매주 공양하며 인연 맺어

100회 맞은 (사)꿈을이루는 사람들 '어르신 수요공양방'

(사)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이 운영하는 '어르신 수요공양방(이하 수요공양방)' 이 100회를 맞았다. 2012년 문을 연 수요공양방은 매주 수요일 구미 인근의 어르신들을 초대해 식사 대접과 소규모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사)꿈을이루는사람들은 5월 6일 구미시 지산동 꿈을이루는사람들 잔디마당에서 '어르신 수요공양방 100회차 큰잔치' 를 열었다. 3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어르신 점심 공양, 컵등 선물, 용돈 보시, 민요 · 춤 · 연주 ·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그동안의 봉사자와 후원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돼 훈훈함을 더했다.

수요공양방이 특별한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매주 마련된다는 점이다. (사)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은 "외국인 노동자를 10년 정도 도왔는데 지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르신들을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르신들은 손주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 있으니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사)꿈을이루는사람들은 5월 6일 구미시 지산동 꿈을이루는사람들 잔디마당에서 '어르신 수요공양방 100회차 큰잔치' 를 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2012년부터 매주 공양 대접
이주민 배식 봉사에 참여
불교요양원 설립도 추진중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무리인 탓에 이들이 할 수 있는 봉사는 배식봉사와 뒷정리 정도다. 그래도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고 있다고.

수요공양방을 찾는 어르신들은 초창기 30~40명에서 120여 명까지 늘었다. 야외에서 배식하는 까닭에 추운 겨울 3개월 가량은 공양방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그동안 공양방을 후원해 주는 봉사자와 단체들의 훈훈한 손길도 100회를 맞는데에 큰 힘이 되었다.

진오 스님은 "갓바위 선본사에서 쌀을 보내주고 있고 지역 단체들이 반찬값을 보시해주고 있다. 또한 4팀의 봉사자 30여 명이 매주 나눠어 조리 봉사를 해주고 있다. 또 지역가수도 와서 음성공양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100회 잔치는 어르신들 공양 대접은 물론 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야외 화장실을 지원해준 기부 사이클리스트 이형모 씨와 100회 동안 봉사에 꾸준히 참여한 김종옥 보살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식자재비를 일정금액 보시해준 마트와 떡 보시를 해준 떡방 등 지역 후원 업체에도 감사장을 전달했다.

앞으로 (사)꿈을이루는사람들은 불교 노인요양원 건립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스님은 "수요공양방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불교 요양시설로 오고 싶어하는 분이 많다는 걸 알았다. 앞으로 불교 요양 시설 건립해 어르신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여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계획을 전했다. (054)454-78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 알아가요"

수요공양방 조리봉사 3년, 감사패 받은 김종옥 보살


100회를 맞아 감사패를 받은 김종옥 보살

김종옥 보살(53)은 수요공양방을 이끈 숨은 공신으로 100회 잔치를 맞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김 보살은 2012년 첫 행사부터 지금까지 월 1회 꾸준히 조리 봉사에 참여하며 보시행을 실천해오고 있다.

"오랫 동안 인연을 이어오던 진오 스님의 부탁을 받고 지인 5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조리시설은 없고 도마 하나와 판넬 하나만 달랑 있었어요. 너무 놀랐죠. 이런 데서 어떻게 음식을 만드냐며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후 계속해서 시설을 보강해 가며 공양 대접을 이어가고 있어요. 초창기를 생각하면 지금 100회를 맞은 건 기적과도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첫회부터 꾸준히 공양봉사 참여
10년동안 컵연등 2천개 보시도

최선을 다해 이웃을 돕는 스님을 옆에서 도와드린 것뿐이라고 말하는 김 씨는 지난 10년간 봉축 맞이 컵연등 2000개를 제작해 환우들에게 보시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진오 스님의 부탁을 받고 지인들과 함께 컵연등을 만들었어요. 장소가 마땅치 않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컵연등 2000개를 매년 만들고 있죠. 이번 수요공양방 행사에서도 300개의 컵연등을 어버이날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보시했어요."

불교는 인연이 중요다하고 여기는 김 보살은 자신이 만난 인연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한다.

"진오 스님을 만나 이웃을 돕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인 제가 많은 돈을 보시할 수 없으니 봉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불자로서 제 능력껏 봉사하며 이웃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어린이날 어르신 돌보며 가족 의미 되새겨

송파노인요양센터, 3세대 모여 '할머니네 가는 날' 진행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받고 불광사가 지원하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원장 손지영)는 5월 5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송파구 주민 10가족을 초대 '5월 5일은 할머니네 가는 날' 을 진행했다.

'할머니네 가는 날' 은 요양센터에서 지내는 어르신들과 일일 가족을 맺어 3세대가 함께 사진도 찍고, 게임과 식사도 하며 하루를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송파노인요양센터는 "3세대가 어우러져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고자 마련된 행사다. 어린이들은 어르신과 함께 지내며 노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르신들은 사회의 어른으로서 따뜻한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할머니네 가는 날'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이 어르신들과 게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초등학생, 성인, 어르신이 함께하는 미니올림픽, 피크닉 등이 진행돼 세대교감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유세현 어린이(9)는 "요양원 할머니와 오늘 함께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할머니가 몸이 불편한데도 게임을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팀이 이긴 것 같다. 내년에도 꼭 다시와서 할머니랑 한 가족이 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송옥임 어르신(78)은 "오늘 어린이가 호강해야 하는 하는데, 내가 호강이네"하며 기쁜 마음을 내비쳤다.

이와함께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5월 15일까지 지역봉사자들과 군부대 등이 참여해 어르신을 돌보는 사회봉사 릴레이를 진행했다.

정혜숙 기자

굶주리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JTS-길벗 5월 5일 거리모금

어린이날을 맞아 굶주리는 지구촌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행사가 열렸다. 한국JTS와 방송 · 연예 · 문화예술인들의 수행봉사 모임 길벗이 5월 5일 명동 외환은행앞 특설무대에서 거리모금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방송인 김병조 씨와 아들 김형주(뮤지컬 배우)의 진행을 시작으로 배우 한지민, 배종옥, 윤소이, 임세미, 이재우, 아이돌 가수 헬로우비너스 등의 연예인을 비롯한 170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길벗거리모금은 단돈 천원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제 3세계 국가 어린이들을 위해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라는 구호를 걸고 매년 2회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배우 배종옥 한지민 등은 매년 이 행사를 위해 1년 전 스케줄을 미리 빼놓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하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거리모금은 봉사자들 전원이 모금통을 들고 나가 시민들에게 제 3세계 국가 어린이들의 현실을 알리며 모금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거리모금에는 170여 자원 봉사자들이 1시간 30여분 만에 12,827,170원을 모았다.



JTS 길벗 거리모금에 참여한 배우 배종옥 씨. 매년 이 행사에 참여 제 3세계 국가 어린이들의 현실을 알려나가고 있다.

JTS는 이 모연금을 인도와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은 물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개발사업, 북한의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JTS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한달 동안 전국 정토회 법당을 중심으로 거리모금을 펼치고 있다.

정혜숙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5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5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5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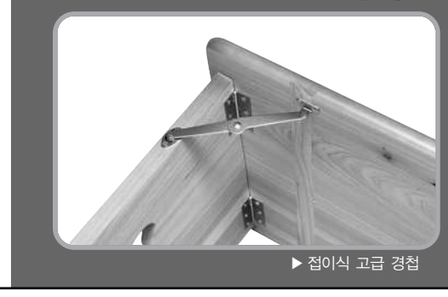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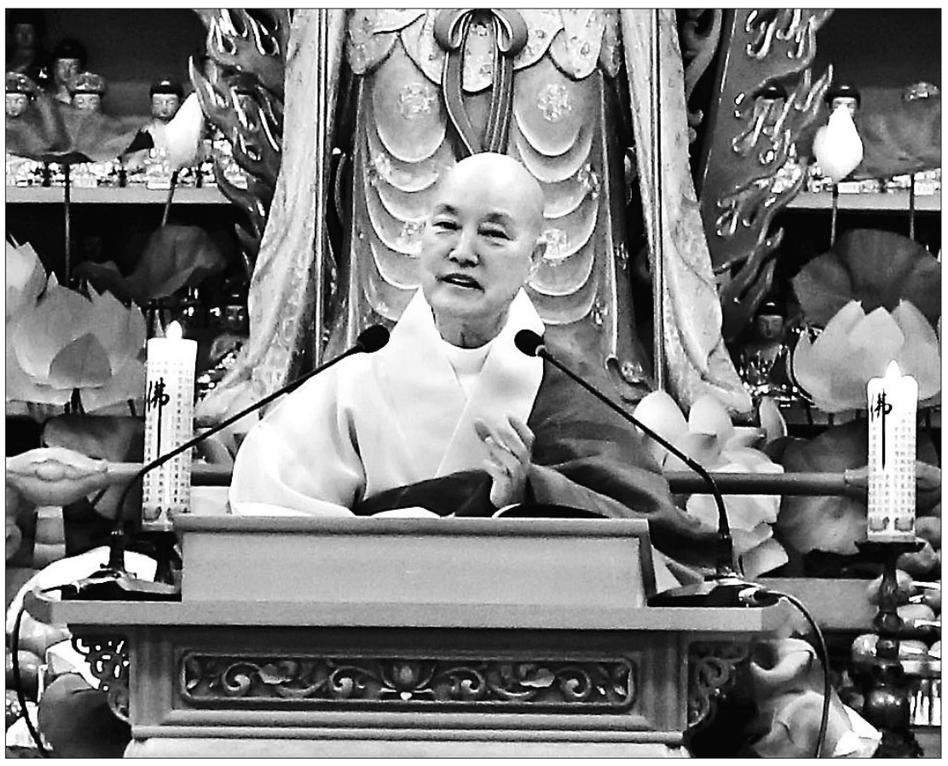

▶ 접이식 고급 경첩

“인생의 봄 맞으려면?…낡고 묵은 것 훌훌 털어야”

백고좌대설법회

일진 스님 (前 운문사 주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인간에게 있어서 봄은 무엇일까. 계절이 변하는 춘하추동(春夏秋冬)의 흐름과 태어나고 죽는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변화의 과정에서 인간에게 봄은 묵은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움을 틔우는 시간이다. 前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4월 23일 제29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식에서 법화경(法華經)에 대해 설법했다. 일진 스님은 “ ‘법화경’ 은 “사생육취 중에 고통 받는 업보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함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지혜의 넓은 문”이라면서 “앞으로 7월 28일까지 100일간 이어질 백고좌대설법회를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여 삶의 타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박아름 수습기자



일진 스님은 … 1970년 재석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벽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운문승가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승가학과를 거쳐 일본 경도불교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운문승가대 강사와 학감, 주지를 역임했으며 조계종 교재 편찬위원, 운문사 주지, 제 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민족사)이 있다.

삶의 새 움을 틔워라

굉장히 오랜만에 법왕사 법당에 온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무상의 철학을 가장 강력히 설파하신 만큼 법왕사는 변화무상을 눈으로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시각각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곡우(穀雨)입니다. 계절은 항상 변화합니다. 곡우는 봄 계절이 끝나는 절기이자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부터 곡우날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들어선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요. 이처럼 계절은 항상 변화하고, 계절에 따라 우리가 있는 이 곳 법왕사의 모습 또한 변화합니다.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면면도 다들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스스로 거울을 보면 자신의 기분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정도(八正道) 중에는 정념(正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면 그에 따라 얼굴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는 변화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만약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참 황폐해질 것입니다. 춘하추동(春夏秋冬)이 있기에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과거 · 현재 · 미래 속에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있기에 우리의 삶과 육신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자리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몸은 생로병사로 변화하며, 우주공간은 성주괴공(成住壞空)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주괴공이란 우주가 시간적으로 무한하여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인 가운데 생성소멸하며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봄의 마지막 절기라고 하니 새삼스럽게 봄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산도 나무도 꽃들도 봄이라고 피어나고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일까, 계절의 변화에 나의 봄은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봄을 인간의 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얼어붙은 대지에 다시 봄이 움트고, 겨울동안 죽은 듯 잠잠하던 숲이 새소리에 실려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들 안에서도 새로운 봄이 움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버릇과 일상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타성으로부터 벗어나야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간의 봄은 묵은 버릇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새 움이 틀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털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법화경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법문을 듣고 설하고,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나는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되물으며 생각할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계속해서 그러한 실천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행(行)하라

우리가 ‘안다’ 는 것과 ‘한다’ 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과 글자 점하나의 차이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아십니까? 무엇을 아십니까? 옛날에 경봉 스님은 세상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서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과연 자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론과 경전을 통해 많은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이상 내 행복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경전 중에는 최초 설법 화엄경과 최후 설법 법화경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함경, 금강, 반야경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원정사에 가면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터가 남아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며 많은 설법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 금강경에는 부처님께서 한 때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탁발을 하러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탁발승을 보는 경우가 드물지만, 탁발은 하심(下心)의 의미입니다. 탁발승들은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음식이라도 자기 자신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마를 아래로 숙여 정성스럽게 받습니다.

사실 법화경을 읽어보면 제게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불교에 입각해 생활하도록 포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되지 못하니 아무리 많은 내용을 배우고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모두 결핍의 상실감에 빠져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화경 선품에 보면 우리는 현실에서 상상도 못할 내용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때 부처님께서는 법화 왕사성에 머무르시다 1만 2천의 비구들과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이에 이들은 모두 아람으로써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여 다시 번뇌가 생길 일이 없고, 진리를 얻어 마음의 자재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대번뇌를 다하여 열반을 체득하신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처님 제자들 중 마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등이 있습니다. 부처님 십대제자 중에서도 가섭존자는 두타제일(頭陀第一)이라고 합니다. 두타제일이라는 말은 걸식제일이라고도 하는데 검소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섭존자는 가장 검박하고 알뜰한 제자입니다. 생활 속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천금과 같이 아낄 줄 아는 성품을 지닌 사람입니다. 넉넉해지고 편안해질수록 사람들은 낭비를 합니다. 하지만 가섭존자는 걸식을 하실 때에도 가난한 집만 다니셨습니다. 현생에 가난한 사람들은 전생에 얼마나 베풀지 않았으면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난한 집만 골라서 다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보리 존자는 부잣집에서만 탁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가난하거나 부유함에 치우치지 말고 첫 번째부터 일곱째 집까지를 정해서 탁발의 양이 부족하더라도 더 가지 말고 중도(中道)를 지킬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다문제일 아난존자는 아주 평등하게 탁발을 했습니다. 총명한 머리로 기억력이 아주 좋았던 아난존자는 장학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환경이 어려우면 그것을 돕고, 자신이 공부한 것을 잘 일러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난존자가 총명했던 이유입니다. 지금 우둔하고 공부가 안 되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베풂에 인색하며 혼자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법 보시를 아까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위대한 아라한들이었습니다.

> “춘하추동이 있기에 사계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과거·현재·미래 속에 생로병사가 있기에 우리의 삶과 육신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온 누리 지혜를 밝히는 광명(光明)

대승 경전, 특히 법화경에는 용왕 얘기가 나옵니다. 법당을 잘 둘러보면 용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나타나고 있는 용들은 사실 상징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열려있는 깨달음에 세계에서는 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려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중생이 닫혀있는 안목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승 경전 또한 그렇습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용뿐만 아니라 불교의식에 따라 음악을 관장하는 악사(樂士)인 건달바(乾達婆)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건달바, 아수라왕 등 수많은 사부대중이 전부 자기 권속들과 전부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부처님 발아래에 절을 하고 모였습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위한 대승 경전을 설하셨습니다. 특히 법화경을 설하실 때는 광명을 얻었습니다. 광명(光明)은 부처님 이마에 있던 털 자라기로 상징되는 것으로 그 광명의 빛이 저 아래로는 지옥으로부터 맨 꼭대기에 이르기 까지 환하게 비췄습니다. 당시 광명의 빛이 지천에 밝아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손바닥 위에 사과 하나를 보는 것과 같이 선명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혜 문수보살님과 행증 보현보살님, 비증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등 우리가 원하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그 보살을 끝없이 염하면 나와 그 보살이 하나가 되어 내가 곧 그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라한을 비롯한 미륵보살들과 용왕 등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광명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눈썹 사이에 난 흰 터럭으로 광명을 무량세계에 비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부대중은 의심을 품고 문수보살에게 질문을 합니다. ‘일반 팔천 국토를 비추어 진정으로 부처님의 모든 장엄이 펼쳐지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문수보살은 ‘이제부터 부처님의 대광명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운 법문을 듣고 쉽게 알게 하기 위해 광명의 빛을 비추셨다’ 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화엄경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모든 경전이 그렇습니다. 읽을 때는 신심(信心)도 생기고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엄경을 설명한 주석 내용을 보면 아무리 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화엄경 대가라는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알겠는데 주석서를 보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은 문수보살님에게 여쭈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원래 우주와 같아서 무시무종(無始無終)하여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보살의 본래의 뜻은 부처님의 스승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보살들은 기꺼이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을 위해서 수행하셨습니다. 이렇듯 어떤 진리를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수행하고 경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움에는 초선, 중선, 후선이 있습니다. 기도 입재날이니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의 오신 분들은 초선입니다. 이러한 초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삼세일체 과거 현재 미래를 거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마음먹은 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먹은 것도 다시 변하고 ‘한 때 좋았다’ , ‘한 때 도움 받았다’ 처럼 한 때라는 생각으로 초심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법을 설하시던 부처님을 따라 처음과 중간, 끝까지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화경 강의의 첫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온 타성에서 벗어나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법화경으로 좋은 삶과 좋은 날을 누리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법화경이라는 대 정법을 설하기 위해서 상소로움을 나타내시고 부처님의 제자와 많은 권속들 앞에서 대승경을 설하셨습니다. 법화경은 다른 말로 묘법 연화경이라고도 합니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염하신 강의입니다. 오늘 나무묘법연화경, 실삼묘법연화경을 배웠으니 개인의 삶과 우리네 집안, 나아가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부처님 가르침은 '상호연결 공유사회 구축'

불광연구원 '공유사회와 불교역할' 봉축 세미나

날이갈 수록 지구의 자원은 고갈되고 세계경제도 성장의 한계에 처해있다. 이제 무한생산과 소비에 뿌리를 둔 삶의 양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이런 시각에서 일고 있는 공유운동은 '열림과 나눔의 삶' 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공유 운동에 대한 불교사상적 고찰이 진행돼 화제다.

불광연구원(책임연구원 서재응)은 5월 2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공유사회와 불교의 역할' 을 주제로 봉축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진환 인트랜스 대표의 '공유경제의 논리와 공유사회의 미래' 발표를 비롯해 차차석 동방문화대 교수의 '불교사상과 전통을 통해 본 공유사회' , 유정길 지혜협동조합 이사장의 '협력적 공유사회를 향한 변화와 무소유사회' 등 발표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2050년 공유사회 도래

안진환 인트랜스 대표는 "협력적 공유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를 대체하며 서서히 부상하고 있으며 2050년 경 세계 대부분의 경제생활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은 필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자본주의의 경쟁과정이 극단적 생산성으로 이어지면 0에 가까운 한계비용을 갖게된다"며 "이미 출판시장에서 전자책 형태로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의 정보 또한 이러한 제로 한계비용의 증거"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물리적 재화와 서비스 뿐만 아니라 녹색 에너지까지 제로의 한계비용으로 생산해 낸다면 이것이 바로 공유사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러한 증거를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 찾았다. 안 대표는 "시골에서는 토지와 물, 산림 등 공유자원을 공동관리하며 토지수용과 경작 등도 사회구성원이 민주적으로 내린다. 또 공동체 규범과 그에 따른 관례도 정립돼있다"며 "이제는 인터넷 환경에 자라난 아이들이 예전 농촌구성원과 같이 함께 네트워크를 공유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결국 남은 문제는 누구든 너무 늦기 전에 경제적 사회적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소중한 가치인 인류애를 확대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기불교서 공유사상 고민해

차차석 교수는 '불교사상과 전통을 통해 본 공유사회' 에서 "초기불교 이래 불교사상가들은 공존과 조화의 방법을 통해 개인적인 욕망을 해결하고자 했다. 공유사회의 추구는 불교의 근본정신과 같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공유사회의 가장 극명한 예로 승가제도를 들었다. 차 교수에 따르면 불교도들은 승가를 사회개혁의 전진지기로 활용해 출가자 출신성분을 따지지 않으며 의사결정 또한 만장일치제를 채택하는 등 공유사회의 모습을 띄게 했다.


안진환 대표


차차석 교수


유정길 이사장

차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적 공유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연기론과 공업중생이란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현실적으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심화 속에 인간 외면과 소외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관계와 공유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불교적 실천은 공업 중생관을 통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부처님께서 말한 물질적 공유 뿐만 아닌 윤리적, 정신적 공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유사회에서 구체적인 실천규범과 사상적 배경을 불교가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찰을 지역 공유센터로 육성

우버택시를 비롯한 다양한 현대사회의 공유문화를 소개한 유정길 지혜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본주의가 지속될수록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끼리의 결합과 협력, 협동 밖에는 없다"며 "약자들끼리의 협력을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서 욕망을 줄이고 나눔과 베풂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부처님의 무소유 정신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궁극의 가치"라며 "협력적 공유사회는 미래사회의 방향이 무소유사회로 접근하는 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불교계에서는 각 신도나 신행단체에서 물건과 책, 옷, 주차장 등부터 공유하는 일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찰을 지역에서 공유센터의 거점으로 만들어 공동체의 촉매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역주민 위해 문화재 주변 관리기준 완화

문화재청장 허가 받지 않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확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5월 8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 허가 시 문화재청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 고시하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는 △재해복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 안전 관리를 위한 행위 △고사목(죽은 나무) 제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문화재 보존 · 활용 가치 증대를 위한 행위 △농로 개설 · 정비, 생업용 지하수 개발, 농업용 용 · 배수로와 상 · 하수관, 전기 · 통신관로 매설 · 정비 등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위 등이다.

앞으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하게 되어, 신청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현상변경 허가 후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예외사항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허가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위험물 저장 · 처리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의 행위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노덕현 기자

"고려시대 사천은 특별한 광역시"

송도근 사천시장, 5월 1일 사주 승격 학술세미나서

'고려시대 사주(사천)는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지금의 세종시와 같은 특별히 지정된 광역도시' 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천문화원은 5월 1일 사천공연장에서 '사천시 사주 승격 1000년 역사적 고증 학술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통합 사천시 20주년을 맞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사주' 승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남대 변동명 교수의 '고려현종과 사수현 · 사주' 와 이경화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의 '사천의 불교문화'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송도근 사천시장은 "그 시대 주(州)의 성격이 속현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세종시도 특별시이지만 구(區)가 없는 독특한 형태가 존재하듯 그 시대에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염불선은 불교의 근본 수행법"

5월 1일 청화사상연구회 세미나서 학자들 주장

현대 한국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신행활동의 방법인 염불이 선정에 이르는 부처님 당시의 고유한 수행법임을 알리는 자리가 열렸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박선자)는 5월 1일 동국대에서 '염불선 사상의 역사적 고찰과 그 발전과정' 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염불선은 일반적인 칭명염불을 넘어서 자기 마음속에 부처가 있음을 느끼고 깨달음에까지 이르는 방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박사는 '염불선의 선정계위' 주제발표를 통해 "부처님 당시와 초기경전에는 염불이 곧 선정이라 할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며 "하지만 부파불교시대를 거치며 염불선정의 가능성과 여지가 봉쇄되고 굴곡됐다. 이러한 염불선 수행을 한국불교에서 복원시킨다면 현재 간화선 일변도의 폐해를 보완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청화선사는 염불이 곧 선정으로, 더나아가 선정계위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전통의 정토종 칭명염불과는 다른차원으로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어 말하는 발회로 선정의 단계로 발전할 수 없다는 부분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이러한 청화 스님의 염불선이 고대 한국불교에서는 원효 스님의 정토사상으로 근원이 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정토와 염불선은 유심정토와 정토를 이땅에 구현하라는 점에서 하나로 회통한다"며 "원효 스님은 정토왕생을 위해 십념 염불을 제시하고 보조적인 수행법으로 임종 이전 지심염불을 강조해 하품의 중생까지 받아들였다. 청화 스님은 실상염불로 바로 들어가 칭명, 관상염불 등을 회통하는 염불임을 밝히고 있다"고 비교했다.




조준호 박사

고 교수는 "원효와 청화 스님은 모두 염불을 통해 '우리 마음의 뿌리인 부처' 로 돌아가게 하고자 한 점에서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며 "이러한 것은 보다 많은 사람이 불교를 접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며 오늘날 한국불교는 이러한 것들을 미래를 환기해가는 자량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벽산문도회 회장 용타 스님은 "한국불교의 현실을 돌아보면 간화선에 비해 염불선을 비롯한 다른 수행은 빙산의 일각으로 자리해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그 무엇보다 청화 스님은 염불선의 기치를 높이기는 했으나 문문가입(어느문에나 들어갈 수 있음)을 통해 가치관 다원주의의 관점을 선호하셨다. 불교사 차원에서 염불선을 연구하고 실참실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한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울산박물관, 영축사지 동탑 조사 본격 착수



울산박물관(관장 신광섭)은 4월 29일 통일신라시대 울산 불교문화의 위상을 입증한 '율리 영축사지' 의 4차 학술발굴조사를 알리는 고유제를 개최했다.

고유제는 영축산(靈鷲山) 신령님께 동탑 조사 시작을 고하고, 조사 기간 동안 무사안녕의 염원과 영축사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가치 있는 유물 발견 등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4차 발굴조사에서는 동탑 조사가 진행된다. 울산박물관은 현재 허물어져 있는 동탑 부재를 정밀 조사하고 각 부재를 3D 스캔하여 복원된 모습까지 추정할 계획이다. 또한 탑지 하부조사를 통하여 석탑 조성 과정과 시기를 밝혀 영축사 가람과의 관계 구명을 위한 조사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단, 98만원에 법당의 앰프 + 대출력 스피커 + 구즈넥 탁상 마이크 등 최고급 신형 장비로 교체해 드립니다.

■ 기간 : 선착순 30개 사찰
■ 신청방법 : 계약금 30% 입금 후 휴대전화로 희망일자 및 주소, 사찰명을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약 순서대로 설치 일자 및 방문 시간은 스님과 협의해 결정 합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전국에 계신 주지 스님께

저는 서울 인당역학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원장입니다.

학원을 13년간 운영하였으나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산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 절을 운영하신 주지 스님께서 제가 필요로 하는 사찰이 있다면 제게 연락 좀 주세요.

저는 사주 · 기문둔갑 · 자미두수 · 육효 · 풍수지리 · 타로 등 여러 학문을 섭취하고 기도 올리는 법, 49제 올리는 법 등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절대로 사찰에 피해는 안줄 수 있는 사람이니 필요로 하는 사찰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 "인당명리" 치면 됩니다. 신상명세서를 보면 됩니다.

전화번호 : 010-2224-6310


5월 2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불자들이 점등식 후 탑돌이를 하고 있다.

화엄사 4사자석탑 한지로 형상화

광주 봉축탑 점등식 봉행… 본격 일정 들어가

광주전남지역 봉축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탑 점등식이 봉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5월 2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연광 스님,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 등을 비롯해 광주지역 사찰 주지스님, 신도대표, 불교단체 대표 등 불교지도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광주전남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한 봉축탑은 화엄사4사자3층석탑을 한지를 재료로 형상화해 높이 20m의 크기로 만든 탑이다. 이날 점등한 봉축탑은 오는 27일까지 밝혀질 예정이다.

행사는 1부 점등식과 2부 사찰음식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석부회장 보응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봉축탑의 세워지는 이곳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을 앞두고 있고, 5·18민중항쟁이 일어난 역사적 장소"라며 "화엄사4사자3층석탑을 이곳에 세운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문화는 과거에서 현재로 통하는 하나의 흐름이며, 지역을 벗어나 세계와 공유하는 연기적 관계"라며 "올해에는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민, 그리고 불자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다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고장의 마음을 전하고, 호남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점등식에 이어 봉축탑과 5·18유적지 중 하나인 분수대 주변을 도는 탑돌이 행사가 진행됐다. 또 빛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에서 마련한 사찰음식 만찬이 진행됐다.

이날 점등식은 광주전남지역의 새로운 기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침체일로에 있는 광주전남 불교계는 점등식과 봉축행사를 계기로 지역불교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앞장선다.

봉축기획단장 시각 스님은 "점등식에 이어 오는 5월 16일부터는 광주공원 앞에 위치한 광주천에서 '견우와 직녀의 생명이야기'를 주제로 60여 개의 전통등을 전시한다"며 "본 행사는 5월 23일 오후 1시부터 광주공원에서 빛고을 찻자리 경연대회 및 시연회와 청소년문화페스티발, 체험행사(연꽃등 만들기, 전통등 만들기, 단주만들기, 아시아문화체험) 20여 가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하이라이트는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되는 관등법회와 제등행진, 관등음악회"라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에 탈핵영화 공동상영회 개최



한국사회의 핵발전소의 위험을 알리는 영화제가 광주에서 개최됐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5월 12일부터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동으로 탈핵영화 공동 상영회를 개최됐다.

이날 상영회는 도심 주변에 24기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30km 권내 인구 밀집도가 전 세계 1위인 한국의 상황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부품비리 등 핵발전소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경각심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영화제는 밀양아리랑(5월 12일, 장소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잔인한 내림(5월 26일, 장소 동구 산수동 선덕사), 후쿠시마의 미래(6월 9일, 장소 서구 금호동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7월7일, 장소 북구 일곡동 빛고을아이쿱생협) 등 탈핵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작품이 무료로 상영된다. 매 상영 후 '이야기 마당'이 준비되어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4회에 걸쳐 실시되는 영화 상영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부에서 후원하고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주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쌀나누기 행사 진행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5월 3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비의쌀은 금선사, 비전사, 연화사에서 후원한 쌀로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캄보디아 쉼터(지구촌 휴), 네팔공동체 쉼터 등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와 어려운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에게 전달됐다.

전달식에서 비전사 주지 보혜 스님은 "자비의 쌀은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담아 부처님에게 올린 쌀을 여러분에게 보시한 것"이라며, "한국생활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식을 진행한 이주성 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하루3식의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스스로 하루 한 두끼를 해결해야하는 것을 보고 사찰에서 후원하는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는 매년 사찰에서 1,000kg 이상을 후원받아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에 쌀 나눔기를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원 선국사, 제1회 의승병문화제

4월 26일 뇌묵당 처영 대사 등 의승병정신 기려



임진왜란 당시 뇌묵처영대사 등 의승병들이 남원성을 사수하기위해 왜군과 전투를 벌였던 남원 교룡산성 선국사(주지 희권)에서 4월 26일 제 1회 교룡산성 의승·의병 문화제가 열렸다.

교룡산성 내에 자리잡고 있는 선국사에서 열린 이번 의승병 문화제는 전주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한 남원지역 스님들과 이환주 남원시장, 박문화 남원시의회 의장 등 300여 대중이 동참했다.

교룡산성 의승병 문화제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승려의 신분임에도 전투에 나선 뇌묵당 처영대사 등 의승병들의 나라정신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문화제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의승병에 대한 묵념, 조총, 헌다, 헌화, 제문낭독, 추도사, 진혼무, 추모곡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재에 이어 의승병 체험, 교룡산성 밟기, 조선시대 갑옷입어보기, 활쏘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의 전통문화체험마당도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중들은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의승군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백제시대부터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교룡산성은 산세가 매우 가파르고 성안에 우물이 99개나 있어 유사시 주민이 대피하기 좋은 천혜의 요새지로 평가받았다. 임진왜란 당시 뇌묵처영대사등 승병들이 수축하여 300여명의 의승군이 주둔하며 왜군과 맞서 싸운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오월은 푸르구나' 어린이 큰 잔치 열어

전북불교계 5월 5일 힘모아,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제도 함께 진행



9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라북도 불교계가 어린이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열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 덕진공원에서 어린이 큰 잔치를 개최했다.

어린이들의 자연친화적인 사고력을 개발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일깨우기 위해 준비한 이날 어린이 잔치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부로 나뉘어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등이 진행됐다. 가족단위로 참가한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은 푸짐한 선물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냈다.

전북불교회관 어린이 법회 회원인 박보현 어린이(11살. 전주시)는 "평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리기 대회에 참가했다"며 "푸짐한 선물도 받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어 즐겁기만 하다"고 말했다.

덕진공원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어린이들의 숨은 장기를 뽐낼 수 있는 경연의 장도 펼쳐졌다.

춤, 노래, 악기 연주 등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와 신나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무대에서는 어린이 판소리 공연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디밴드 '휴먼스'의 공연이 열려 덕진공원을 가득 메운 1천여 가족단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오후에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전주행사가 개최됐다. 남고사 주지 원혜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중고, 개교기념 수계대법회 봉행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금산중·고등학교(학교장 조영석)가 학교설립 68주년(금산중)과 60주년(금산고)을 맞아 개교기념식과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4월 30일 체육관에서 열린 개교기념식에서 학교법인 동국학원 사무처장 종민스님은 "전북의 농촌지역에 설립된 금산중, 고등학교를 설립한 선각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부처님의 높으신 말씀에 따라 덕을 쌓아 농촌지역의 교육경쟁력으로 건학이념의 뜻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교 기념식에 이어 열린 '2015 수계대법회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수계를 받았다. 법회에서는 삼귀의, 반야심경봉독, 꽃 공양을 시작으로 개도, 참회, 연비 등으로 진행됐다. 전계화상인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대신해 사무처장 종민 스님이 전계사로 나섰다. 이어 중학생 78명, 고등학생 77명을 포함해 161명이 수계를 받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www.hyunbulshop.com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교학대회 통해 본 동산 스님의 '불교정화'

동산대종사 열반 50주기 추모행사 잇달아



동산 스님〈사진〉의 열반 50주기를 맞아 불교의 정체성과 위상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고찰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와 동산문도회(문장 능가) 문도들이 5월 3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산 대종사 문도 교학대회' 를 개최했다.

'범어사 및 동산문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갈 길' 이란 대주제로 시작된 교학대회는 도문 스님(조계종 원로 의원)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도문 스님은 "동산 스님은 융성 진종 조사의 상좌겸 수법제자다. 그러니 동산 스님은 석가여래부촉법 제69세, 석가여래계대법 제 76세, 조선불교중흥율 제7조로 법맥을 잇는다"며 "이를 근원으로 동산 혜일 대종사 원적 50주년 학술연구발표가 이룩되어야 이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 시대 불교가 나아갈 길에 대해 동산 스님이 전했던 3대 불교운동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지성화' 운동이 답"이라며 "동산 스님의 정화 운동이 헛되지 않도록 불교가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부발제로 참여한 천제 스님(前조계종 법규위원장)은 성철 스님을 시봉하며 들은 '동산 스님의 사상에 대한 회고' 에 대해 발표했다. 천제 스님은 "여러 루머로 성철 스님이 동산 스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성철 스님은 정화 운동에 뜻을 함께 했으며 법맥 또한 용성 스님에 이어 동산 스님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선 스님(범어사 승가대 교수)의 '초보사미의 정화 견문록' 과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 대표)의 '동산 선사의 간화선 전승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추모다례재, 사진전 등 개최

청정승가 위해 정화운동 필요

혁신의지 계승 위한 연구원 설립

이어 동산 스님의 불교정화 운동에 대한 세부발제가 이어졌다. 법상 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실장)의 '동산 문도의 정화의식과 실천내용' 의 발표에서 스님은 "동산 스님의 정화 정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화는 급진적인 방법이었지만 평소 승가가 부처님의 법에 따라 실천하고 살았다면 이런 아픈 과정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산 문도의 시대적 역할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동산문도의 정화의식과 실천내용' 에 법상 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시장), 법응 스님(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의 '불교혁신을 위한 동산 문도의 역할' , 덕산스님(불교교단사연구소)의 '94년 4 · 15 중앙종회 회의록 분석과 용성문도 평가' 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동산문도회가 5월 3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동산 대종사 문도 교학대회' 를 열었다.

법응 스님은 "조선불교조계종에서 현 대한불교조계종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는 용성 대종사와 동산 큰 스님 등 범어문도 선대 스님들의 고난과 결의, 신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오늘날의 조계종은 창종의 정신이 실종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응 스님은 "현대불교사의 혁신운동이었으며 현 종단체제의 기반을 이룬 1994년 종단 개혁에 대해 냉철한 평가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용성 대종사와 동산 스님의 신심과 원력, 혁신 의지를 계승하고 진정으로 구세대비의 의지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범어사가 나서 권위 있는 연구원을 설립하길 제안한다. 이것이 문도들이 두 분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서 불교 중흥을 이룩하고 세상을 맑히는 길"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 발표로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금정총림' 설립의 역사와 범어사의 정체성' 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광식 교수는 "범어사 스님들은 총림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분석, 준비, 대안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2012년 11월 7일, 중앙종회에서 금정총림으로 지정, 결정됐다. 1960년대 중반부터 50년간 범어사의 정체성, 역사 및 문화를 재정비한 고투의 결실이다. 앞으로 범어사의 역사와 문화에 담긴 사상, 정신, 지성 등은 더욱 치열한 연찬을 통해 재정립해야겠지만 그 요체는 원융살림, 문도화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어사와 동산문도회는 동산 대종사의 열반 50주년 추모다례재를 5월 11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봉행했다. 또한 5월 3일~11일 동산대종사 50주기 사진전을 범어사 보제루에서 개최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하성미 기자

佛都 부산, 봉축 '환희의 등' 밝혀

5월 1일 송상현 광장서 개막 점등식

부산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환희의 등이 밝았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수불)는 5월 1일 송상현 광장에서 '2015 부산연등축제 개막 점등식' 을 개최했다.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TV염불공양모임(회장 하정선)외 회원들의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행사는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재 봉행이 어어졌다. 영산재는 이번 네팔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영가와 세월호, 천안함, 연평도 해전 등 유주무주 고혼들을 천도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는 '추모의 보리수 등' 을 설치해 아픔을 함께하고 자비의 뜻에 동참했다.

축하공연으로는 놀이패 온터의 난타공연이 마련됐으며 삼귀의례와 반야심경봉독으로 점등식의 시작을 알렸다.

점등사에서 수불 스님(부산불교연합회 회장)은 "오늘 우리 부산시민의 염원이 모여 거룩한 등불로 타오르는 인연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자비사상과 평화운동이 온 세계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 드린다"고 전했다.

무원 스님(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봉축사를 통해 "아름다운 불교문화를 선보이고 이 자리를 찾는 많은 시민들이 불교문화를 접하고 알 수 있도록 합시다" 라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이번 부산연등축제는 시민의 축제로 재해석되고 발전되었다는 평이다. 전통등 전시 확장과 각 사찰에서 봉사하는 전통문화체험부스는 품격 높은 불교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이끌어 호평을 받았다.

한편, 송상현 광장에 이어 부산 광복로에서도 대형탑등을 비롯한 38개국 전통복장 어린이등 전시도 5월 11일~17일 펼쳐진다. 5월 17일에는 오후 4시 구덕종합운동장에서 관불의식 및 봉축연합대회, 오후 7시에는 연등행렬이 개최된다. 행렬구간은 구덕종합운동장-대청로-국제시장-광복로-부산근대역사관까지 총 3km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장엄등 100여점과 소형장엄등 200여점, 개인행렬등을 든 연희단, 기수단들이 대거 동참해 거리를 장엄하며 퍼포먼스를 펼치며 봉축의 기쁨을 나눌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2015 부산연등축제 개막 후 시민들이 장엄등을 감상하고 있다.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개막

5월 2일 대구 신천둔지서

불교의 전통등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1015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가 5월 2일 대구 중동교 옆 신천둔지에서 개막했다. 5월 5일까지 4일동안 이어진 관등놀이 축제 기간에 범섬과 황룡, 봉황등 다양한 모양의 대형 전통등이 신천 주변을 화려하게 수 놓았다.

또 국악과 풍물 공연,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와 시민노래자랑 등 다양한 공연과 시민참여 행사가 열렸고 유등띄우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있었다.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 덕문 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을 맞아 인천의 스승이시며 만중생의 복전이신 부처님의 가피가 온누리에 두루하여 자유,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달구벌 관등놀이와 연등회를 봉행한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달구벌 관등놀이가 5월 2일 대구 신천둔지서 열렸다.

장병황 대만판장대 교수, 동백국제상 수상

동백문화재단(운영위원장 수불)은 5월 1일 부산 안국선원에서 장병황 교수(대만판장대학)에게 국제문화박애상 미술 문화부문 대상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시상식에는 주한대만대표부 총영사 일행 및 신도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만의 유명 서예가 장빙황 판장대학 교수는 현재 국제서예협회장을 역임 중이며 10년 전 안국선원의 현판 제작에 참여하고 한국과의 교류에 힘써왔다.

수불 스님은 장병황 교수 외 임영발 교수(대만국립대동대학)에게 교육교류부문 금상, 이순은 사장(대만학가신문사)에게는 문화교류부문 금상을 각각 수여했다.

동백문화재단은 45년 동안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지 격려하며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이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5월 23일 터울림 한마당 방생 대법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는 '터울림 한마당 방생 대법회' 를 5월 23일 오후 2시 초산 유원지에서 봉행한다. 행사는 1부 방생법회에 이어 2부 경로잔치, 불자 노래자랑 및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통도사는 취임 후 통도사 인근의 초산 유원지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존 및 수행환경보호를 위한 '땅한평 사기 운동' 을 전개해왔다.

통도사는 "35억 불사금을 모연하고 초산유원지 땅을 매입했다. 난개발과 수행환경 훼손을 막아 생명사랑 운동을 펼칠 방생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055)381-1288

하성미 기자

선덕여왕 숭모다례제 '황룡사 탑세우기' 등

선덕여왕 숭모회(회장 권대자)가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제29회 선덕여왕 숭모다례제를 5월 2일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 류병선 (사)대구불교신도회 총연합회장, 권대자 숭모회장, 대회장 문희갑(대구시장),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 우동기 교육감, 류형우 예총회장, 류병선 (사)대구불교신도회 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식전 문화행사로 풍물놀이, 한울북춤, 한국환경노래보급협회젬싱어즈 산하단체(지휘자 박영호)의 뮤지컬 '선덕여왕' 과 '물의 노래' 등이 펼쳐졌다.

다례제는 어진제막, 헌촉, 헌향, 헌화, 여왕어진 참배순으로 진행됐다.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삼국통일을 염원하고 백성들의 안녕을 갈망했던 선덕여왕의 거룩한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본받아, 하루 빨리 남북통일을 성취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제례의식으로는 헌다와 대구시립무용단의 공연, 황룡사 호국의 탑세우기, 시민헌화가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5월 2일 개최된 선덕여왕 숭모다례제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世界佛教 法王廳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품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십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

“서유기는 단순한 求法 모험기가 아닙니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① 서유기, 이렇게 읽어보세요

손오공과 그의 스승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이 불경을 구하기 위해 천축으로 가는 〈서유기〉는 동양 고전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가진다. 이 매력적인 이야기는 영화, 만화 등 다양한 형태로 각색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불교적 사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동양 철학자로 유명한 성태용 건국대 교수가 〈서유기〉에 담긴 불교 사상을 본지 연재를 통해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낸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편집자 주〉



그림 · 최주현

삼장법사 · 손오공 · 저팔계 · 사오정의 佛經 찾기 여정은 ‘수박 겉핥기’

여행길 첫 장애인 여섯 도둑은 ‘심원육창’의 불교적 비유 의미해

불교 중심으로 도교적 색채 가미 인간의 수행 과정을 그려내

안녕하세요? 성태용입니다. 오랜 동안 강단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해온 교수라고 소개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는 이야기꾼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얼굴에 금칠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감칠 맛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동생들 옛날 이야기로 울렸다 웃겼다 하곤 했고, 지금은 강의도 이야기 하듯이 재미있게 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결코 자화자찬만은 아니라고 새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서유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첫 날, 제가 이야기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서유기를 이야기하듯이 풀어나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딱딱하지 않게, 정말 힘들이지 않고 재미있게 읽어나가는 서유기 이야기를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서유기를 빌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중간 중간에 곁들이면서, 또 서유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도 되새겨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무겁지 않되 서유기의 숨은 의미를 찾아가면서, 또 서유기를 통해 세상을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는 서유기만큼 적절한 소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유기는 겉만 읽어서는 모르는 깊은 의미가 담긴 책이라는 말이지요.

무슨 말이냐구요? 서유기야 뻔한 책 아니냐구요? 삼장법사 모시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인도 가서 불경 구해오는 이야기라는 것은 다 안다구요?

서유기에 참으로 이해가 깊으신 것 같지만, 바로 그렇게 읽는 것이 서유기를 수박 겉핥기로 읽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너무 쑥스러워 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렇게 읽고들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읽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저의 서유기 이야기가 꼭 필요하고도 빛나게 될 수 있는 이유일겁니다.

서유기가 재미있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라 수퍼보드〉(허영만 씨의 만화) 등으로 각색되어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재미 속에 불교와 도교의 깊은 가르침을 담은, 한권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제대로 번역된 서유기를 읽다가 무릎을 치면서, “야, 서유기가 이런 책이었구나”하고 놀란 대목이 있어요. 우선 그걸 소개해 드리기로 하지요.

손오공이 도술을 배워서 천상을 어지럽히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내기를 하였는데, 근두운을 타고 열심히 날았는데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곤 오행산 밑에 깔려 고통을 당하다, 삼장법사에게 부름을 받고 불경을 가지러 천축(인도)로 떠나게 되지요. 그 여행길에서 만나는 첫 번째 장애가 있어요. 바로 여섯 도둑을 만나는 겁니다. 여섯 도둑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안간희(眼看喜), 이청노(耳聽怒), 비후애(鼻嗅愛), 설상사(舌嘗思), 신본우(身本憂), 의견욕(意見欲). 그럼 쉽게 우리말로 이름의 뜻을 풀어보기로 하죠. 이 도둑들 이름의 첫 글자를 모으면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라는 인간이 지닌 여섯 감각기관이 됩니다. 가운데 글자는 그 감각기관의 역할과 활동을 나타내는 글자고요, 마지막 글자는 기뻐하고 성내고 하는 인간의 정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눈은 보고 기뻐한다 △귀는 듣고 성낸다 △코는 냄새맡고 사랑한다 △혀는 맛보고 생각한다 △몸은 본디 근심한다 △뜻은 보고 욕심낸다.

이렇게 여섯 도둑의 이름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이 여섯 도둑이 나오는 대목의 제목을 보고 나면 바로 무릎을 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고요? “마음 원숭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니, 여섯 도둑이 자취가 없네”입니다. 이 정도 되면 불교적 상식이 있는 분들은 다들 짐작이 가실 겁니다.

“손오공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로구나! 그리고 손오공이 첫 번째 만나서 물리치는 도둑이 바로 이 여섯이라는 것은 그냥 도둑 물리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섯 감각기관의 유혹을 이겨내며,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라는 말이로구나!”

이런 감탄을 터트리게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스님들 법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던가요? 심원육창(心猿六窓) – 마음 원숭이와 여섯 창문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 같은 마음이 여섯 감각기관이라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경치에 팔려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날뛰는구나. 여섯 창문으로 들어오는 경치는 바로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이니라. 그 도둑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하는 식의 설법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렇게 느끼고 나서 서유기를 다시 보면 확 달라집니다. 그 전체가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도교적 색채를 가미한 체계 위에서 인간의 수행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말이지요.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 마왕이나 요괴도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장애들을 극화시킨 것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구요. 단순히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며 요괴들과 싸우는 것만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서유기를 읽는 재미도 달라지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눈을 뜨시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그렇다고 딱딱한 강의를 할 생각은 없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유기의 가치가 바로 이렇게 깊은 내용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극화시켰다는 데 있는데, 제가 애써서 그것을 재미없고 딱딱하게 만든다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저 설렁 설렁, 이리 저리 헤매 가면서 삼장법사 일행과 긴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지요. 서유기를 통해 우리 인생살이, 세상살이의 여러 구석들을 살펴가는 그런 여행이라구나 할까요?

그리고 서유기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보면 또 꽤 기막힌 구석이 꽤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세상살이에는 삼장법사 일행이 만나는 무서운 요괴보다도 더 기막힌 장애물들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구요. 삼장법사 일행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씩씩하게 나가는 서유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도 세상의 험한 장애들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어가는 길,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서유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니 여러분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격려, 그리고 조금의 채찍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유기에 관심을 쏟은 세월이 꽤 되기에, 여러분들과 서유기를 통해 만나는 이 자리가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오고,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그런 저의 감회를 담아서 시 한수를 읊어 보기로 하지요.

현장은 서쪽으로 그리 힘들게 갔는데
달마는 왜 동쪽으로 왔는가?
글자없는 경전의 가르침, 온 누리에 이미 충만한데
번거롭게 오고 감 모두 부질없다.

부질없는 짓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런가?
오고 간 그 길에 잣나무 무성하다.
내 집 뜰 저 나무도 잣나무 아니런가?
어허, 우리 집 잣나무는
단풍도 고와 좋을시고!

그럴 듯 하죠? 그런데 무슨 의미냐고요? 잣나무 단풍이 곱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고요? 그건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첫 이야기에 좀 신비감을 남기려는 시도아니냐고 비난하시진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시에 담으려 했던 의미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기로 하지요.

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 박사를 받았으며, 동양 인문학의 메카인 태동고전연구소 1기 출신이다. 건국대 문과대 학장과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학 단장을 역임했다. 재가불교운동에도 힘써 우리는 선우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고, 조계종 화쟁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건국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주역과 21세기〉 〈오늘에 풀어보는 동양사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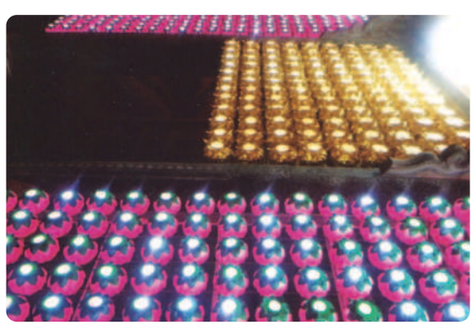
20년의 경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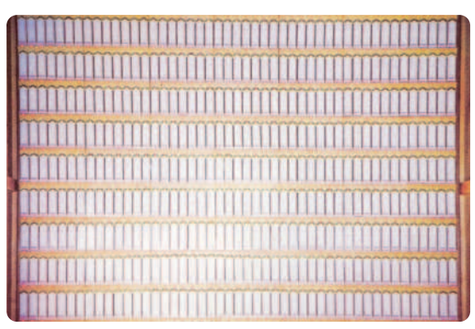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부처님은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보았는가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6. 인간적 애(愛)에 관해서


전등사의 나부상. 전등사를 만든 도편수의 어긋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겼다. 기독교의 경우 절대자와 인간의 사랑은 구별되지만 불교는 인간적 사랑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말리카의 꽃 이름에 연유한 경(經)

붓다의 설법 가운데에 예부터 유명한 설법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 것 외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 새롭게 주목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설법의 하나에 〈말리(末利)〉라는 이름의 한 경전이 있다. 또 같은 내용의 경전 가운에는 〈애자(愛子)〉라는 이름의 경전이 있으며 그것도 또한 비슷한 문제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함께 설명하여 볼까 한다.

이들 경전의 주제는 요약하면 인간적 애(愛)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간적 애의 취급 방법은 예를 들면 기독교가 인간적 애를 취급하는 것과는 전혀 그 성질이 다르며 또 우리들이 불교의 무아(無我)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상 받아온 것과도 상당히 다른 것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뜻에서 처음 이 경전에 접하는 사람들은 퍽 이상한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말리(末利)〉라고 하는 경전의 이름은 원래 말리카(malika)라는 꽃 이름에서 온 것이다. 그 꽃은 작고 백색 혹은 황금색이며 머리를 꾸미는 장식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한다. 코오살라국의 왕 프라세나짓트의 왕비는 매일 이 꽃으로 머리 꽃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런 꽃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한역(漢譯)에 〈승만(勝?)〉이란 것은 이 말리카의 번역이다.

그런데 이것을 주제로 삼은 경전 가운데 〈말리(末利)〉라는 제목의 경전만이 한역(漢譯)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물론 남전(南傳)에는 있으면서도 한역에는 없는 경전이 적지는 않다. 그러나 이 경전에서 한역의 동본(同本)이 없는데는 무슨 특별한 까닭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다만 내 상상(想像)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만큼 이 경전의 내용은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그것은 역시 붓다가 기원정사(祇園精舍)에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 때 왕 프라세나짓트가 찾아와서 그 소견(所見)을 말하면서 이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어느 날 왕은 비(妃)인 말리카와 함께 왕성의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때 우연히 생각난 것은 이 넓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생각하면 그것은 어쩐지 자기 자신인 것같이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는 왕비를 돌아보면서

"말리카여, 당신에게는 무엇이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다.

"왕이여, 나에게는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듣고 보니 물론 왕도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보다 더 사랑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의견은 일치하였다. 그러나 생각하면 무언지 마음에 거리끼는 점이 있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붓다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 가르침에 귀의(歸依)하는 재속(在俗)의 신자(信者)였다.

그런데 그 스승의 가르치는 바는 무언지 훨씬 깊고 초월적(超越的)인 듯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 스승은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설명하셨다. 자기에게 집착함으로써 인간에게 불행, 불안, 번뇌가 생긴다고도 설명하셨다. 이러한 가르침을 다시 생각하여 볼 때, 이제 두 사람이 일치한 결론은 어쩐지 약간 쑥스러운 듯이 생각되었다.

이 왕은 무슨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어떤 소견(所見)이 생겼을 때는 언제나 그것을 스승에게 말하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는 버릇이 있었다. 오늘도 이 결론에 도달하여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곧 이 스승을 찾아와서 그 가르침을 기다린 것이다. 붓다는 조용히 왕의 말을 듣고 있었으나 곧 깊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결론을 긍정하였다. 그리고 게(偈)로써 이렇게 가르치셨다.

사람의 생각이란 어디에도 갈 수 있는 법.
그러나 어디에 가건 사람은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을 찾을 수는 없으리라.
그와 같이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다시 없이 사랑스러우리라.
그런고로 자기의 사랑스러움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害)치지 말지니라.

인간적 애(愛)의 긍정

이 게(偈)가 가르치는 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전반은 왕과 왕비가 도달하였다는 결론 즉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사랑스럽다. 자기에게 있어 가장 관심이 큰 것은 자기 자신이란 것을 붓다 또한 깊이 긍정하며 인정하였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당연한 일이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듯이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거기에 불교의 중요한 특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너희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하여도 무슨 보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취세인(取稅人)도 그렇게 하지 않은가. 형제에게만 인사한다 하여도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이방인(異邦人)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이 사랑스럽다는 감정은 어찌할 수 없는 본래의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자기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사랑한다. 자기의 어버이를 사랑한다. 자기의 아내를 사랑한다. 또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며 친구를 사랑하며 자기의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데 지금 복음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애정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인간적 애, 즉 에로스(eros)이며 단호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에로스는 단호히 버리며 신적(神的) 사랑 즉 아가페(agape)라고 불리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에 관한 기본적 태도이다.

사람의 사랑과 신(神)의 사랑은 전혀 다른 성질의 사랑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전혀 서로 상반(相反)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 본래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에 관한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지금 붓다는 이 왕과 왕비의 인간적인 사랑에 관한 사고(思考)를 부정하지 않는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다는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깊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깨달음 유무를 확인하는 법

문 지금 부처를 배우는 자는 반드시 화두를 참구함으로써 도에 들어가는 방편을 삼는데, 정 · 혜의 의논은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

답 다르지 않다. 과(果)에 있어서는 정혜(定慧)라 말하고, 인(因)에 있어서는 지관(止觀)이라 말하는데, 지관이란 화두를 참구하는 법이다.

화두 참구하는 것은 하나로(單)로 제접(提接)하므로써 초보(初步)를 삼고, 전체로 제접하므로써 자량(資糧)을 삼는다. 자량은 걸음을 걷는 밑천이 되고, 걸음을 걷는 것은 자량의 효과니, 두 가지가 갖추어진 이후에야 그 이를 바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로 제접함을 따라 극치에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 곧 정(定)이고, 전체로 제접함을 따라 활연히 크게 깨달음은 혜(慧)이다. 이름은 비록 다르나 뜻은 곧 하나이니, 대체로 무슨 다름이 있겠는가.

문 부처님이 불법을 배우는 사람을 경계하여 곧 말씀하시기를 "털끝만한데서 어긋나고, 잠깐 사이에 실수한다"고 하셨으니, 이는 부처를 배우는 자의 큰 요점이다. 지금은 선사(禪師)가 매우 많은데, 다 말하기를 "나는 부처님 법을 알았다" 하니, 어떻게 그 삿되고 바름을 분별코자 하는가.

스승없이 스스로 깨달은 자는 '天然外道'
사무치게 깨우치고 종장에게 인가받아야

답 슬기롭구나 이 질문이여, 이는 진실로 학자의 지남(指南)이다. 말하자면 우리 종문(宗門)의 법을 처음 가섭(迦葉)에게 별전(別傳)함으로부터 이후로 등등(燈燈)이 불꽃을 계속 하였으며, 인인(印印)이 서로 전하여 이십 팔대(二十八代)를 지나 달마대사(達磨大師)가 동쪽으로 이 땅에 오시어 '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고 부처를 이루라' 고 하셨다.

육조(六祖)로부터 이하로는 다섯 파가 되었는데, 파(派)는 비록 같지 않으나 도는 곧 하나이다.

무릇 이 도를 서로 전함은 물과 불이 서로 함께 함과 같아 그 사람을 얻으면 전하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친다.

비록 부자(父子)의 친함과 사귐이 오래 되어 친밀함과 신통삼매(神通三昧)와 덕이 광대하고 행이 고결한 자라도 만일 정문정안(頂門正眼)을 갖추지 못했다면 다 무릎 아래로 물리치는 것은 그 도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오묘하기 때문이며 대공무사(大空無私)하여 굳이 허망하게 전수하지 않음은 어목(魚目)과 명주(明珠)는 서로 비슷하지만 진실로 서로 속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도를 배우는 선비는 스승을 찾고 도를 방문하기를 천리 · 만리도 멀다 여기지 않았다. 강과 바다에 노닐며, 산천(山川)을 건너 명안종사(明眼宗師)로써 혈맥(血脈)이 단적(端的)한 자를 결택하면 몸을 던져 예를 올리고 스승을 삼았으며,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어버리면서 묻고, 참구하고, 청하여 구차히 한 말의 이익만 얻어도 생사의 근원을 결단하였다.

그러므로 대혜선사(大慧禪師)가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파계(破戒)하기를 수미(須彌)산 같이 할지 언정 삿된 스승에게 하나의 삿된 생각이라도 물들지 않게 해야 한다. 만일 개자(芥子)만큼이라도 정식(情識) 속에 있다면 마치 기름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 길이 벗어나지 못함과 같다' 고 하심이 이것인데, 살피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또 더구나 위음왕불(威音王佛=최초의 부처님) 이후로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자는 천연외도(天然外道)이다. 그러므로 대도(大道)를 사무치게 깨우친 자는 반드시 종장(宗匠)에게 질문해 보고 삿되고 바름을 결택하여 인가(印可)를 받은 이후에야 큰 입을 열고 큰 말을 설하여 강령을 이끌고 명령을 들어 사방에서 오는 학자를 제접하여 인천(人天)의 안목이 되는 것이다.

만일 그가 그러하지 못했다면 혹 스스로 깨달은 문이 있다 해도 입 밖에 발설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아직은 삿되고 바름을 결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즈음 선사(禪師)라고 호칭하는 자는 가만히 조사(祖師)의 호령을 행하며 한갓 구이(口耳)의 학(學)으로써 본보기를 의지하여 고양이를 그리며, 뜻을 방자하게 하여 도를 어지럽히면서도 선(禪)을 설한다 말하니,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것을 두고 대반야(大般若)를 비방한다 말하며,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업(業)에 떨어진다 말하는데, 아—아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부처님오신날 특별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78,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지진피해 희생자 애도 속 '봉축' 맞은 네팔

일부 사찰 문 닫고 신도 발길 끊겨… 조용한 석가탄신일
말레이시아, 인도 등 부처님오신날 행사서 추모재도 함께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네팔 지진 피해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네팔이 '부처님 오신 날' 을 맞이했다. 부처님탄생지인 네팔은 한국과 다르게 양력 5월 보름날을 석가탄신일로 지정하고 있다.

5월 3일 네팔은 그 어느 때보다 슬픈 석가탄신일을 보냈다. 일부 사찰은 문을 닫았으며 대부분의 봉축 행사는 추모재로 대신했다. 추모재서 불자들은 7.8 강도의 지진이 앗아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발원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위치한 스와얌부나트 사원서 열린 지진피해 희생자 추모재에는 수백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사원 주위를 돌고 진신 사리탑 앞에서 영가의 넋을 기리는 기도를 진행했다.

추모재를 찾은 산타 라마(60 · 여)는 "수천 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이 땅에서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고로 집과 부모님을 잃은 프라베쉬 타망(19 · 남)은 "석가탄신일을 기뻐할 수 없다"며 인근 사찰에서 열린 추모재 참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이웃들과 함께 법당에 들어섰고, 영전 앞에 향을 올리며 잠시나마 평온함을 되찾았다고 미국 미시시피주 지역신문 'Sunherald' 는 보도했다.


지난 5월 3일 네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전역에서 열린 석가탄신일 행사는 네팔지진피해 희생자 추모재로 진행됐다. 사진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스리랑카 사찰에서 추모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한편 네팔 정부는 외국인 구조 활동가들에게 석가탄신일 행사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석가탄신일을 맞아 부처님 성지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다. 현재 네팔 경찰은 지진으로 인해 손실된 불교 유적 주변을 통제하고 있으며, 원숭이들이 모여 살아 유명세를 탄 '원숭이 사원' 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을 안전상의 이유로 차단했다.

미국 워털루지역신문 '570News' 에 따르면 네팔 정보부 장관 미넨드라 리잘은 "카트만두에서 주요 수색 및 구조작업이 마무리 되고 있다. 남은 작업은 지역 주민과 함께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외국 자원 봉사자들은 그만 귀국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동남아 전역 석가탄신일 행사에서는 네팔 지진피해 희생자를 위한 추모의식이 진행됐다.

인구 대부분이 불자인 말레이시아 곳곳에서는 네팔 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마하 비하라 사찰에는 봉축을 맞아 오전 6시부터 신도들이 밀집했다. 불교기 게양 및 찬불가 봉송으로 이어진 추모 의식에서는 헌혈 및 장기 기증 서약 행사도 열렸다.

이날 말레이시아 불교 종단의 수장 다툭은 "올해 봉축행사는 부처님 성지인 네팔에서 끔찍한 재난으로 희생당한 자들을 위한 추모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또한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 마하보디 사찰에서도 5월 4일 봉축행사에서 합동위령재를 올렸다. 이날 위령재에는 비하르주지사 나이티시 쿠마를 비롯한 각 국 지도자들과 유명 승려들이 참석해 마하보디 나무 아래서 묵념을 하며 애도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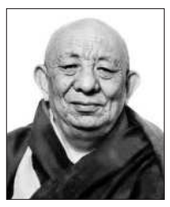
쿠마 주지사는 "비하르 주정부는 지진피해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것"이라며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는 일본의 재난 피해 최소화 대책법을 배워야 한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아름 수습기자

텐자브 세르콩 린포체, 스타워즈 요다의 모델

스타워즈 데이 4일 맞아 … 영화 스타워즈와 불교와 관계 재조명




불교학자 알렉사더 베르진 박사가 영화 스타워즈의 등장인물 요다의 전형으로 지목된 텐자브 세르콩(Tsenzhab Serkong) 린포체.

영화 스타워즈(Star Wars)의 주요 등장인물 요다는 세간의 말처럼 과연 스님을 형상화한 것인가? 다소 엉뚱한 질문이 지난 4일 '스타워즈 데이(Star Wars Day)' 를 맞아 'Lion's Roar' 지가 제기했다.

'스타워즈 데이' 는 스타워즈 영화 속 유명한 대사인 "포스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May the Force be with you)"의 영어 표현이 5월 4일(May the Fourth)과 비슷하게 들리는 데에서 유래한 행사로 세계 각국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Lion's Roar' 지는 불교학자 알렉산더 베르진(Alexander Berzin) 박사의 말을 인용, "루카스(G. Lucas) 감독은 제작에 앞서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해 텐자브 세르콩(Tsenzhab Serkong) 린포체를 만났고, 스님을 통해 요다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베르진 박사는 자신의 저서 〈텐자브 세르콩 린포체의 초상(A Portrait of Tsenzhab Serkong Rinpoche)〉에서 "달라이 라마의 개인교사였던 텐자브 세르콩 린포체는 깊은 얼굴 주름으로 강한 인상을 심어주면서도 온화한 말투와 유머 감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주었던 현자"라며 "당시 그를 만난 루카스 감독이 그를 요다의 전형으로 삼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2005년 〈스타워즈의 다르마(The Dharma of Star Wars)〉 메튜 볼토린 작가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영화는 불교가 서양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연구 자료로서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요다, 오비완, 루크 스카이워커 등 등장인물의 언행은 동양 정신사 특히 불교의 핵심으로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 젊은이들 사로잡은 17대 카르마파…명상법회 펼쳐

두 달간 일정으로 … 주요 대학과 사찰 방문

티베트의 차세대 종교지도자로 주목받는 17대 카르마파(Karmapa) 오겐 틴래 도제가 지난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한 이래 미국 젊은이의 마음을 다잡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The New Yorker' 지가 4월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카르마파 재단(KTD) 초청으로 두 달간 하버드대학, 프린스턴대학, 스탠포드대학, 레드랜드대학, 위스콘신대학 매디슨캠퍼스, 예일대학 등에서 강연 일정을 잡고 미국을 찾은 17대 카르마파가 9일 프린스턴대학교를 방문했다.

'The New Yorker' 지는 "17대 카르마파는 지난 토요일(현지 기준) 프린스턴대 재학생과 '네팔 지진 희생자 추모 법회' 를 봉행한 것을 시작으로 재학생과 깊은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며 "재학생들은 차세대 종교지도자라고 하기에 소탈하고 진솔한 17대 카르마파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17대 카르마파는 이번 프린스턴대학 방문에서 '젠더와 성' 을 주제로 진행된 정규수업에도 참석했다"고 전한 'The New Yorker' 지는 "이는 비구니계 법맥을 복원하고 지키는 데 적잖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17대 카르마파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성향' 이 그대로 보여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7대 카르마파와 함께 '젠더와 성' 주제 수업을 들은 닉 가르텐(N. Garten) 씨는 "적갈색 가사를 입고, 샌들을 신은 젊은 종교지도자가 친근하게 느껴졌다"며 "특히 겸손하고 온화한 그의 어투에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깊게 감동했다"고 말했다.

17대 카르마파는 'The New Yorker' 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심오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지금까지 배웠고 앞으로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7대 카르마파는 프린스턴대학 명상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명상 법회' 를 봉행했다"고 보도한 'Tibet Post' 지는 "이날 회원들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 에서부터 '명상을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장애'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며 "17대 카르마파는 솔직하면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회원들의 질문에 응했고, 회원들은 호응했다"고 전했다.


프린스턴대학에서 '젠더와 성' 주제 수업을 들은 17대 카르마파(Karmapa) 오겐 틴래 도제(ogyen Trinley Dorje)이 함께 수업을 들은 대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한편 프린스턴대학에 앞서 방문한 예일대학에서 공공서비스 및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가져다 준 리더들에게 수여하는 '처브 펠로십(Chubb Fellowship)' 상을 수상한 17대 카르마파는 레드랜드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英 불교공동체 '보금자리 마련 고심'

지역 불교계 보금자리 '승가의 집(Sangha House)' 철거



지난 2011년 개원한 영국 런던 근교 브렌트우드의 불교센터 '승가의 집(Sangha House)' 과 개원 이래 원장을 맡고 있는 제인 워드(Jane Ward) 법사(사진 맨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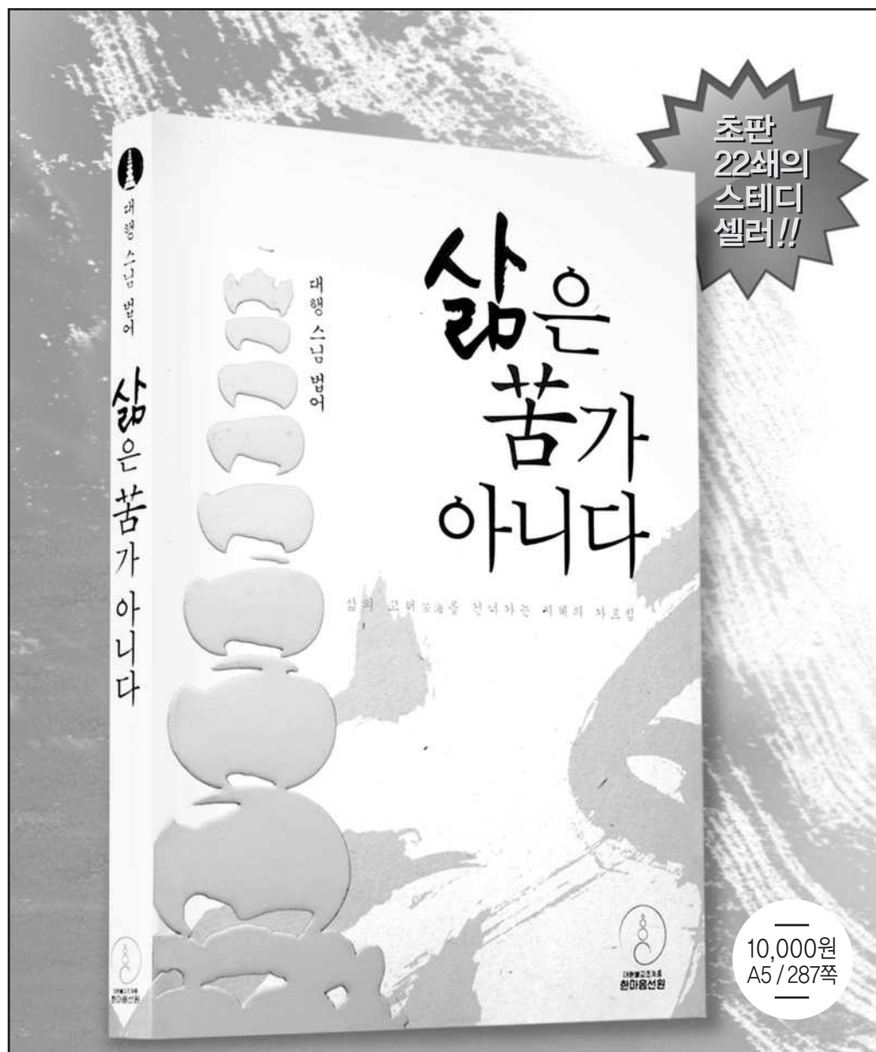
영국 브렌트우드(Brentwood) 불자들이 '수행 공간' 마련에 애태우고 있다고 'Gazette' 지가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런던 근교 브렌트우드의 불교센터가 해당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철거 위험에 놓인 것이다.

"지난해 11월 브렌트우드 지역의 재개발 계획이 확정됐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한 제인 워드(Jane Ward) 법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 비용으로 이만한 공간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제인 워드 법사는 지난 2011년 불교 불모지인 브렌트우드에 '승가의 집(Sangha House)' 이라는 이름으로 불교센터를 개원했다.

"올해로 5년째 이곳 승가의 집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는 제인 워드 법사는 "그동안 공동체 규모도 커졌고, 승가의 집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도 커졌다"며 "브렌트우드 불교 공동체가 서로의 힘을 더해 승가의 집에 몰아친 난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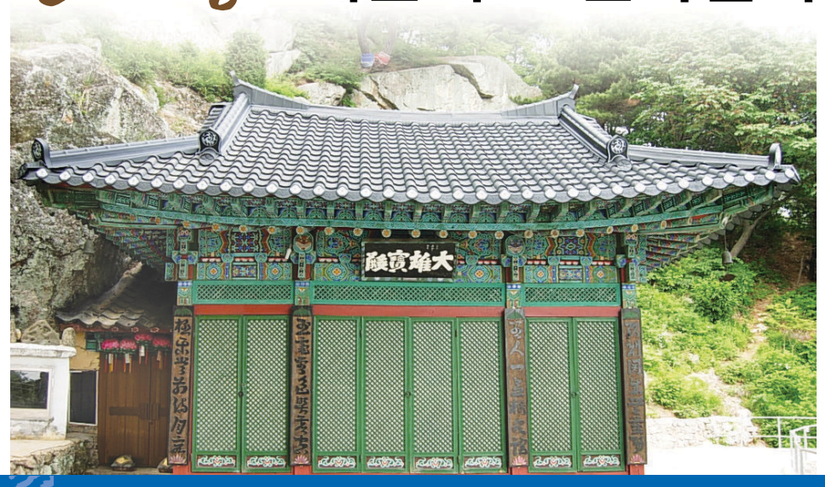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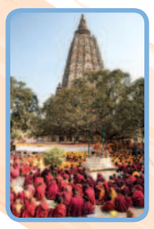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마하연투어 예약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1.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불교행사*
4.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5. 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 비교 필수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 5일
양곤/바간/헤호 5일
BEST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BEST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네팔/부탄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
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BEST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
나란다–쿠시나가르–룸비니–카필라바스투–쿠단–
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
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BEST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
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라오스

BEST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7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엠립 6일

태국

태국
방콕–아유타야–파타야 5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 3대사찰 순례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중국

BEST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BEST [관음도량] 항주/보타/낙가산 5일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BEST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BEST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훼리 크루즈(수륙대제 가능)
대룡훼리, 화동훼리, 위동훼리
세계3대 트래킹명소 호도협
곤명/호도협/옥룡설산 6일

세계 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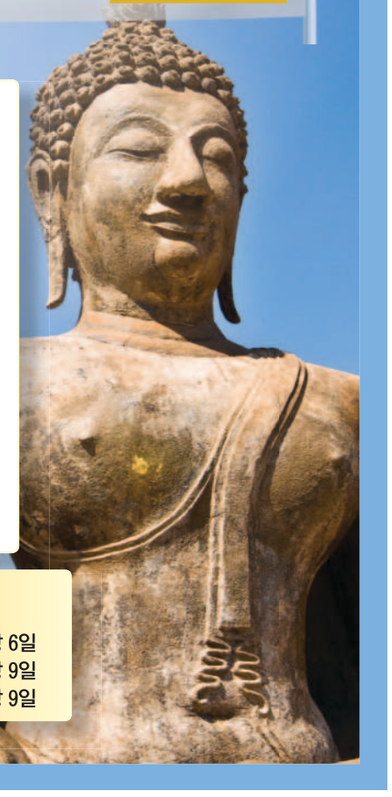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일주탐방 9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동부 일주탐방 9일

집중모객 —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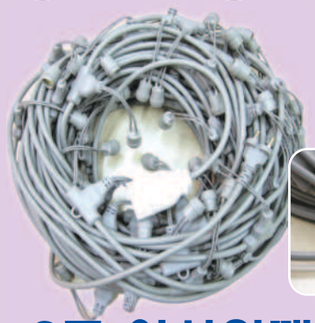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5월 27일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출발일: 6월 17일
[대한민국 영산] 북경/백두산	5일	출발일: 6월 11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6월 11일

요금문의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방수연등전선 전문 KS정품 생산업체와 계약 체결로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Made in Korea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바림등(6cm) @2,500원 (60개이상)

바림등(8cm) @3,000원 (30개이상)

• 2줄 이상일때 한줄당 가격입니다.
• 비규격 전선은 전화문의바랍니다.
• 22cm, 23cm, 25cm (50구) @65,000 (2줄이상)
• 30cm (50구) @65,000 (2줄이상)
• 35cm (50구) @70,000 (2줄이상)
• 40cm (50구) @73,000 (2줄이상)
• 50cm (50구) @75,000 (2줄이상)
• 1 m (50구) @90,000 (2줄이상)
• 2 m (25구) @80,000 (2줄이상)

*국산 LED전구 (50개)
*@90,000 〈개당 1,800원〉




일반연잎 6,000


일반연잎大 6,000


바림연잎 7,500


한지바림연잎 9,000


천바림연잎 30,000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010-2094-2991-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불일암의 사계 추억하며 무소유 정신 기린다

고현 교수, 법정 스님 5주기 추모전



불교에 심취해 있던 20대 후반의 미술학도였던 청년은 전람회에 부처님 수인과 발자국을 그린 작품을 연 2회 출품했다. 전람회장에서 만난 기독교인 선배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 어디 아픈가? 작년에는 부처님 손바닥을 내놓더니 올해는 발바닥을 내놓네." 그의 말에 청년은 화가 끓어올랐고 결국 다툼이 일었다. 이후 청년은 결심했다. 작가 혼자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넘어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이루어야겠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자신을 비난한 선배에 대한 미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법정 스님은 어느날 그에게 물었다. "자네 아직도 그 선배가 미운가?" 청년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자네 20대에 일찍이 한소식 했구만. 그 선배야말로 자네 눈을 키워준 선지식인이네. 미워하지 말게"

스님의 말씀에 청년의 마음속에는 일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리고 청년은 결심했다. '불교 미술의 현대화, 불교디자인의 개척화' 를 이루어야겠다고.

고현 교수(조선대 디자인학부 · 맑고 향기롭게 광주 본부장)〈사진〉가 5월 18일~26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법정 스님 5주기 추모 전시 '불일암 추억' 을 연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법정 스님 5주기 추모 전시로 30년 동안 스님을 모셔온 고현 교수의 추억을 담아냈다.

작가는 1981년 봄 법정 스님과 불일암에서 인연을 맺었다. 법정 스님의 속가 조카 현장 스님(보성 대원사 회주)의 소개로 법정 스님의 불일암을 찾게 된 고현 교수는 스님에게 "자주 찾아 뵈어도 되겠냐"고 물었다. 스님은 "3대 1"이라고 답했다. 세 번 찾아가면 한번 정도밖에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개의치 않았다. 작가는 결제 기간을 피해 불일암을 찾았다. 스님의 말씀처럼 세 번 찾아가면 한번 정도 스님을 뵐 수 있었지만 불일암을 찾는 것만으로 그의 삶에도 작품에도 변화가 일었다.

인기척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인 없는 암자에서 한 두 시간씩 적요의 뜨락을 서성거리곤 했다. 산죽이 바람을 만나 대잎끼리 부비는 소리도 지켜보고, 후박나무 가지 사이로 떠오른 창백한 달빛도 만져보고, 풍경소리 아득하게 점을 찍으며 멀어져 가는 여

30년 법정 스님의 인연 화폭에
5월 18일~26일 길상사 설법전서
회고집 〈법정을 추억하다〉도 출간



'불일암의 추억' 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

운도 담아 오면서 갈 때마다 몇 점의 스케치는 꼭 건져오곤 했다.

그러한 화상들이 그대로 화폭으로 옮겨졌다. 늦은 봄 진달래 속에서 아득히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로, 물안개 호수 위에 그림자 같은 여름날의 조계산 자락으로, 텅 빈 암자의 뜨락에 이리저리 날려가는 만추의 낙엽들로 표현 되고, 얼음 달 사이로 계절보다 앞서 떠나는 철새들의 여운도 함께 하면서, 차 한 잔의 향으로 사유의 뜰을 넓혀가던 침묵의 방으로 탄생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법정 스님의 의자' 를 소재로 '삼매향' 과 '향월' 은 법정 스님을 추억하기에 충분하다. "스님께서는 늘 머리 깎고 중이 되지 않았으면 목공 일을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님은 점심공양을 끝내고 나무를 가지고 뚝딱거리며 무언가를 만들어 내곤 하셨죠. 두벌 잠 즉 낮잠을 쫓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이 의자도 스님이 장작을 가져다가 손수 만드셨죠. 늘 달맞이 꽃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 감상하셨어요. 스님의 의자는 당신의 무소유적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불일암의 4계절을 작품속에 고스란히 담아내며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일깨워줄 것이다.

한편, 고현 교수는 이번 전시와 함께 30년 회고집 〈법정을 추억하다〉를 펴낸다. 30년 가까이 법정 스님을 모시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회를 정리해 놓은 이 책은 스님의 유지를 지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작가의 마음을 담아냈다. 5월 18일 전시 오프닝과 함께 출판 기념회를 갖는다. (02)741-4696



'법정 스님의 의자' 를 소재로 한 '향월' 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일깨워준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붉고 푸른 불전장엄의 美 한자리에

5월 15일~8월 16 불교중앙박물관서

조선중기 휴정대사는 금강산 도솔암의 불전장엄을 두고 '붉고 푸른 장엄의 광채가 아름답다' 라는 기록을 〈청허당집〉에 남겼다. 불전 장엄구들의 아름다움을 되새겨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중앙박물관 2015년 특별전 '불전장엄(佛殿莊嚴), 붉고 푸른 장엄의 세계' 전시가 5월 15일~8월 16일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장엄이란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 것' 이란 의미로, 불전을 장엄한다는 것은 불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아름답고 엄숙하게 해준다. 그동안 불교공예품의 대표적인 불전장엄구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명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만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전시는 불전을 장엄하는 다양한 장엄구들을 정리하고 의미를 새겨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전시에서는 현존하는 조선 전기 유일한 불교 패인 안성 칠장사 원패, 뛰어난 자수기법이 확인되는 순천 선암사 용문자수탁의 등 보물 7점, 전체 143점의 불전장엄관



조선전기 제작된 안성 칠장사 원패

안성칠장사 원패, 선암사 탁의 등
보물 7점 등 143점 성보 한자리에

련 성보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1부 '부처님의 모신 집, 불전(佛殿)' 은 불전의 의미와 구성을 이해하고, 특히 삼단체계와 관련된 불화들에 대해 살펴본다.

2부 '불세계를 장엄하다. 불전장엄구' 에서는 불교패, 명경, 탁의 등 의례가 활발했던 조선시대 불전장엄구들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당시의 미의식과 신앙생활을 반영하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2015년 특별전 '불전장엄(佛殿莊嚴), 붉고 푸른 장엄의 세계' 전시가 5월 15일~8월 16일 열린다. 순천선암사 용문자수탁의.

3부는 '불전의 확장, 야외 의식 법회' 를 보여준다. 불 · 보살을 모시는 상단은 야외 의식용 불화인 괘불을 걸어 장엄을 더하고, 중단과 하단 역시 단을 설치한다. 혼령을 불러올 사자와 다섯 길을 관장하는 왕들을 위해 사자단(使者壇), 오로단(五路壇)을 따로 설치하기도 했다.

야외 의식의 공간도 다양하게 장엄되었는데, 다양한 여래, 사보살, 팔금강 등을 그린 불화들과 번(幡)들은 신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도량을 의식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장엄의 용도로 이용되었다. 패나 불상 등을 야외 의식의 장소로 옮기기 위한 불연(佛輦)도 불전에서 도량으로 법회 공간을 확장하는 상징이다.(02)2011-1960 정혜숙 기자

불화, 세상과 만나 상처를 치유하다

박경귀 개인전 5월 26일까지 스페이스선+에서

박경귀의 개인전 '불이(EVERYTHING IS ONE)' 가 스페이스선+에서 5월 26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극단적인 세대 간 갈등, 이념적 대립 현상을 '집단적 상처' 로 간주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불교의 불이사상을 작품에 투영시켰다.

따라서 작가는 불화 속에 현실 문제의 접목을 시도 세상의 아픔을 함께한다. 특히, '링크붓다-잊지 않으마' 에서 부처님이 덮고 있는 모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쓴 비통의 편지 글을 촘촘히 적어 장엄스런 문양으로 표현 집단적 상처의 치유를 시도하고 있다.

작가는 기존의 불화나 경전 속 인물보다는 현재 우리의 모습에 가까운 소박한 대상들을 작품으로 표현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현시대의 문제를 반영해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지난 40년간 이어왔던 전통불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현실의 모습과 만나 진정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경귀의 'White Lotus in White Moon' (부분도)

한편, 작가는 작품판매금액의 일부를 네팔 지진 피해자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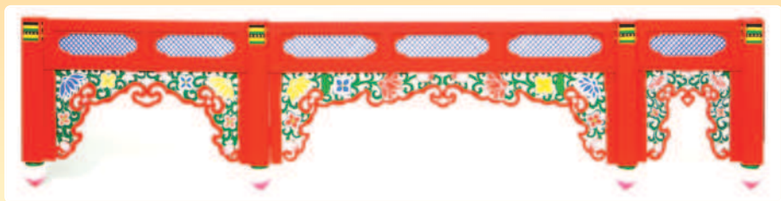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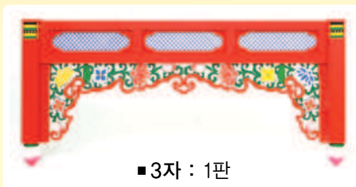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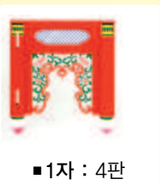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3자 : 1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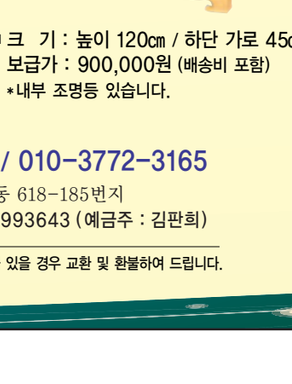


■2자 : 4판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 가격 : 90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3772-316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56-1008-993643 (예금주 : 김판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현장 스님 구도역정 제주서 마당놀이로

마당극 '현장구법기', 5월 23일 한라체육관서


총연출 양기훈


현장스님 역의 지화 스님


소림사 방장역 성견 스님


음악감독 문순배 지휘자

제주에서 초대형 마당극 '현장구법기'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는 5월 23일 한라체육관에 장엄하게 펼쳐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불교연합회(회장 탄해 스님)가 주최하고, 제주불교신문(대표이사 성효 스님)이 주관하는 이번 마당극 현장구법기는 시사프로 '돌하르방 어디레감수강'으로 유명한 불자 양기훈 씨가 총 각본 및 연출을 맡았다.

마당극 특성에 맞게 출연진들도 많다. 우선 주인공인 현장 스님과 손오공 등을 비롯해 200여 연합합창단, 난타팀 12여명 등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 스님이 중국서 천축(인도)까지 법을 구하는 여정에 만난 138개국의 부족(도시)국가를 상징한 138개의 깃발을 제주도내 대덕 스님이 직접 드는 등 총 출연인원만 450여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한다. 또한 제작기간만도 3년이 넘게 걸렸다.

주최측 관계자는 "제주불교계는 이번 마당극을 통해 종단 화합을 다지는 한편 봉축을 맞아 제주불자들이 불자로서 자긍심을 고양하고 공감대 확산을 통한 불법홍포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번 현장구법기 마당극은 역사 속 인물인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불자들이 우러

450여명 출연… 제작기간 3년여
138개국 상징한 깃발들 볼거리

러보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불법을 구하러 인도까지 간 그 도전정신과 부처님 가르침을 동북아에 전달한 개척자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기획의도를 갖고 있다.

줄거리는 이렇다. 삼장 법사는 자기 일생을 걸고 서역으로 가서 불경을 중국에 갖고 오겠다고 결심을 한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안고 길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 과정서 삼장법사는 승려로서의 계율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자기의 원양(元陽)을 끝까지 지키기, 육식하지 않기, 그리고 구법의 마음을 잃지 않기 등이었다. 일견 쉬워 보이나 무지하게 어려운 고행의 나날들임에 틀림없다. 이런 구도 역정들이 마당극의 형태로 펼쳐져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할 것 같다. 총 연출자인 양기훈 씨는 "이번 공연은 불교계의 가장 경사스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제주도내 문화역량을 가진 불자들이 한데 종단을 초월해 힘을 합쳐 등장인물만 450명이 넘는 제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연이 될 것"이라며 "이는 바로 불자로서 부처님께 공양을 바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 씨는 "현장 스님이 당나라서 천축까지 간 과정 속에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이 주인공이지만 이번 마당극에서는 현장 스님을 주인공으로 했다"며 "노래, 춤, 판소리 버전의 찬불가 등 배우들의 연기가 하나로 모아져 불교가 갖는 종합예술의 묘미를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인공 현장 역을 맡은 지화 스님(제주 흥룡사 주지)은 "역사적 사실을 공연 형태로 올리면 딱딱한 느낌이 들수도 있지만, 이번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마당극 형식을 빌려 유쾌한 캐릭터들이 풍자와 해학을 펼치기 때문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교를 초월해 지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탄탄한 스토리 전개와 함께 충분한 볼거리도 제공된다. 현장 스님이 고행에 가까운 구법의 길을 갔던 대당서역기에 등장하는 138개 나라 국기를 상상해 만든 깃발은 당시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관객들을 압도할 스케일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대동마당에서는 현장 스님이 나눠준 법신 사리를 이날 참가자들이 머리에 이고 탑돌이 하는 장면 또한 신심을 불어넣어줄 최대의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마당놀이로 펼쳐지는 '현장 구법기'에는 200여 연합합창단 등 총 450여 명이 참여한다. 리허설 장면.

부처님 일대기 드라마로 만난다

불교TV, 드라마 '붓다' 5월 25일 오후 9시 첫 방송


개국 20주년을 맞은 BTN불교TV가 부처님 일대기를 장편 드라마화 한 '드라마 붓다'를 배급 · 방영한다.

부처님 일대기의 생생한 이야기를 안방 극장을 통해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개국 20주년을 맞은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가 세계 최초로 부처님 일대기를 장편 드라마화 한 '드라마 붓다'를 배급 · 방영한다.

부처님오신날인 5월 25일 오후 9시에 1, 2회가 연속 방송되는 '드라마 붓다'는 2014년 인도 최고 시청률상과 베스트 촬영상 수상(싱가포르, 2014) 등 다수 국가에서 수상, 호평을 받고, 인도네시아(Bali TV), 스리랑카(Derana TV), 미얀마(TV 5), 캄보디아(CBS TV), 태국(Sahamongkol TV) 등 주요 불교국가에서 인기리에 이미 방영됐다. 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까지는 전파를 타지 못했으나 BTN불교TV를 통해 국내에는 처음으로 방송된다.

세계 최초의 부처님일대기 장편드라마인 '드라마 붓다'는 총 55부작으로 제작 준비 기간만 10년이 걸렸으며 부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충실히 구현하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 세트, 의상, CG등에 16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다.

〈드라마 붓다〉는 매회 모두 2600년 전 부처님 당시를 옮겨 놓은 듯이 화려하고 실감나는 화면구성과 뛰어난 연출력이 특징이며 회차 별 에피소드에서는 부처님의 삶과 성품, 지혜, 그리고 고뇌까지 느낄 수가 있어 부처님(싯다르타 왕자)의 생애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 현지를 배경으로 인도 배우를 캐스팅 했으며, 당시 왕족의 생활모습을 복원한 것은 물론, 건물과 거리, 일반인들의 모습들까지도 모두 당시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부처님 생애 다룬 최초 드라마
제작기간 10년 · 비용 1600억원
장편 55부작…매주 수목 방영

'드라마 붓다'는 드라마 장르의 특성을 살려 대중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 학술적 접근으로 사실관계에만 초점을 맞춰 어려움을 더하기 보다는 당시 부처님의 상황과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표현하는 것에 연출의 무게를 뒀다.

또한 고타마 싯타르타 태자의 탄생, 출가, 깨달음, 열반까지 부처님의 전 생애를 광범위하고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점은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가지기 어려운 장편 드라마만의 장점으로 꼽힌다.

BTN불교TV 역시 '드라마 붓다'의 전달력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애초 한국어 자막 대신 더빙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BTN불교TV 관계자는 "BTN의 주 시청자군을 고려하고 극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정상급의 전문 성우들이 참여하는 만큼 원작의 감동을 최대한 살려 시청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55편인 〈드라마 붓다〉의 역사적인 첫 방송이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5일에 편성된 것도 눈길을 끈다. BTN불교TV는 부처님오신날 밤 9시, 연속 1, 2회를 파격적으로 편성하였고, 본방송은 매주 수, 목 밤 9시에 방송을 한다. 재방송은 일요일 새벽 1시, 오후 3시(각각 연속 2회)예정이며, 차주 화, 수 오전 9시에는 전주 분을 재방송하는 등 최대한 시청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이와 함께 BTN불교TV는 첫 방송에 앞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먼저 5월 20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드라마 붓다' 1회 VIP시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시사회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하여 주요 내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드라마 붓다' 소개 및 1회를 상영한다.

또한 시청자들을 위해 5월 13일부터 홈페이지(http://www.btn.co.kr)를 통해서도 등장인물, 미리 보기, 매달 이벤트 등 '드라마 붓다'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http://www.facebook.com/BTNkorea)나 카카오스토리 채널(http://ch.kakao.com/channels/@btntv) 등을 통해서도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법관 스님 개인전 '禪-2015'

5월 19일까지 갤러리 이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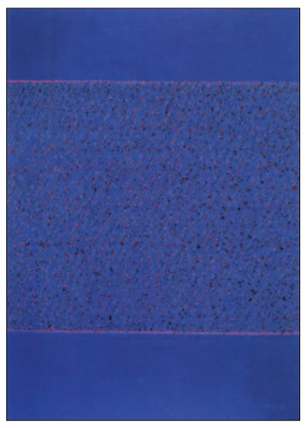
법관 스님의 개인전 '禪-2015'가 5월 13일~19일에서 갤러리 이즈에서 열린다. 법관 스님의 작품세계는 색선면의 결합이다.

스님은 끊임없는 반복을 그림의 작화 방식에 적용시키며 수행의 여정을 이어나간다. 이는 수행자와 화가의 정체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스님만의 수행방식이기도 하다.

윤진섭 미술평론가는 그의 작품에 대해 "무수한 점을 찍고 선을 긋는 과정은 삼천배를 하는 과정과도 같다. 때문에 화폭에 찍는 점과 긋는 선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르다. 청색을 주조로 황색과 연한 녹색 연한 핑크색의 잔 터치들이 화폭에 펼쳐지면, 마치 한 필의 피륙과도 같아 보이는 화면은 아른아른한 색의 효과를 자아낸다"다고 평가한다.

법관 스님의 작품은 궁극적으로 마음을 이야기한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를 작업의 중심에 두는 작가는 균형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본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깨달음의 경지를 찾아가는 스님은 청색조


법관 스님의 '禪-2015'

를 통해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02)736-6669 **정혜숙 기자**

제28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공모

접수 9월 1일~3일…작품 규격 제한 해지, 외국인 응모도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대회장 자승, 운영위원장 혜일)는 2015년도 제28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공모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 공모요강을 확정했다.

작품접수는 9월 1일~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11월 25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또한 수상작들은 11월 25일~12월 8일 2주간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제28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부터는 작품 규격에 대한 제한을 해지하고 작가들이 보다 다양한 작품 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응모가 가능하다.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제28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공모요강'에 따라 응모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비는 1점당 50000원이며 1인 2점까지 응모가능하다.

상금은 △대상 1500만원 △최우수상(2명) 각500만원 △우수상(3명) 각300만원 △장려상(6명) 각 100만원 등이다.

(02)2011-1770 **정혜숙 기자**

국립경주박물관 분필그림 한마당 개최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5월 2일 가족이 함께하는 '제3회 국립경주박물관 분필그림 한마당'을 열었다. 박물관 전시품을 주제로 가족들이 협동화를 그리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106가족 386명이 참여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참가 작품 중 우수작 11점을 선정해 시상을 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장상을 수상한 김성현 가족은 '피리를 불고 있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지구촌 사람들이 한가족처럼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혜숙 기자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6~5/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여백	법정,최인호	6	숨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없다	사유수	수신오도
2	무비스님의발심수행장강의	(주)조계종출판사	무비스님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효림	우룡큰스님,김현
3	붓다가말하는인간관계의지혜	문예출판사	타가미타이슈/원영	8	꿈을깨면 내가부처	정토	서암스님
4	불교기독교를논하다	모과나무	이제열	9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민족사	동봉지음
5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김영사	박진여	10	행복한불교이야기(오대산정념스님이들려주는)	담앤북스	자현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이해심과 자비심은 세상을 바꾸는 씨앗"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014년 11월 뇌출혈로 프랑스 보르도의 병원서 혼수상태에 빠졌던 세계적인 불교지도자 틱낫한 스님이 깨어났다. 달라이 라마와 함께 살아 있는 부처로 추앙받는 그이기에 전 세계 불교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과 종교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평화의 말씀과 수행법을 전해온 틱낫한 스님은 깊이 있는 말씀 속에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수행법을 소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아흔의 노구에도 강연과 수행 지도는 물론 100여 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하는 등 현재까지도 왕성한 집필활동을 이어오고 있었기에 그의 혼수상태는 뜻밖이었다.

이 책이 그의 마지막 저술은 아니지만, 이 책서 그는 수십 년간 이어온 수행의 결과를 짧고 쉽게 정리한다. 베트남 전쟁을 치열히 겪은 그이기에 세상의 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그렇다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변화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는 그 답으로 불교의 깨어 있는 마음과 집중, 통찰 수행을 소개한다. 내가 스스로 부처임을 깨닫고 좋은 사람이 될 때, 세상 또한 밝아진다는 불교의 메시지를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들려준다. 가르침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들려주지만, 담고 있는 뜻은 묵직하다. 세상은 기후변화, 테러, 종교 전쟁 등 혼돈과 반목 속에 있기에 전 세계인들이 평화를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할 세계 윤리가 필요하다. 이데올로기의 시대도 지나고, 삶의 철학도 부재한 시대, 그렇다면 어떻게 세계 윤리를 만들 수 있을까. 깨어 있는 마음과 집중, 통찰 수행을 하면 나와 타인이 다르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며,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독교인과 이슬람 신자가 싸워야 하는 적이 아니고, 들에 자라는 나무와 내가 따로 있지 않다. 이것은 종교를 넘어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행으로, 이것을 깨달을 때 길 옆 풀 한 포기조차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처음 깨달음을 얻은 뒤 살아 있는 존재는 모두 깨달을 수 있다고 했다. 통찰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팔정도(八正道-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근(正勤),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며, 팔정도는 사성제의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에 해당한다. 고집멸도를 뜻하는 사성제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그 통찰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과 평화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사성제는 고(苦), 괴로움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 일상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이 없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른쪽이 있기에 왼쪽이 있듯이 괴로움이 있기에 행복 또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있어 괴롭지만, 사람으로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삶이다.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행복이고 행복은 괴로움에서 자란다.

"행복과 괴로움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비이원적 사고는 세계 윤리에 기여할 불교의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악이 없다면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이 존재하기에 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성제의 두 번째인 집(集)은 괴로움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고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괴로움이 어떤 행동과 생각에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깊이 보아야 해결책 또한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폭력성과 화, 걱정과 우울, 스트레스는 괴로움을 낳는다. 이는 나를 파괴할 뿐 아니라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깊이 들여다보면 괴로움이 괴로움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00퍼센트 온전한 괴로움도 온전한 행복도 없다. 오히려 괴로움 속에 기쁨도 있다.

"우리는 병 또한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병은 훗날 병균에 감염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자주 아팠던 아이가 종종 아주 튼튼한 십대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아프기라도 해야 겨우 쉴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파서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자신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법
틱낫한 지음
유향란 옮김
김영사 펴냄
1만 2천원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틱낫한 스님의 마음 수행법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며,
괴로움과 행복은 한몸일 뿐"

불교는 자력의 종교다.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괴로움으로 힘들다면 그 괴로움 또한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잘 돌보면 타인의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에 행복한 세상은 자신을 깊이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멈추고 지금 관찰하는 대상에 오롯이 집중하면, 괴로움의 본성을 보게 되고 이해심과 자비심이 생긴다. 이런 이해심과 자비심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된다.

음식과 감각, 욕구, 집단의식, 원초적인 두려움으로 만들어지는 괴로움은 또다시 갈망, 분노와 폭력, 무지, 콤플렉스, 의혹과 의심 등을 만들며 우리를 옥죄어온다. 우리는 늘 깨어 있는 마음, 집중, 깊은 통찰의 능력을 키워 괴로움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할 필요도, 지나간 것을 돌아볼 필요도 없다. 깨어 있는 마음으로 걷고, 호흡하고, 먹고, 말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커진다.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른 생활 방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바른 삶을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 이런 생활 방식으로 틱낫한 스님은 여덟 가지 바른 길, 팔정도를 알려준다. 팔정도의 가장 처음은 바로 보기, 정견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정견으로 시작하며, 정견을 통해 세상뿐만 아니라 조상, 후손들과도 이어져 있다는 위대한 연대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함께 존재함'은 깨어 있는 마음으로 의식하고 명상할 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 이슬람교 신자들, 유대인들은 전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는데도 마치 옥수수 씨앗에서 태어난 것을 잊어버린 옥수숫대처럼 행동합니다."

정견, 바르게 보기를 수행하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며 바른 업을 쌓을 수 있다. 또 바른 사명을 가지고 나와 세상에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멈추지 않고 바르게 정진하며 모든 잘못된 견해를 극복하고 두려움, 절망, 분노에서 벗어나는 통찰의 에너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생활 방식은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길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 타인과 잘 소통하고 마음의 치유에 이르는 것, 이것은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행복의 시작이다.

십우도, 참나 찾아 길들여서 대자유 얻는 길

십우도

조광호 역해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 2800원



중국의 선종에서는 본래의 자기 모습, 참된 자기를 소에 비유해 설명했다. 많은 동물 중에 왜 소에 비유했을까? 아마도 소가 농경 사회에서는 인간과 가장 친했고 황소처럼 고집이 세다하더라도 길들이면 순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의 수행과 깨달음에의 과정을 '도망간 소를 데리고 돌아와 길들이는 수행 과정'에 비유해 10단계로 나눠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했다. 그것이 십우도(十牛圖)이다.

십우도는 한 종류가 아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보명의 목우도와 곽암의 십우도이고, 이외에 여러 종류의 십우도가 있다. 송나라 때 청거 선사의 십이목우도, 불국유백선사, 그리고 소대신 말을 그린 십마도(十馬圖), 또 티베트에는 코끼리를 그려 넣은 십상도(十象圖)가 있다. 십우도는 원래 도교의 팔우도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는데, 소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우도(尋牛圖)라고도 한다. 목우도, 십우도, 심우도 등의 명칭이 있으나 여기서는 특별히 구분해 부르지 않을 경우, 십우도로 대표해 부르기로 한다.

보명선사 목우도는 명대 이후에 중국과 한국에 많이 알려졌고, 일본에서는 주로 곽암선사 십우도가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 한국, 일본이나 곽암의 십우도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사찰 벽화에는 주로 팔상도(八相圖)나 십우도가 그려진 곳이 많은데, 십우도의 경우 대개 곽암의 십우도로 보면 옳다. 곽암의 십우도가 가장 많이 애독되는 것은 아마도 곽암 십우도의 그림이나 설명(제목, 序, 頌)이 선 수행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십우도에는 대개 천진난만한 동자와 소가 그려져 있다.

소는 우리들이 찾으려는 '참된 자기' '마음의 소'이고, 이를 선체험을 통해 잡으려는 선 수행자가 동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최근에 나온 책에는 소와 동자의 그림을 희화(戱化)해 마치 만화책 같은 것도 있다. 선이 그야말로 만화가 됐다. 곽암의 십우도에는 열 개의 원으로 된 공간 안에 다음 내용이 그려져 있다.

△소를 찾아 나서(심우(尋牛)) △발자국을 보고(견적(見跡)) △소를 보고(견우(見牛)) △소를 붙잡아(득우(得牛)) △소를 길들이고(목우(牧牛))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기우귀가(騎牛歸家)) △집에 도착해 소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도가망우(到家忘牛)) △사람도 소도 다 잊어버리는 단계에 이르고(인우구망(人牛俱忘)) △본래의 자기, 근본으로 돌아갔다가(반본환원(返本還源)) △시정으로 나와 속인들을 교화는 장면(입전수수)이다.

곽암선사는 대수원정선사 법사로 임제선사로부터 12대째의 법손이라 하나, 생몰년을 비롯해 그 전기는 분명치 않다. 그가 살던 곳이 양산이므로 양산곽암이라고도 불린다. 현존본 십우도에는 자원이란 사람의 총서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곽암이 지은 것은 제목과 송과 도이다. 다음에 서(序)가 있는데, 이는 편찬자 자원의 것이라 한다. 그 다음에 석고이화상과 괴납련 화상의 화송(和頌)이 화(和)와 우(又)로 나뉘어져 나온다. 서(序)는 제목과 그림, 그리고 송(頌)에 붙인 선(禪)수행상의 교훈이 되는 짤막한 글이고, 송(頌)은 그림과 제목에 붙인 원작자 곽암의 송시이다. 곽암의 십우도는 자원, 곽암, 석고이화상, 괴납련화상의 합작품이라 하겠다.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중요시 하는 선종(禪宗)에서 깨달음의 과정을 문자로 표현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도자나 학습자에게는 필요할 것이다. 선시(禪詩)는 심오한 뜻을 짧은 문장으로 함축시키는 만큼 대단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난해한 것이 많다. 그래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또다른 십우도의 작자인 보명은 남조의 승려로 국청보명 선사라고도 불리운다. 태건 14년(582)에 천태산에 들어가 지자대사 제자가 되었다 하니 곽암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다. 보명의 목우도는 열개의 그림과 송으로 돼있다.

곽암의 십우도와 보명의 목우도 번역 · 해설
보명선사, 검은소가 하얗게 변해가는 과정 그려
선의 역사와 근본 의미도 서술해 놓아

보명선사 목우도에서는 검은 소가 길들여 감에 따라 하얀 소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점수적 수행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선승들도 십우도와 관련해 여러 선시를 남겼다. 청허의 기우시, 경허 선사의 십우송, 백봉 거사의 심우십송, 만해 스님의 십우도송이 있고, 또 마음의 수행을 의미해 거소, 호등을 소에 비유해 즐겨 썼다. 고려 보조국사 지눌의 자호가 목우자이고, 경허선사의 호가 성우, 만해 한용운의 집 이름이 심우장(尋牛莊)이다.

〈선종 사부록〉이란 선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4개의 텍스트를 모아 편찬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선종 사부록〉이란 책으로 합쳐진 것보다는 각각이 하나의 독립된 책으로서 널리 유통된다.

이 책은 십우도 공부를 위한 전제로 선의 역사와 근본 뜻을 서술하고, 부록으로 선종의 중요 선지식에 대한 인명록을 첨부했다. 아울러 십우도 및 심우도의 저자와 10단계의 수행과정을 그림과 선시를 중심으로 숨은 뜻과 마음공부의 요체, 어구 풀이 등을 시도했다. 오늘날, 선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 앉기만 하는 좌선 위주의 이른바 '앉은뱅이 선'에서 벗어나 행주좌와 어묵동정(행주좌와 어묵동정) 가운데 활발발하게 살아있는 일상선, 생활선의 지침서로 손색이 없도록 구성했다.

김주일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3칸겹집 목조건물 : 11,000㎜×6,000㎜×4,800㎜ ■가격 : 평당 1,500,000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700 / 다그라스 대들보 180×210
다그라스목재도리 180×180 / 다그라스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황토흙 ALC 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 자재 –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구산업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보살’의 정신 수행 훈련, 목표 등 정리

보살지

안성두 역주 | 세창출판사 펴냄 | 3만원



보살지(菩薩地)는 대승보살의 수행과 훈련, 목표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한 첫 번째 문헌으로서, 4세기 중반에 인도서 편찬된 유식학파의 최초기 작품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보살의 정신 수행의 기초 또는 단체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는 대승불교 보살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사상사에서 매우 획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보살’이 가진 중요성 때문에 이 텍스트는 인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티벳불교서 매우 중요시됐다. 그것은 〈보살지〉가 5세기 초 두 번에 걸쳐 한역됐으며, 최종적으로 현장에 의해 ‘유가사지론’ 일부로서 번역된 사실에 의해서도 방증이 된다.

〈보살지〉는 “모든 보살들의 훈련의 길과 모든 종류의 훈련의 길의 결과를 설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라는 기술이 보여주듯이, 보살지는 “보살의 정신적 단계” 또는 “보살의 정신적 기초”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보살’을 위한 수행의 기초라는 제명이 보여주듯 이 문헌은 아비달마문헌과는 다른, 대승불교에서의 보살이념과 수행법, 종교적, 철학적 지향을 보여주며 이를 종합화하고자 시도한다. 이 성격을 가진 〈보살지〉는 독각(獨覺)의 종성과 발심(發心) 수행(修行) 득과(得果)를 밝히고 있는데 네 유가처로 나누어 설한다.

첫째, 지유가처(持瑜伽處)에서는 종성발심 자타리(自他利- 자신과 타의 이익) 진실의(眞實義) 위신력(威神力) 성숙(成熟) 보리(菩提) 역종성(力種姓) 시(施) 계(戒) 인(忍) 정진(精進) 정려(靜慮) 혜(慧) 섭사(攝事) 공양친근무량(供養親近無量) 보리분(菩提分) 보살공덕(菩薩功德)의 18 품을 세워 널리 보살이 배워야 하는 인과를 설한다. 둘째 지수법유가처(持隨法瑜伽處)는 보살상(菩薩相) 분(分) 증상의락(增上意樂) 주(住)의 4 품(品)을 세워 보살의 방편기수(方便起修- 방편을 일으켜 닦음)의 상(相-모습)과 주위(住位- 머무르는 지위) 등을 밝히고 있다. 이어 셋째의 지구경유가처(持究竟瑜伽處)는 생(生) 섭수(攝受) 지(地) 행(行) 건립(建立)의 5 품을 세워 보살이 구경의 방편으로 행하는 신통과 그 행위 등을 말한다. 마지막 넷째의 지차제유가처(持次第瑜伽處)는 발정등보리심품(發正等菩提心品)을 세워 보살지의 수행을 일으키는 차례를 약설한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런 〈보살지〉를 저자가 처음 접한 것은 한국학대학원 시절 故 이기영 박사로 부터였다고 회고한다. 이 책의 머릿말에서 이기영 박사는 원효사상의 이해를 위해 〈보살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신의 낮은 이해력 때문에 당시엔 통독할 엄두를 못냈다고 술회했다. 이런 저자에게 〈보살지〉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겠다는 계기가 생긴다. 1989년 독일 함부르크대로 유학을 떠난 저자는 인도불교를 공부하면서 주로 〈유가사지론〉을 위시한 초기유식문헌을 중심으로 읽을 기회를 자주 갖게되면서부터이다. 조금씩 인도 유식학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면서 저자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거 저자는 생각했다. 이 책이 번역된다면 한국불교계에 큰 도움이 될 거란 확신이 들었다.



대승보살 수행 체계적 기술한 문헌
5세기 초 두 번에 걸쳐 한역
보살지, 네 유가처로 나누어 설명

저자〈사진〉는 책의 머리말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이 책은 대승이 다시 흥기할 무렵, 무엇이 대승불교도의 열정을 불러 일으켰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1년 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고전명저 번역사업의 지원을 통해 비로소 〈보살지〉를 번역할 기회를 얻었다. 저자는 “이미 산스크리트어로 편찬된 두 권의 편집본이 있기에 이를 저본으로 해서 온전한 우리말 번역을 시도한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 티벳역을 참조해 보완하려 했다. 그리고 가능한 직역을 위해 노력했지만, 구문적인 문제와 의미론적 맥락서 이해의 문제가 야기될 경우 의미를 살리는 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자는 그간의 어려운 점도 털어놓았다. “장문의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보살지〉를 온전히 번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여러 번역상의 오류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은 총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네 유가처의 설명을, 〈보살지〉 해설편으로 밝힌 제 2부에서는 불교사상사에서 〈보살지〉의 위치를 비롯해 〈유가론〉과 〈보살지〉의 구성 등을 수록해 놓았다. 부록으로 쓴 〈보살지〉에 나온 산스크리트 용어의 번역도 이 책을 읽는데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역자인 안성두 교수는 독일 함부르크대학서 인도불교를 공부하고, 유가사지론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했다. 금강대 연구원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인도불교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유식학을 중심으로 한 인도불교와 티벳불교 분야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일본 근대문학의 본질은?… 근대적 자아의 자각과 확립

일본 근대 불교문학사상과 죽음

조기호 지음 | 지식과교양 펴냄 | 2만9천원



일본 근대문학의 본질은 근대적 자아(自我)의 자각과 확립에 있다고 일컬어져 왔다. 나아가 그 본질은 당시의 불교를 비롯한 신토(神道)와 유교, 기독교 등 각 종교의 비합리적 요소를 배제해 나갈 수 있는 역할도 했다. 이 같은 관점서 일본 근대문학사를 살펴보면, 다이쇼 시대에는 여러 종교를 기초로 한 사상적(思想的) 제재(題材)의 문학작품이 부쩍 많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근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문학’의 일면을 논하자면 기독교 문학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서도 불교 쪽의 문학이 ‘근대적인 불교문학’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당시 소위 ‘신란(親鸞) 붐’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같이 일본의 근대 불교문학사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된 일이 많지 않았다. 이런점에서 일본의 불교문학이나 불교사상이 활발했던 다이쇼시대(1912~1926) 중심 문학가인 구라타 햐쿠조(1891~1943, 이하 구라타)의 불교적 문학사상과 ‘죽음’에 관한 연구는 가치있는 일로 여겨진다. 일본 교토소재 붓코대학 대학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일본통인 저자가 구라타의 작품 속에서 ‘죽음’이란 화두이자 키워드에 천착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저자는 특히 그의 희곡인 〈출가와 그 제자〉, 수필평론 〈사랑과 인식의 출발〉 등 두 작품에서 불교문학사상을 고찰하고, 그와 관련된 ‘죽음의식’을 도출했다. 저자인 구라타가 당대에 ‘자살충동’을 느끼면서도 다양한 종교적 체험 특히 정토진종에 입각해 자살을 극복해 나간점은 현대인들도 참고할만 하다. 구라타는 정토진종 가문서 태어나 그 영향을 받았지만 기독교와 이토엔이라는 여타의 종교적 체험을 얻은 후 다시 정토진종이라는 불교로 자신의 종교를 거듭 바꾼 특이한 종교관을 갖고 있다. 정토진종의 출현과 더불어 성립된 ‘신란사상’은 오늘날에도 일본에서는 그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구라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젊은 나이에 구라타는 계속되는 실연을 당하고 염세적 성향을 갖게 된데다 결핵을 앓고 지냈다. 물론 그는 이런 과정속에서 ‘이토엔’을 방문, 창립자 니시다텐코에 크게 감동해 스승을 삼기도 했다. 구라타는 정토가문서 태어난 니시다텐코와 니시다키타로로부터 불교사상의 하나인 ‘신란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구라타는 다른 문학사상가와 비교해볼 때 ‘자살’에 대한 충동 즉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의식이 남달리 강했다. 그것은 일본 근대문학사를 통해 볼 때 적잖은 유명 문학가들이 각각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 자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극명하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는 인명경시풍조가 만연된 가운데 생명(목숨)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적잖았던 당시 상황서 수회에 걸친 ‘자살충동’을 느끼면서도 정토진종이라는 불교 등에서 얻은 사유방식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구라타의 ‘죽음의식’을 이렇게 요약한다. “생명은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을 하면 죽음이 기다리며, 사후에는 왕생할 수 있다”고 말이다.

김주일 기자

한 생각에 맑은 마음 깨우침을 주네

진심직설

보조지눌 지음 | 원순 스님 역해
법공양 펴냄 | 1만2천원



진심(眞心)은 대도!

진심(眞心)은 대도(大道)의 근원이며, 진법(眞法)의 핵심이다. 진심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은 방황하고, 진법의 마음자리를 찾아 헤맨다. 승려들이 참구하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이다. 조계총림 송광사 중흥조 보조지눌(1158-1210)은 ‘중생이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참마음’을 바로 눈앞에 펼쳐 보이기 위해 진심직설을 집필했다. 선사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할’이 되는 깨달음을 일반 불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보조지눌 스님의 진심직설을 역해한 원순 스님〈사진〉도 이같은 맥락으로 진심직설을 펴냈다. 명료한 번역과 해석으로 독자들의 진심을 깨우쳐, 다른 이들의 맑은 마음도 깨우침을 줄 수 있는 불제자로 거듭나길 바라는 원순 스님의 서원이 담겨 있다. ‘참마음이란 무엇인고?’라는 원순 스님의 진심직설 부제목처럼, 진심직설은 참마음을 알아가는 화살이다.

진심(眞心)은 어디에?

진심직설서 말하는 참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다. 중생의 망념 속에 시비 ·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라, 중생의 무명을 없앤, 수행납자의 화두가 타파된 깨달음으로서 참마음을 의미한다. 이 참마음은 보는 인연과 바탕에 따라 미묘한 쓰임새가 존재하는데, 항상 변함없이 있는 것이지만 먹장구름 같은 망념에 눈이 가려진 중생들은 자신의 참마음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이 참마음을 보기 위한 방편으로 보조 스님은 열 가지 수행법을 나열했고, 인연에 맞는 자신의 수행 방편을 찾아 공부하기를 당부했다. 참마음은 행주좌와 모든 삶 속에 있으므로 자신의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불생불멸의 영원한 것으로,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참마음일 뿐이요, 지금 이 자리서 영원할 뿐임을 말해 준다. 이 마음을 알아야 비로소 부처님의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원순 스님의 명확한 진심직설

원순 스님의 진심직설은 ‘참마음을 알아야 바른 믿음’에서부터 ‘망념을 벗어나 참마음을 이루는 수행법’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참마음일 뿐’에 이르기까지 15가지 주제로 ‘참마음’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했다. 또한 정확한 번역과 역주를 달아 독자들이 선사들의 질문과 대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예를 들자면, 보조스님의 마지막장인 ‘참 마음이 가는 곳’에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질문〉 참 마음을 통달치 못한 사람은 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선악을 짓습니다. 선의 인을 짓기 때문에 좋은 세계에 나고 악의 인을 짓기 때문에 나쁜 세계에 들어가는데, 업에 따라 상을 받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아는 사람은 망상이 모두 없어지고 진심에 계합하여 선악의 인이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죽은 뒤에 그 영은 어느 곳에 의탁합니까?(…중략)

규봉은 ‘일체중생이 모두 신령스런 밝은 깨달음의 성을 갖춰 부처와 다름이 없으므로 만일 그 성이 곧 법신임을 깨치면 본래 태어남이 없거든 무슨 의탁할 곳이 있겠는가. 신령스럽게 밝아 어둡지 않고 항상 분명히 알며 어디서 온 곳도 없고 어디로 갈 곳도 없다. 다만 비고 고요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삼고 허망한 생각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말아라.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절로 그 없이 엷매지 못할 것이요, 혹 중음이 있더라도 향하는 곳마다 자유로와서 하늘과 인간에 마음대로 의탁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죽은 뒤에 참 마음이 가는 곳이다. 라고 썼다. 반면 원순 스님은 마지막 장을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참마음일 뿐’이라는 핵심을 짚어줌으로써 진심직설의 핵심을 짚었다.

진심직설 참마음… 부처님 마음
15주제로 ‘참마음’ 논리적 해설

참사람의 향기로운 삶을 살고자

원순스님은 서문에서 “참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팔만대장경을 모두 챙겨 읽어도 읽은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참마음을 환희 깨쳐야 팔만사천 법문을 알고, 비로소 진심직설을 바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건너가는 그날까지, 참사람의 향기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진심직설을 손에서 놓지 말고 옛 선사의 게송을 늘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고 의의를 밝혔다. 원순 스님의 진심직설은 한 생각의 맑은 마음에 깨우침을 전한다.

김주일 기자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 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 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마음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 곧 부처님 가르침

불교로 읽는 古典
유불도 권선서 〈명심보감〉



성해준
동명대 인문사회대학 교수

〈명심보감〉은 1368년에 편찬된 권선서로 유교 · 불교 · 도교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생의 철학과 행동의 규범에서 정치이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상을 담고 있다. 도덕서로 중국 · 한국 · 일본 ·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널리 읽혀진 것은 물론 서양의 선교사들에게도 주목되었다. 그리고 1592년에는 동양의 한문 서적 중에서 최초로 서양어로 번역되어, 스페인 · 독일 · 프랑스 등의 서양인들에게 동양인의 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서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명심보감〉 연구는 각국에서 독자적 방법으로 진행되면서 유불도의 3교합일 사상이 혼재된 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명심보감〉의 불교사상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명심보감〉은 서문 · 발문 외에도 본문의 곳곳에 불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4세기 말에 편찬된 원본 〈명심보감〉의 서문에는 '석존의 가르침을 모아 〈명심보감〉이라 한다' 라고 불교적 요소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명심보감〉이 불교를 중시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으로 〈명심보감〉과 불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일찍이 서문의 일부 내용이 선교사들에 의해 삭제된 스페인 번역본처럼 본문의 불교적 내용도 삭제되었다. 또 유교국가인 조선에서는 불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문자체를 삭제하고 본문의 경우도 불교경전으로부터 인용한 내용을 완전히 삭제한 초략본 〈명심보감〉(抄略本, 원본의 3분의 1의 분량)을 편찬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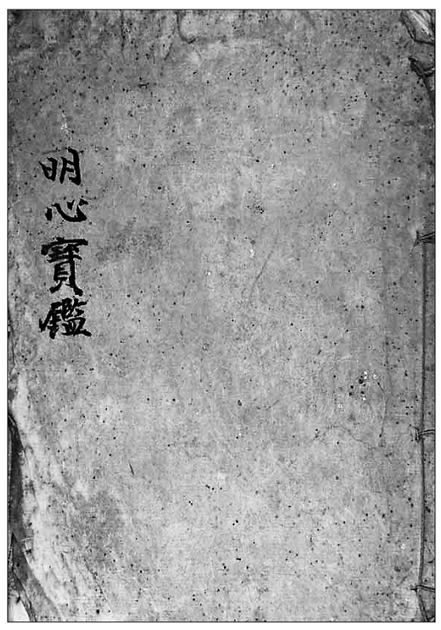
이 초략본이 널리 유통되는 가운데 임진왜란 때 원본조차도 문화재 약탈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즉 불교적 내용이 포함된 원본이 조선에서 자취를 감추다보니 세월의 흐름 속에서 원본의 존재는 완전히 잊혀져버렸다. 그러한 연유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초략본 〈명심보감〉의 판본이 오랫동안 원본으로 둔갑되면서 지금까지 〈명심보감〉과 불교와의 관련이 큰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1454년 간행된 청주본이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소실되고 약 80년 후인 1637년에 간행된 초략본 〈명심보감〉에는 출판 의도나 저자가 명시된 서문 · 발문 등의 기록이 없이 유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판되었다. 그 후에도 1844년(泰仁, 孫基祖)에 간행한 초략본과 1868년 서울 무교동에서 간행된 판본 역시 출판 의도나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문과 발문이 없이 간행되었다.

이와 같이 저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869년에 간행된 인흥서원 판본은 추씨 가문이 자신들의 선조로 고려시대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추적이 〈명심보감〉을 편찬하였다고 저자명에 추적의 이름을 써넣었다. 이후 초략본(抄略本)에서는 '초(抄)' 자를 빼고 완전 원본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여기에 당시 명성이 높은 유학자들의 서문 발문을 붙여서 〈명심보감〉의 유교 교육서 및 추적 편찬설을 확실히 하였다.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1959년 베트남 국빈방문 시, 베트남 공학회로부터 기증받은 〈명심보감〉을 귀국 후 대통령의 명으로 한글 번역판이 편찬되었는데 그 때 편자를 추적으로 명시하면서 〈명심보감〉의 추적 편찬설이 고착하였다. 동시에 유교사상만을 발췌하여 편제한 초략본이 유교서적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명심보감〉의 불교적 내용은 잊혀 지게 된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조선의 청주본을 비롯하여 중국의 명간본 · 청간본, 일본의 화각본에 있는 '불심(佛心) · 번뇌(煩惱) · 계율(戒律) · 참선(參禪) · 인연(因緣) · 무상(無常) · 중생구제(衆生救濟)' 와 같은 불교적 특성이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렸다. 이는 중국 · 일본이 〈명심보감〉과 더불어 다른 권선서인 〈태상감응편〉 · 〈음즐록〉 · 〈공과격〉을 함께 수용한 것, 또 중국 · 일본이 주자학과 양명학을 필요에 따라 동등하게 수용한 것과 달리 조선에서는 주자학만이 존중되면서 중시된 것으로 중요한 차이점이다.

다음에서는 1454년 조선의 청주에서 간행된 원본 〈명심보감〉 서문과 발문에 보이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명심보감〉과 불교사상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청주본〈명심보감〉 서문에 '이런 까닭으로 선현과 이미 풍속에 널리 알려진 여러 책에서 요긴한 말과 석존의 가르침 중에서 좋은 말을 모아서 한 권으로 엮어 명심보감이라고 하였다.(是故集其先輩, 已知通俗諸書之要語, 慈尊訓誨之善言, 以爲一譜, 謂之明心寶鑑)' 는 말이 있다. 곧 '석존의 가르침 중에서' 라는 이 한마디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불교적 내용을 원 편찬자인 중국의 범입본(范立本)이 1393년에 작성한 서문을 비롯하여 본문의 '계선편' · '천명편' · '순명편' · '안분편' · '존심편' · '계성편' · '성심편' · '언어편' 에 '방편(方便)과 선행 · 인과응보 · 지족안분' 등으로 순화돼 실려 있다. 특히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을 찬양하는 원색적인 불교 색을 풍기는 불심 · 작불 · 염불 · 예불 · 불도 · 불경 · 성불 · 간경 · 경전 · 무상 · 인연 · 삼악 · 부생 · 참선 · 번뇌 · 윤회 · 보시 · 계율 · 장경(藏經) · 제전화상 · 도청화상 · 중생제도(衆生濟度) 등의 용어들은 여과 없이 빈번하게 거론된다. 이러한 불교사상이 포함된 내용은 1454년 조선의 '청주본' 을 시작으로 그 후에 간행된 중국의 '명간본' · '청간본' , 일본의 '화각본' 에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명심보감〉 판본에는 아쉽게도 불교적 용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조선시대 중기이후 원본이 자취를 감추고 난 후 간행된 초략본 〈명심보감〉에서 불교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명심보감〉의 유교화를 시도한 결과이다.

이하에서는 〈명심보감〉의 편찬자 '범입본' 이 1393년에 작성한 글로 판단되는, 현존하는 청주본 서문에 보이는 불교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명심보감〉표지.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의미(좌) 옛 서당에서는 〈명심보감〉이 유교서적으로 익혀졌다. 하지만 본래 〈명심보감〉은 유불도를 회통한 권선서 였다(우).

14세기 유·불·도 사상 담아
조선대 유교 외 내용 삭제
'부처님 말씀 중 가려뽑아' 서문
소외된 이웃 배려, 헌신 봉사 강조

먼저 청주본 〈명심보감〉 서두에서 인용한 〈태상감응편〉의 '착한 사람은 선을 말하고, 선을 보고, 선을 행해서 하루에 세 가지 선을 행하나니 삼 년이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리고, 나쁜 사람은 악을 말하고, 악한 것을 보며, 악한 것을 행하여 하루에 세 가지 악을 행하나니 삼 년이면 하늘이 반드시 이에 화를 내린다.(伏覩太上感應篇曰, 故吉人語善視善行善, 一日有三善, 三年天必降之福. 凶人語惡視惡行惡, 一日有三惡, 三年天必降之禍)' 는 인간의 선악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응보가 있다는 응보관으로 유가 · 도가 · 불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상이다. 이중 불가에서의 상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전생(前生) 금생(今生) 내생(來生)의 삼세윤회가 반드시 있다. 이 삼세윤회는 인연업과로 구성된 필연적 연기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고 지은대로 받는 것으로 좋은 씨앗을 뿌려서 잘 경작하면 좋은 수확을 할 것이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수확을 하는 것이다.

불가의 인과법칙에 의한 선인선과 악인악과(善因善果 惡因惡果)는 사바세계의 인과로 세상의 어떤 법칙보다도 엄격하고 오차가 없이 정확하다. 한번 지은 업인(業因)은 곧바로 그 과보를 받지 않더라도 돌고 돌다가 지은 인연이 모여 만날 때 언젠가는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백겁 천겁이 지나더라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여 인연이 만나는 날 과보를 다시 받는다.(雖百千劫, 所作業不亡, 因緣會遇時, 果報還自受). 과보를 받는 시기도 업보에 따라서 빨리 받는 것도 있고 늦게 받는 것이 있는데 현세에 받는 것을 순현보(順現報)라 하고, 내세에 받는 것을 순생보(順生報)라 하고, 그보다 더 나중에 받는 것을 순후보(順後報)라 한다. 즉 자신이 행한 악행의 죄는 언젠가 반드시 받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 인과의 법칙만 잘 이해하고 실천하더라도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서문의 마지막 대목은 불교사상의 기미가 물씬 풍기는 곳으로, '자애 깊은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어 이것의 이름을 〈명심보감〉' 이라고 하였다. 또 "모든 악을 짓지 말며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데 그 뜻을 머물게 하라(諸惡莫作, 衆善奉行, 留於其意)" 라고 하였다.

①자존(慈尊), 즉 "석가의 가르침 중에 좋은 말을 모아서 한 권으로 엮어 '명심보감' 이라고 하였다" 의 석가모니 가르침의 불교를 명확하게 들어내는 것 외에도 ②"〈명심보감(明心寶鑑)〉이라 한다" 의 '명심(明心)' 은 불교에서 즐겨 쓰는 용어인 마음을 밝힌다는 의미이다. 마음이 곧 부처(心卽佛)로 마음을 밝히면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명심보감(明心寶鑑)〉의 '보감(寶鑑)' 은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의미로 불교에서 자기 성찰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특히 불교의 선사(禪師)들이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 이유는 거울은 사물이 다가 오면 비추고 멀어져 가면 비추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도 붙들어두지 않고 또 아무리 추하고 악한 것이라도 밀어내지 않는다. 선악미추에 관계없이 그대로 비추는 거울은 어떤 분별이나 집착함이 없는 불교적 사상을 잘 비유한다. 그리고 ③말미의 모든 악을 짓지 말며,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 이라는 말은 〈감응편〉과〈음즐문〉에 인용되고, '칠불통계(七佛通戒)' 에도 있는 내용으로 불교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칠불통계' 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는 과거 일곱 부처님이 모두 경계한 게송이다. 과거칠불은 ①비바시불 ②시기불 ③비사부불 ④구류손불 ⑤구나함모니불 ⑥가섭불 ⑦석가모니불이다. 따라서 칠불통계게란 이러한 과거 일곱 부처님이 한 분도 빠짐없이 공통으로 금계(禁戒)한 게송이라는 뜻이다.

과거칠불의 공통적인 가르침으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불교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로 흔히 "모든 악은 저지르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곧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라는 게송이다. 이 게송에는 현실적 질서와 윤리를 중시하면서도 생로병사, 즉 죽음의 실존적 한계상황으로부터 우리들 중생을 해탈시켜 구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불교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이미 오래 전에 생활의 실천철학으로 친숙하게 정착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1454년에 청주본 〈명심보감〉이 간행될 당시에 조선의 청주에서 유학교수관 유득화(庾得和)가 기록한 발문을 보자.

"〈명심보감〉이라는 서적은 경전을 널리 상고하고 일상에 요긴한 말을 모아 나누어 20편으로 하였다. 이는 모두가 인륜에 절실한 것이며 일용에 그것이 필요하며 우선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後略) 경태 5년 갑술 11월 초하룻날에 봉직랑 청주유학 교수관 유득화는 삼가 발문을 쓴다.(寶鑑之爲書, 博考經傳, 采적要語, 分爲二十篇. 是皆切於人倫, 日用而其要, 不過先明諸心而已. (後略) 景泰五年甲戌十一月初吉, 奉直卽淸州儒 }, 敎授官, 庾得和, 謹跋.)" 의 '경전을 널리 상고하고 일상에 요긴한 말을 모아 나누어 20편으로 하였다.' 에서 경전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불교 경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①서문에서 편찬자 범입본(范立本)이 석존의 가르침을 모아 〈명심보감〉이라 한다고 했듯이 '명심(明心)' 과 '보감(寶鑑)' 이라는 불교용어와 '선인(善因) · 선과(善果)' 의 불교의 응보관을 기본으로 모든 악을 징계하고 선을 행하는 불교사상을 한마디로 요약 표현한 '제악막작 중선봉행' 의 불교의 가르침과 불교용어를 통해 〈명심보감〉이 불교의 핵심사상을 중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불경과 곧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당시 아직 유교가 국가이념으로 정착되지 못한 시기에 발문의 '경전' 이란 용어와 본문의 '불심 · 작불 · 염불 · 예불 · 불도 · 불경 · 성불 · 경전 · 무상 · 인연 · 참선 · 번뇌 · 윤회 · 보시 · 계율 등의 원색적인 용어로부터 이 서적이 유교와 도교뿐만 아니라 불교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심보감〉의 서문과 발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인간행위의 선악결과에 따른 인과사상의 중요한 요소를 발췌하면서 불교사상의 기본인 모든 악을 짓지 말며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불교의 핵심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환과고독(鰥寡孤獨)한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도우는 넉넉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였을 때, 그 도움을 받은 이웃도 자신을 돌보아 준 따뜻한 사회에 감사하며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화풀이 살풀이 꿈해몽 대사전
화제의 책

꿈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층 심리와 놀라운 예지력! 이런 꿈을 꾸면 이런일이일어 난다.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 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 모든것!

평소에 꾸는 꿈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올바로 해몽하여 바른 인생의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인간의 평균 수명을 75세로 했을 때 그 중 25년은 잠을 자는 시간으로 보내고, 25년 중의 10년은 또 꿈을 꾸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

짧은 인생 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은 간단히 무시해 버리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아깝고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꿈풀이 전문가가 있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그 신비한 꿈의 올바른 해석에 관한 모든 비밀을 이 책을 통하여 속시원히 밝혀 보았다.



■ 金允中 지음 / 신국판 / 644쪽 / 정가 28,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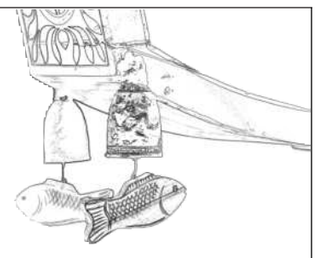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부지런히 자기 맡은 사업에 힘쓰고 벌어들인 재산을
아끼고 잘 보호하며 어질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라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이하, 부산)
010-7311-5335



명리첩경의 저자 -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분
010-4482-4684
010-3054-3345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육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침술, 뜸, 부항, 한약,역학 (명리)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요법)
전문학원. 외국한의사,
침구사 자격시험대비반.
수강생 수시모집
www.macsj.kr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010-3639-8500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김해)
010-6671-5885

기도하며 일 도우실 부전스님, 행자스님 모십니다
011-288-8311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물을 조금
하시는 분, 울산)
010-9986-009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이하,
서울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특수하고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역학 수강생 모집
5-10년씩 배우십니까?
기초에 상관없이 한 번의 수강만으로도 최고의
사주도사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효타비결 (상, 하권) / 신수비결 (12권)
이름대사전의 저자 효타 스님 직강
■ 토,일반 : 토, 일요일 (15-17시) (6개월) 수강료 : 18만원
■ 주 간 반 : 화, 목요일 (15-17시) (6개월) 수강료 : 18만원
■ 개 강 일 : 2015년 5월 16일(토요일) 15시 (단체 사주 감정)
010-7121-9406 / 부산 동래구 명장2동 514-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에니멀 에너지 힐링 세미나
*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반려동물의가벼운 병과 나쁜 버릇을 스스로 치료해주어 마음 고생을 덜으세요. 여기와서 (디바인 하트) 라는 기 에너지를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간 : 오전11시부터 ~ 오후 4시, 교육은 단 하루에 끝납니다
* 교 육 비 : 20만원, 미리 예약필요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 02)720-5682. 010-8392-2557

사단법인 종단 인수하실 분
종단명 : 사단법인 0000조계종
복지사업 병행가능함. (필요시 종단명칭 변경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문의전화 : 070-7717-2276 (영의스님)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퇴마 (빙의) 최면, 심리치유 (개인지도 및 상담)
상처받고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를 풀어드립니다.
퇴마, 빙의,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증, 자신감 향상 등
감정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풀지 못하는 현상들 치유가능.
* 퇴마 배우실 분은 (스님 및 무속인에 한함)
(佛)대한불교조계종 만경사 /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401번길 7
전화 051)757-7925. 010-3156-6414

구성학+현공풍수양택 지역별 무료공개강의 및 개강일
서울지역 무료공개강의 : 5월 26일 화요일 오후1시-4시
대전지역 무료공개강의 : 5월 28일 목요일 오후1시-4시
개 강 일
■ 서울지역 : 6월 2일 화요일 오후 1시 - 5시 (매주 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 대전지역 : 6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 7시 (매주 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강의장소
■ 서울지역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지역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 2층 (지하철 용문역 8번출구에서 1분거리)
010-5116-931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
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 ~~45,000원~~ (희담석 합장주, 염주) → 35,000원
· 크기 : 직경 12mm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니 라.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 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되 어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 본생경 -

사 찰 안 내

▶ 청정지역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각종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1억 8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안내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1,900여평
- 건물 : 법당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15평 세계불교박물관 (5,400여년 전 벼락 맞은 대추나무화석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은행 5억 별도)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도심사찰 양도
- 목조법당과요사채(방사7).산신각.창고
- 토지730㎡.납골터.텃밭.주차장.노천불
- 양도금액 : 5억 6천만(융자2억)
- 원주횡성 5분거리. 최고위치임

010-5369-4154 (주지스님)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시장(부근) 사거리 코너
- 평수 : 약 30평 2층, 도시가스
- 가액: 전세 2,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2,400만원(조절가능)
- 즉시법회

010-4667-5658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 대지 101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화장실 1칸 사무실겸 스님방 욕실 9평
- 비구니 스님 적합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 1억 3천만원

010-9183-065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해남토굴
◎ 부지 : 134평
◎ 목조법당 : 30평
◎ 한옥요사 : 30평
◎ 양도 : 5천만원정

◎ 위치 : 경기
◎ 종교용지 : 22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양도 : 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목포 도심사찰 급 양도
* 2층 편백 법당 60㎡, 황토요사채 90㎡
* 토지 200㎡ 편안한 포교사찰
* 양도가 : 3억2천만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수영구 망미 2동 팔도시장 인근
- 3층 중 2층 약 48평
- 시설 일체 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됨
- 가액:보증금 5백만원 월 44만원 시설비 1천 8백만원

010-3868-7435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 종교부지 1,200평 정도
- 목조 전통 법당 28평
- 요사채 2동(각 30평) 창고 60평
- 지장보살 좌불 노천불 모셔져 있음
- 삼성각 4평

010-9476-9800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 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 40평
- 대웅전1 , 서재 1, 큰방 1, 작은방 1, 주방겸 거실 1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108소불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는 협의 가능

010-8653-321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에서 20분거리
- 바닷가 5분거리 뒷산을 끼고 경관수려
- 별장 및 전원주택지, 채전밭 황토찜질방, 주차 6대
- 임법당 30평, 가건물 20평
- 토지 150평(등기 78평, 국유지 72평)
- 인근 대규모 아파트 개발 중
- 가액 : 1억 7천 300만원
- 법당 및 주방시설 완벽

010-4392-2468

사 찰 안 내

-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옆에는 산이 있어 포교와 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 위치 : 울산광역시
- 대지 149평 법당 20평, 기와단청 요사 17평, 요사 1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010-3811-5466

사찰(급)안내

- 위치: 구미 근교
- 시내와 아주 가까우면서 삼면이 산으로 병풍처럼 감싸있고 사계절 용천수가 흐르고 양쪽계곡에는 가재가 살고 있는 청정수월 기도도량입니다
- 토지 : 2천 700평(법당,요사,임법당)
- 양도가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번지
- 면적: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동남간(25평) 목조, 기와
- 사채: 25평, 방2, 화장실2, 컨1동
- 가액: 융자 3천안고, 2억 2천만원

010-8517-85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2층
- 약 60평, 넓고큰법당, 방3개, 샤워실 넓은공양간, 계단 넓고 원만함
- 내부시설 위치 모두 좋음 (8년간 운영한 포교원)
- 가액 : 1,000만원, 45만원 시설비 2,200만원(조절불가)

010-7337-1727

선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3길 136-1
- 대지 163평, 전답 790평
- 건평 40평 1채(준공5년),
- 황토집 12평 1채(준공1년)
- 원두막1채, 각종 과실 나무와 약초재 배중
- 경치좋고 사찰하실분께 추천
- 가액: 총2억3천만원(조정가능) 1억3천만원(전세도 가능)

010-8591-1076

최고의 명당 터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거창시내 10분거리
- 전, 답 1,300평
- 삼면이 솔 숲, 자연 암반 우물 있음
- 땅이 국도를 접해 있음
- 용도 : 사찰, 요양병원, 복지, 팬션 기타(건축 가능함)
- 가액 : 1억 1천 7백만원(대출 3천만원) 양도가 8천 7백만원

010-3848-2452(거창 연락처)
010-3868-7435(부산 연락처)

포교원 안내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 상권과 교통 요충지
- 평수 38평, 3층 건물에 3층 옥상이용가
- 법당, 주방 모든 집기 고루 갖추어져 있음
- 소임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을 부득이 양도코져 함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시설비 2,700만원 / 월 25만원
-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법회 가능

010-3813-617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은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외 부하장실 등등
- 건물은 총 13동 대형버스주차장, 소형주차장 등
- 가액: 3억 9천만원
- 스님 건강상 문제로

010-4628-5699

사찰 (급) 안내

- 위치 : 김천시 대덕면
- 대지 380평, 건물 2동
- 가동 : 법당40평, 홑구조물 조립식, 스님방1, 해우소1 나동 : 요사채40평, 콘크리트 블럭구조, 넓은거실
- 부방, 화장실, 방大2개, 겨울 따뜻, 여름시원
- 넓은주차장 마당, 텃밭, 연못, 조용하고 깨끗한절
- 비구니 스님들께 아주 적합한 절입니다
- 가액 : 2억 3천(대출5천만 포함) 다소절충가능

017-217-191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부근
- 대지 324평, 법당 34평
- 삼성각 6평(목조)
- 요사채 1, 2층 100평(목조)
- 사용할 수 있는 땅 1,200평
- 가액 : 20억

010-4069-7723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유원지내 대형 분수
- 시내 건너편에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 2채 50평, 방 5개, 창고 등
- 가액: 4억 5천만원

010-2124-36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인법당 20평 요사채 60평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가액 : 2억 6천만원

010-2060-279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 주변에 주택가 밀집지역
- 금정산자락을 등지고 있음
-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거리
- 대지 208평, 건물 146평(2개동)
- 넓은 대웅전법당(45평), 공양간
- 요사채(140평), 참선방(30평), 샤워실2
- 가액 : 9억

010-5645-5577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평산
- 평수 : 60평 [4층 건물중 2층 (법당), 3층(요사채)]
- 불상 및 일체 시설 완비 (시설비 답사후 협의)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010-7159-349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IC 인근 토굴 곤지암IC에서 약 10km
- 대지 147평, 건물 1층-40평 (등기 외 약 10평 추가)
- 2층 20평, 건물은 철골조 조립식 주택
- 소임관계로 절을 비운지 3년이 넘어 부득이 안내
- 찾아 오실 분은 전화주시면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림
- 가액 : 1억 9천만원(절충 가능)

전화 010-2887-5764

사 찰 안 내

- 위치 : 풍기 IC에서 약 15분거리(감천)
- 산사 평수 약 3,500평, 대웅전, 산신각
- 지장전, 요사채, 주택1, 차고1
- 사찰 옆 과수원 1500평을 택지로 조성중 텃밭 약 300평, 소나무숲
- 사찰까지 진입로 포장 되어있음

※경관 최고로 직접방문하면 대만족 할 것임

- 가액 : 3억 5천(절충 가능)

010-5203-1326
010-8829-632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
- 대지: 114평, 건평 240평
- 지하1층, 지상3층(2,3층 법당)
- 문화재급 목불 불상있음
- 가액 : 30억(절충가능)

010-6728-833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솔샘로 263 2층
- 대로변 시장접, 포교편리
- 법당, 방 2실, 주방 등 현재 법회중
- 가액: 보증금 1천만, 월45만원 시설비 5백만원

02)365-3575
010-2230-3575

법당,포교원, 명상, 치유센터 자리안내

- 위치: 안산IC 서울외곽순환도로 바로진입 위치좋은 역세권
- 경기 부천-시흥-안산 복선전철 2015년 6월 개통
- 유동인구많고 교통편리,안산시 본오동 대로변 위치
- 전철,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 상가형성 잘 되어있고, 종교행사 민원 없음
- 4층독채, 실평수50평, 법당, 주거겸용 풀 리모델링 (상담실겸, 기타옵션, 다실접객용도 최적)
- 가액: 합 5,000만원(보증금 1000/95 시설 4,000만원)
- 충남대전에 사찰불사관계로 부득이하게 내놓게 되었음

010-5913-7239/010-3145-8626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개(큰방1, 작은방2 중 1개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조절가능)

직거래 010-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2.103㎡, 건평(법당,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외 25평은 기초공사 완료되어 있음
- 석등 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현장 답사 후 협의

010-7582-009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로 11
- 아담한 법당, 포교활동 최적지
- 평수 : 30평 3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7740-6004

별장 토굴 안내 및 전세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구시내 20분, 고속도로 IC 3분
- 대지 및 임야 830평
- 멋진 별장주택 40평(실 45평)
- 심야 전기 보일러
- 야산 밑 정남향 조용하고 전망 좋음
- 가액 : 양도 2억 5천만원 / 전세 8천5백만원

주인직접 : 010-3531-55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인법당 20평 요사채 60평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가액 : 2억 6천만원

010-2060-279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 주변에 주택가 밀집지역
- 금정산자락을 등지고 있음
-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거리
- 대지 208평, 건물 146평(2개동)
- 넓은 대웅전법당(45평), 공양간
- 요사채(140평), 참선방(30평), 샤워실2
- 가액 : 9억

010-5645-5577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평산
- 평수 : 60평 [4층 건물중 2층 (법당), 3층(요사채)]
- 불상 및 일체 시설 완비 (시설비 답사후 협의)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010-7159-349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IC 인근 토굴 곤지암IC에서 약 10km
- 대지 147평, 건물 1층-40평 (등기 외 약 10평 추가)
- 2층 20평, 건물은 철골조 조립식 주택
- 소임관계로 절을 비운지 3년이 넘어 부득이 안내
- 찾아 오실 분은 전화주시면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림
- 가액 : 1억 9천만원(절충 가능)

전화 010-2887-5764

사 찰 안 내

- 위치 : 풍기 IC에서 약 15분거리(감천)
- 산사 평수 약 3,500평, 대웅전, 산신각
- 지장전, 요사채, 주택1, 차고1
- 사찰 옆 과수원 1500평을 택지로 조성중 텃밭 약 300평, 소나무숲
- 사찰까지 진입로 포장 되어있음

※경관 최고로 직접방문하면 대만족 할 것임

- 가액 : 3억 5천(절충 가능)

010-5203-1326
010-8829-6325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남안동 IC 10분거리
- 법당 좌우로 실개천이 흐르는 합수머리
- 종교용지 대지 약 590평
- 법당 15평, 목조 기와 단청
- 산신각1동, 요사채 2동 1동에 2층 황토방 원룸
- 법당, 집기, 공양간, 일체집기
- 가액: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까지 7분거리
- 대지 505평 등기 필
- 요사채 38평, 후면 창고 15평
- 요사채 위 법당 20평 2층
- 옥외화장실 6평 내 창고재중 6층석탑(제주석)
- 가액: 현평당 50만원
- 건물 전체 5,000만원 (건물양호 · 절충가능)

010-7517-7037

경내로 청정수가 흐르는 조용한 수행 도량임

- 위치 : 포항시 북구 죽장면
- 대지: 1408(약 425.92평)
- 전 : 83㎡(약 25.1평)
- 임야 : 103㎡ (약 75.02평) (주차장 완비)
- 가액: 3억 6000만원 (금액조정가능)

010-5479-5779(공산)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성당동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소불
- 영가단, 종, 음향시설, 냉 난방기, 조명 등 집기일체
- 2014년 11월 신조성,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2차선 대로변 2층,
- 가액: 보 300만 월35만, 시설비 1,200만원 합 1천 5백만원, 절충 없음, 방없음

053-651-1514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로 11
- 아담한 법당, 포교활동 최적지
- 평수 : 30평 3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7740-600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남안동 IC 10분거리
- 법당 좌우로 실개천이 흐르는 합수머리
- 종교용지 대지 약 590평
- 법당 15평, 목조 기와 단청
- 산신각1동, 요사채 2동 1동에 2층 황토방 원룸
- 법당, 집기, 공양간, 일체집기
- 가액: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까지 7분거리
- 대지 505평 등기 필
- 요사채 38평, 후면 창고 15평
- 요사채 위 법당 20평 2층
- 옥외화장실 6평 내 창고재중 6층석탑(제주석)
- 가액: 현평당 50만원
- 건물 전체 5,000만원 (건물양호 · 절충가능)

010-7517-7037

경내로 청정수가 흐르는 조용한 수행 도량임

- 위치 : 포항시 북구 죽장면
- 대지: 1408(약 425.92평)
- 전 : 83㎡(약 25.1평)
- 임야 : 103㎡ (약 75.02평) (주차장 완비)
- 가액: 3억 6000만원 (금액조정가능)

010-5479-5779(공산)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성당동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소불
- 영가단, 종, 음향시설, 냉 난방기, 조명 등 집기일체
- 2014년 11월 신조성,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2차선 대로변 2층,
- 가액: 보 300만 월35만, 시설비 1,200만원 합 1천 5백만원, 절충 없음, 방없음

053-651-1514

포교원안내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 5층건물 중 2층, 약 65평
- 법당, 산신각 방4, 최고시설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401-4058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영암 월출산
- 월출산 자락 계곡있고 경관좋음
- 대웅전 산신각, 요사1동, 공양간 1
- 시내마트 차로 5분거리
- 가액 : 전세 1천 오백만원

※ 단 비구니 스님 한함

010-4526-9588

목조건물 공사 안내

- 칠성각, 산신각, 종각, 독성각 건립하실분은 성심 성의로 저렴하게 공사해 드리겠습니다.
- 목공기술 자격증 소지하고 있습니다.
- 공사경력
· 제10교구 경산 천년고찰 경흥사 대웅전, 요사채 등 공사하였고 전국에 사찰 향교등 목조건립 공사 많이 하였습니다. 경흥사 신도입니다.

연락처 : 011-507-5181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영광군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산신각 6평, 창고 6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235-1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5억 7천만원 (대출 3억 안고 양도금액 2억 7천)

010-5019-538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조암동 아래전단 인근
- 대지 540평, 건평 100평
- 본채, 법당, 산신각 건물 양호암
- 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동남향
-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 3억(조정가능)

010-5464-65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매향리
- 팔공산 뒤자락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토굴(절)
- 대지 약600평
- 건평 30평
- 가액 : 9천만원

053-986-10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화(Anger)-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틱낫한 스님(승려 · 평화운동가)

〈6〉 화 알아차리기

"어머니가 아기 돌보듯 '화'를 돌봐주세요"

화를 참으면 전쟁도 막을 수 있다

내가 다섯 살짜리 소녀의 교사라고 가정해보자. 소녀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왔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을 험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다. 아이는 교사의 말을 잘 들을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소녀가 어머니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어머니와의 사이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말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소녀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둘이서 힘을 합해서 어머니를 도와보자고 말할 수 있다. 어머니가 화를 내고 거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가르쳐줄 수도 있다. 회피하기만 하면 사태가 더욱 나빠진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해주어야 한다. 먼저 소녀를 돕는 일이 시급하다. 소녀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면 어머니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녀의 교사로서 나는 또 소녀의 어머니와도 대화를 해야 한다. 연민의 정과 통찰을 갖고 있으면 나는 소녀의 어머니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어머니는 그르고 소녀는 옳다는 판단만을 내리게 된다. 그리하여 딸을 학대하는 어머니의 행위를 비난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딸에게 저지르는 폭력에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다른 무엇을 해야 한다. 연민의 정과 통찰로, 학대받는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부모를 위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아이의 부모를 돕지 못하면 아이까지 도울 수가 없게 된다. 아이를 희생자로 보게 될 것이고, 아이에게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진정으로 돕고 싶으면 그 부모를 도와야 한다. 부모를 돕지 못하면 아이까지도 도울 수가 없다. 부모를 돕는 것이 곧 아이를 돕는 것이다.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무지로 인한 폭력과 분노가 가득하고, 그래서 아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부모에게 연민을 가져야 한다. 고통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비행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한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통찰을 갖고 있다. 그들은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회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치 의사처럼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들의 분노와 폭력의 뿌리가 가정에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 폭력의 뿌리는 사회의 구조와 소비행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곧 사람이다. 정부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아들이고 딸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은 제각기 가정의 폭력을 그 몸 안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수상은 먼저 자신의 분노와 좌절과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젊은 세대의 폭력과 분노와 실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또 그의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 시민으로서, 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행동을 해야 하며, 그 행동의 토대는 다름 아닌 이해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분노와 폭력의 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깊이 성찰한다면, 우리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단지 그들을 가두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의 전임 수상 죠스팽이 했던 말이다. 그와 그의 정부는 나름의 통찰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정부를 도와야 한다. 우리는 그 같은 통찰이 더욱 심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자와 부모와 예술가와 작가 모두가 제각기 정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통찰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집권당이 아니라 반대당에 소속된 사람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 그들이 집권당을 돕는 것은 곧 국가를 돕는 것이다. 그들이 도와야 할 대상은 국가이지 집권당이 아니다. 만약 현직 프랑스 수상이 프랑스 젊은이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지금 갖고 있다면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곧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그것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 정당도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 다른 정당에서 어려움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치가들은 나와 남이 별개가 아니라는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모든 정치적 제휴는 서로간의 이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붕당 정치가 아니라 참된 지혜의 정치다. 그것이 인간적인 정치이고, 권력을 얻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사회의 복지를 이루고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정치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항상 의식하라

우리의 몸 안에는 갖가지 독소가 들어 있다. 그리고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그 독소들이 특정한 곳에 쌓이게 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이 독소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마사지는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혈액순환이 원활할 때는 신장과 간과 폐에 영양이 잘 공급되어서 독소들을 밖으로 내몰 수 있다. 그러므로 혈액순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물을 많이 마시고 심호흡을 자주 하면 피부와 폐와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독소들이 잘 배출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장벽도 말하자면 일종의 독이다. 그 독을 감싸안아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각을 실천해야 한다. 자각의 에너지로 고통과 슬픔을 감싸안는 것은 곧 우리 몸의 아픈 곳을 마사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몸이 병들게 되듯이, 정신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병이 들게 된다. 자각은 우리의 정신이 고통의 장벽들을 넘어서 순조롭게 순환하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다.

자각은 화나 절망과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각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각은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히 깨닫는 능력이다. 그리고 어린 동생을 품에 안고 달래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행동이다.

> "마음 속 고통 · 슬픔은 일종의 독
> 자각 실천으로 독소 변화시켜야
> 어린 동생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 큰형과 같은 역할 하는 것이 자각"

아기가 울 때마다 화가 나서 마구 때리는 어머니가 있다고 가정 해보자. 그 어머니는 자기와 아기가 한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기를 보살펴야 할 뿐, 맞서 싸우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화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애정도 있다. 명상은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명상은 무엇과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아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나무를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연꽃을 피워내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돌 위에 연꽃이 피어나게 할 수는 없다. 연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진흙이 있어야 한다.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의 장벽이나 올가미를 거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선과 악이 맞서 싸우는 전쟁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난과 두려움, 화와 시기를 더없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어루만져주어야 한다.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당장 의식적인 호흡을 실천해야 한다.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화가 있다는 것을 안다. 숨을 내쉴 때 나는 그 화를 잘 보살핀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화를 돌봐야 한다. "숨을 들이쉴 때 나는 지금 내 아기가 울고 있다는 걸 안다. 숨을 내쉴 때 나는 내 아기를 잘 보살핀다." 이것이 바로 애정과 연민을 실천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애정으로 보살피는 방법을 모르고서 어떻게 타인을 애정으로 돌볼 수 있을 것인가?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는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자각의 에너지가 생성되게 해야 한다. 마음속에 차올라 있는 화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감싸안아야 한다. 그럴 때는 화가 한동안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가 있어서 화를 보살피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자각의 에너지는 부처의 에너지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의식적으로 화를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는 부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셈이 된다. 거기에는 한 점 의심의 여지도 없다. 부처가 넓은 자비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화를 감싸안고 있는 것이다.

화해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채식주의자인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괴짜거나 입맛이 아주 특이해서가 아니라 나름의 자각에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그가 고기를 먹지 않는 까닭은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걸 몹시 못마땅해 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다. 젊은이는 채식주의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고기를 먹는다는 게 그에게는 너무도 끔찍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기를 억지로 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의 긴장이 지속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썼다.

어느 날 그는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왔다. 동물을 도살하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그는 아버지와 다른 가족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었다. 동물이 잔혹하게 도살되는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도 마음 아파했고, 비디오를 보고 나자 더 이상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렸다. 젊은이는 현명한 방법을 통해 아버지로 하여금 어떤 통찰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대신에, 자애와 지혜로 아버지를 설득한 것이다. 그는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연민의 정이 살아나게 하여 그들도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해준 것이다. 그 다큐멘터리를 가족에게 보여준 것은 매우 재치있는 방법이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방법이었다. 그처럼 재치있는 방법을 쓰면 우리는 반드시 커다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개인으로서 어떤 통찰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통찰이 연민의 정을 낳고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낳는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다. 다른 사람들도 그 통찰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라도 우리의 통찰을 그들에게 일깨워줘야 한다. 그러나 그 통찰을 남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어떤 아이디어라면 남에게 강요해서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겠지만, 통찰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통찰은 아이디어와는 다른 것이다. 자신의 통찰을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똑같은 통찰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체험에 의해서 그 통찰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자면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이 수련했던 것을 실천해야 한다.

이 글은 〈화(Anger)-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명진출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져요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겠어요

I will avoid things that make me feel ashamed.

1894년, 프랑스군 장교인 유태인 드레퓌스(Dreyfus)는 적국인 독일에 군비밀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드레퓌스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태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 때문에 누명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레퓌스는 군법재판에 넘겨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15개월이 지났을 무렵 프랑스군 정보국의 피카르(Georges Picquart) 중령은 드레퓌스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독일군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글씨체가 다른 사람의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프랑스군은 수사의 잘못을 인정하면 체면이 상한다며 덮어두라고 했습니다. 피카르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회유와 협박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이었던 피카르는 드레퓌스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도 둘로 갈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과 나라의 위신이 있으니 재판을 다시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때 소설가인 에밀 졸라(Emile Zola, 1840~1902년)가 나섰습니다. 에밀 졸라는 1898년 1월 13일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제 의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에밀 졸라의 글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군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구독을 끊겠다고 신문사에 압력을 넣었고, 반대로 학생, 교수, 예술가 등 지식인들은 에밀 졸라를 지지했습니다. 에밀 졸라는 군법회의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이웃 영국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졌습니다. 피카르와 에밀졸라 같은 사람들의 양심 있는 사람들의 싸움 덕에 진짜 범인이 드러났고 드레퓌스는 무죄를 입증 받았습니다.

드레퓌스 사건은 진실에 눈감지 않은 지식인의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피카르, 에밀 졸라, 그리고 많은 프랑스 지식인들은 사건의 내용을 알고 가만히 있기에는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드레퓌스를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이처럼 옳고 그름을 일깨우는 양심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듭니다. 우리도 언제나 양심의 불을 밝히고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 에밀 졸라는 왜 자기와 관계없는 드레퓌스의 일에 나섰을까요?
* 여러분은 최근 양심을 저버린 일이 있나요? (어떤 일인가요?)

내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겠어요

I will do the things I have to do with a joyful heart.

그림책 작가인 모니카 페트(Monika Feth, 1951~)의 책 중에 〈행복한 청소부〉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독일에서 거리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입니다. 유명한 음악가와 작가들의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바흐 거리, 베토벤 거리, 하이든 거리, 모차르트 거리, 괴테 거리 등등.

아저씨는 자기 직업을 좋아했고 거리와 표지판을 사랑했지만 바흐나 베토벤이나 하이든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자기가 닦고 있는 표지판에 적힌 사람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공부했고 음악을 찾아 들었고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표지판의 주인공들과 친구가 된 아저씨는 청소를 하면서 시도 읊고 휘파람도 불고 가곡도 불렀습니다.

표지판을 닦으면서 이름을 어루만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소식을 내보냈고 아저씨는 금세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연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저씨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며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저씨는 행복한 청소부로 사는 일이 가장 좋았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 기분도 나쁘고 결과도 좋을 리 없습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 할 때 이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 보기 바랍니다.

* 청소부 아저씨는 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을까요?
*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마지못해서 한 적이 있나요?
* 일을 즐겁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내 일을 스스로 하겠어요

I will ask for help only after
I try my best to do it on my own.

로마 제국의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탈리아. 우리가 좋아하는 피자, 스파게티, 축구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하나는 이탈리아가 세계 최대의 마마보이 국가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남자들은 다른 유럽 국가의 남자들과 달리 어머니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는 한 호텔이 마마보이 대회를 열었고, 이탈리아의 정치인은 마마보이 규제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마보이뿐 아니라 요즘은 자녀 주위를 돌며 시시콜콜 간섭하는 헬리콥터 부모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미국의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헬리콥터 부모는 70퍼센트 가까이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우리나라도 헬리콥터 부모가 극성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뿐 아니라 대학생인 자녀까지 감싸고돕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 결혼한 자녀의 일까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하는 부모가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마마보이나 헬리콥터 부모가 생겨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립심을 키워주어서 스스로 인생을 살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어긋난 사랑입니다. 독립심이 없는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독립심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말합니다. 마마보이나 헬리콥터 부모의 예에서도 보듯이 독립심은 부모님의 태도와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탓만 하기보다 우리도 한번쯤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조금만 복잡한 문제가 닥치면 늘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기대려고 하거나, 자기 일을 해 내지 못해서 부모님께 믿음을 못 준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의 과보호나 지나친 간섭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때 사라질 것입니다.

* 부모님은 여러분의 어떤 행동에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하시나요?
* 부모님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은 일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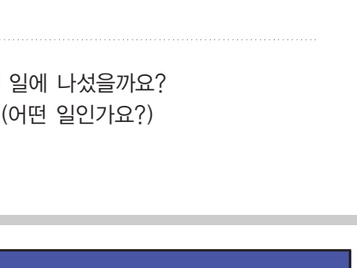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 급 과 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불자 세상보기

가정주부들이 도박의 유혹에 빠졌다니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가정의 달이라는 5월에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불륜, 이혼 등이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더니 최근에는 평범한 주부들의 도박중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소식이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상식은 이제 그야말로 진부한 말이 되고 말았다는 느낌이다. 남편의 무관심과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손을 벗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자녀들의 낯 설은 모습이 주부들을 외롭고 우울하게 만든다. 그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어울리는 횟수가 늘다보면 친목의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도박을 찾게 된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고백이란다. 처음엔 고립감과 허전한 마음에 심심풀이로 시작한 화투놀이가 급기야 자녀들의 방치와 가정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당사자가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쯤 되고 보면 가정주부들의 도박중독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말았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종종 연예인들의 도박사건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가정주부들의 일탈행위가 이처럼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다. 도박의 종류가 수없이 많다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충청도의 어느 도시에서는 산에 천막을 쳐놓고 도박판을 운영했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현장에서 단속된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평범한 가정주부들이었다는 전언이고 보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모양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도박에서 돈을 딴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박의 속성상 그리고 인간의 속성상 반드시 돈을 잃고 패가망신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어쩌다 돈을 따게 되면 다음에는 더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고 또 잃으면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더욱 도박에 매달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그 결말은 말하나 마나 뻔한 일이고.

도박중독은 마약중독 이상으로 치유하기 힘든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근대소설 속에서 남편이 자기 마누라를 친구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기 딸을 나이 많은 영감에게 팔아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서글픈 장면도 목격하지 않았던가. 이는 작가의 상상력이 낳은 순수허구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노름하는 놈은 손목을 잘라도 한다' 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ㅇㅇㅇ은 해도 절대로 노름만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도박은 그렇게 무서운 사회적 질병이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실제로 집안 형님 한 분도 도박으로 돈 잃고 직장 잃은 뒤 삶의 무대에서 쓸쓸하게 퇴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그에게 주변의 어느 누구도 동정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그동안 돈 빌려달라는 요구에 너무나 시달렸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도박중독자들이 도박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주부들이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가 가정불화 등 가정 안의 문제가 주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정의 뿌리인 주부들의 도박장 출입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의 환기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원했던 가족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가족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아내와 엄마를 가정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닐까. 어제 밤에는 늦게 들어온 주제에 뜬금없이 같이 사는 보살에게 요새 낮에 뭐하고 지내느냐고 물었더니, 한심하다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신병훈련소에 가있는 아들놈에게 인터넷 편지도 쓰고 문화센터에 가서 옷 만드는 법도 배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줄 알면서 난데없이 무슨 의처증적인 질문? 이라는 심드렁한 반응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밥 좀 줄 수 없느냐고, 늘 하던 요구사항을 똑같이 반복했다. 언감생심 남의 가정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어느 날 갑자기 마눌님이 그 자식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쌓인 불만도 해소할 겸 스크린 경마장을 들락거리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에 문득 가족의 소중함을 재발견해야 할 사람이 비단 필자 한 사람만은 아닐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동국대 새 총장에 바란다

동국대가 총장 선출을 계기로 보직인사 등 후속 안정화 작업에 들어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등 위기 상황에서 이제는 불자들의 힘을 학교발전에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교수와 학생 등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건학이념 구현 위해 힘 모을 때"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

제18대 동국대 총장 선출을 계기로 교내외 안팎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학교 안정화를 비롯해 각종 발전사항 등 그동안 동국대가 불자들에게 받아온 기대를 충족시키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건학이념에 맞는 학교 운영일 것이다.

동국대의 건학이념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중 첫 번째가 바로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게 하는 것이다. 서로를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구현을 위해서는 인연을 중시여기고 모든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동국인들이, 불자들이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장 먼저 역사의식은 동국대가 불교계의 십시일반의 힘으로 세워진 학교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동국대가 올해로 109주년을 맞이 했다. 이 과정에서는 25개 본사의 스님들이 근검절약해 모으고 모은 재원이 투입됐다. 먼저 동국대 구성원들은 불교계와 동국대가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불자들도 불교계 선각자들이 세운 동국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아직 학교운영 전반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남아있다. 첫째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해야 한다. 둘째는 서로 양보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 것이 상생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불자라면 그 무엇보다 자비의 정신으로 상생해야 한다. 새로운 총장을 중심으로 학교가 어떻게 하면 발전 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역사의식이다. 학교발전을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불교인재를 배출하고 수많은 현대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학교로 다시금 돌아가야 할 것이다.

"다시금 불교학 발전을 기대"



서정원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회장

이번 동국대 총장은 29년만에 스님 총장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수십년 동안 불교학을 연마한 불교학 전문가인 스님이 총장이 되셨기에 그에 맞는 불교학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중 불교학의 터전인 불교대학 발전이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불교대학은 수석대학임에도 많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불교대학 선배들은 아마 현재 불교대학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오래전 학교의 중심부인 명진관 시절부터 예술대학 사이의 문화관 시절, 그리고 도서관이 있는 현재 만해관까지 단과대 건물 하나 없이 옮겨다닌 것이 바로 불교대학의 현실이었다. 또한 교원 충원 등의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런 와중에 꿋꿋이 불교학 발전에 매진한 것이 바로 불교대학이었다.

지난 2014년 108주년기념관 건립에서는 불교학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불교학 발전을 위한 비전이 섞여 있어 기대를 모았다. 불교계 스님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기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에 불교학도의 한명으로서 가슴 벅참을 느꼈다. 하지만 학교내 사태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감이 있었다.

새로운 총장 선출을 계기로 다시금 108주년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불교학 진흥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더군다나 학자 출신이면서도 불교학에 정통한 스님이 총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크다. 많은 불자분들도 이번 학교의 새로운 모습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사람이 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명의 불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社說

동국대 새 총장 보광 스님의 '一心同行'

"우리는 오늘부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일심동행의 바탕위에 대학다운 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괄목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국대 신임 총장 보광 스님의 선출 이후 내놓은 일성(一聲)이다. 5월 2일 동국대 이사회는 동국대 총장으로 보광 스님을 선출했다. 스님의 동국대 총장 선출은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이후 29년만이다.

보광 스님의 향후 계획은 선출 이후 발표한 소회에서 잘 드러난다. 가장 큰 기조가 바로 '일심동행(一心同行)' 이다. 스님은 "구성원을 존중하고, 화합을 이루어, 구성원들의 도덕적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반듯한 총장이 되겠다"며 "대학은 본질적으로 이윤추구기업이 아닌 인재육성교육기관인 만큼 불교이념에 바탕을 둔 최고 지성과 인품을 갖춘 인재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조직으로 바뀐 대학구조를 교육기관에 적합한 대학형 조직으로 바꾸고 △동국대 의료원 정상화 및 발전 △108주년 기념관 건립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대응 등을 준비해 나갈 것을 밝혔다.

보광 스님의 행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정각원 개혁이다. 정각원이 학내 불교신행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각원장에 비구니 해주 스님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불교대학 발전을 막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불교대학발전위원회와 불교대학교원초빙위원회 등 대학발전에 저해되는 기구들의 개편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보광 스님 체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그간 불거졌던 학내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봉합해야한다. 현재에도 고공농성이 진행 중이고 학생들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광 스님의 선출 직후 밝힌 기조가 '일심동행' 인 만큼 대승적 자세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문제점을 함께 토론하고 공의를 모아야 한다.

이주민 봉사자들의 '어르신 수요공양방'

(사)꿈을이루는사람들이 운영하는 '어르신 수요공양방(이하 수요공양방)' 이 5월 6일 100회를 맞았다. 2012년 문을 연 수요공양방은 매주 수요일 경북 구미 인근의 어르신들을 초대해 이주민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소규모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신행단체를 비롯해 각 사찰등에서 어르신들을 초청해 공양을 대접하는 곳은 많다. 하지만 수요공양방은 좀 특별하다. 이주민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매주 마련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표인 진오 스님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이주민들이 지역 사회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스님은 고민했다. 해결책을 찾다가 스님은 이주민들이 어르신들을 직접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역발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자는게 스님의 생각이었다. 그 예상은 적중했다. 물론 그들이 한국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무리인 탓에 배식과 뒷정리 정도의 봉사만 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주민들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주민들은 그동안 소외계층으로 여겨져 주로 도움을 받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사)꿈을이루는사람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들도 누군가를 위해 힘이 돼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므로서 그들도 피부색과 국적이 다른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같은 친근한 존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문화가정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사)꿈을이루는 사람들은 좋은 본보기를 제시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들에게 존재감을 심어주고 그것이 지역민들과 동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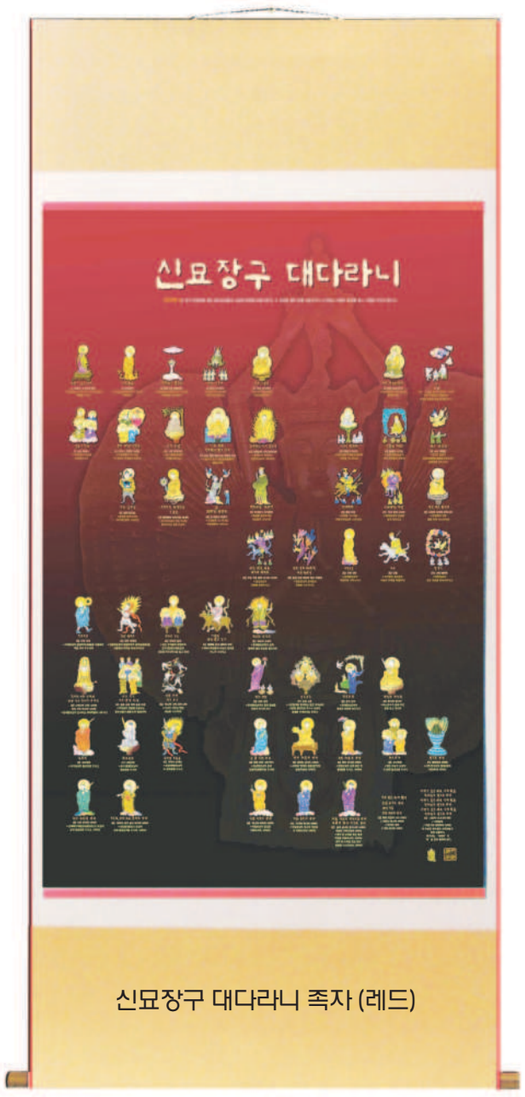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부처님오신날
최고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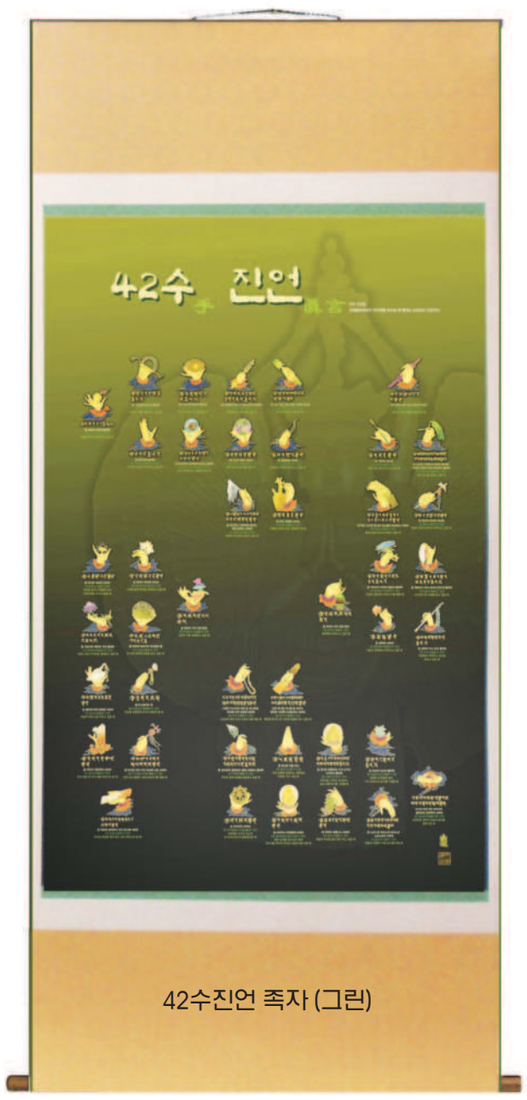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순례가 시작되는곳
www.ajetour.co.kr
SINCE1999
아제여행사
☎ 02)730-4008
YouTube blog 다음카페

구광국대표 010-3048-4008 구경모이사 010-2747-0908
지역별 담당 직통 전화 - 지역별 전문 상담가와 상담하세요!
- 괌/사이판/필리핀 임천지부장 070-5030-6229
- 네팔/인도 김남규팀장 070-5030-6233
- 부탄항공/항공 정진화대리 070-5030-6239
- 오대산/면산/태항산/태국 김하정팀장 070-5030-6234
- 부탄/부탄항공 김다영계장 070-5030-6237
- 구화산/황산/일본/백두산 장윤희팀장 070-5030-6232
- 미얀마/라오스 허은주계장 070-5030-9600
- 베·캄/아미산/동티벳 유나라주임 070-5030-6231
- 유럽 이석준주임 070-5030-6230
- 대만/중남미 정혜수주임 070-5030-6238
- 호주/스리랑카/몰디브 이정효주임 070-5030-4008

出 : 5월19일 6월22일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아미산,낙산대불

出 :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덴-테를지

出 : 9월3일 대만 공승제 5일
중태선사,불광산사,자제공덕회

사회 참여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흔히 한국불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사안 중 하나는 ‘사회 참여’이다. 사회 참여 부문에서 불교계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의 근대부터 현대까지 선각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회 참여 운동이 진행돼 왔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불교계의 사회참여는 항일운동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투쟁전선에는 전 민족이 계급과 성별을 떠나 동참했고, 불교계도 일임을 담당했다. 만해 스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국의 독립을 외쳤으며, 용성스님은 산업 장려 등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 했고, 운허스님은 교육사업을 통해 조선독립의 기반을 다졌다.



2003년 5월 새만금 갯벌 간척 반대 3보 1배를 마친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가 서로를 안고 오열하고 있다.



2006년 1월 동국대 일산병원에 입원한 지율 스님. 초월적 단식 투쟁을 통해 천성산 생명붙이들을 살리고자 했던 스님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2003년 금정산, 천성산 고속도로 반대 시위. 불교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사업은 강행됐다.



지율 스님이 도롱뇽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민중불교’ 씨를 뿌리다

광복 이후에도 불교계 사회참여는 지속됐다. 1945년 12월 불교청년당이 결성돼 교도제 실시를 요구했으며, 조선불교청년동맹은 삼일당(三一黨)을 결성해 전재동포(戰災同胞) 구제와 정치활동을 진행했다.

1946년 1월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전국 승려대회가 소집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학교를 인수해 교육사업을 펼치는 등 해방정국에 참여하고자 하는 불교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시대였다.

하지만, 불교계는 1954년 이승만 前 대통령의 ‘정화유시’로 촉발되는 정화운동은 잠시 대중과 함께하는 ‘사회 참여’라는 큰 물줄기에서 내려온다.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내부 정화가 먼저였기 때문이다.

1962년 통합종단으로 조계종이 출범하게 됐으나, ‘비구-대처 대립’이라는 그간의 모순을 그대로 안고 있는 설정이었다. 승가가 정화운동에 매진하고 있을 당시 그나마 독재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것은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학생들이었다. 실제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1960년 4.19혁명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동국대 학생들이었다.

4.19혁명에 참가한 동국대 학생들은 현수막을 앞세우고 경무대로 달려가 ‘이승만 독재 정권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했다.

하지만, 4.19혁명을 제외하고는 1960~70년대의 불교계는 어용과 참여 부문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특히 사찰령 유습 · 불교 재산관리법 등장 등과 같이 정권에 예속되는 상황이 자주 보여졌고 반공 이데올리기와 맞물리면서 부각된 ‘호국불교’는 불교를 어용으로 굳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

실제 당시 불교계는 박정희의 삼선개헌 ‘날치기 통과’가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북괴규탄집회나 반공궐기대회 등과 같은 대형 반공행사도 자주 열렸다. 심지어는 1975년 12월 17일 조계사에서는 1만5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호국승군단’ 발족식이 열리기도 했다.

1970년대 초부터 민주화대열의 전면에서 함께한 스님은 법정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개신교계의 함석헌 선생 등 민주 인사와 더불어 박정희 정권에 맞선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양심이었다. 법정 스님은 다른 종교인, 지식인들과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불교계의 자성도 일어나게 된다.

또한 불교계 학생들과 청년들은 ‘민중불교’ 담론의 싹을 틔우며 암울한 시대의 폭거에 항거했다.

민중불교운동의 1세대라고 불리며 80년대 불교민주화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故 여익구 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출감한 후, 1975년 3월 ‘민중불교회’를 최연 · 전재성(현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 고준환 · 황석영 · 고은 등과 함께 결성했다. 하지만, 조직완성 과정에 있던 ‘민중불교회’는 그해 8월 여익구와 전재성이 구속되면서 막을 내렸다.

이후 전재성은 전서암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 월간 〈대화〉에 ‘민중불교론’을 발표하고 민중불교운동의 주체는 민중이며, 이를 망각할 때 종교운동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중불교운동이라는 이념적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전재성의 ‘민중불교론’은 그 의미가 크다.

민중불교

70년대 故 법정 스님 민주화 참여
故여익구 · 서동석 등 민불련 창립
‘깨달음의 사회화’ 종단적 발현
민주화 · 사회참여 운동 초석 다져

통일불교

1970년대부터 남북불교교류 물꼬
신계사 · 영통사 등 복원까지 확대

환경불교

불교생태운동, 환경운동 지형 바꿔
도법 · 수경 · 지율 스님이 견인차 역할
조계종 차원 환경위 구성해 대응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 외치다

1980년의 시작은 시민들의 죽음으로 알렸다. 5.18 광주민주화항쟁으로 전두환 신군부는 광주를 중심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치인과 재야인사를 체포했고, 전국 대학에는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광주민주화항쟁에서 지역 불자들과 스님들도 분연히 일어났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 스님들을 비롯해 재가불자들의 항쟁은 시민들의 용기를 북돋았다. 대불련 김동수 전남지부장은 당시 부상자들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공수부대의 흉탄에 운명을 달리했다.

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의 경우 5.18 민주항쟁 이후 광주 문빈정사를 거점으로 대학생 불교 청년들을 모아 대학생 불교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대승불교 사상에 입각한 민주화 인권 운동과 통일 한국을 이룩하기 위한 역동적인 사회 활동을 펼쳤다.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도 암울했던 시대를 시로서 비판하며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다.

불교계 역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지리한 종단 분규를 마감한 당시 불교계는 1960~70년대 보여줬던 ‘어용 · 호국불교’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월주 스님은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민돕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6월 6일 광주로 내려가 시민들을 만나고 구호품을 전달했다. 7월 25일에는 어용불교단체였던 한국불교총연합회와 전한국불교회에서도 탈퇴하는 결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불교 자정을 비롯해 호국불교 비판 · 불교관계법 개정 등 다각적으로 불교의 위상을 세우려고 했던 당시 불교계의 노력은 10.27 법난이라는 초유의 훼불사건이 발생하며 산산조각 난다.

1천6백년 한국불교역사 내에 최대의 훼불사건으로 불리는 10.27법난은 당시 청년불자들에게 독재정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곱씹어 보게 했다.

칼날 같은 계엄의 시기에 합법적인 사회운동을 할 수 없던 진보적 불자 학생들은 운동의 공간을 바꿔 사찰을 중심으로 근본불교의 정신을 찾고자 하는 ‘여래사(如來使)운동(사원화 운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불교사회주의 운동 규정돼 법우 스님을 비롯해 최연 · 신상진 등이 구속되면서 중단됐다.

1970년대 후반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민중불교운동’의 불씨는 1980년대에서는 멈추지 않고 타올랐다. 젊은 스님들과 진보적 학생들이 민중불교의 기치를 세우고 주도한 불교민주화운동은 마침내 민중불교연합을 창립하기에 이른다. 민중불교연합(이하 민불련)은 1985년 5월 4일 광화문 교보빌딩 뒤 포석정에서 고은 · 계훈제 · 문익환 목사 등 재야인사와 진관 · 성연 · 현기스님 · 여익구 · 최연 · 서동석 등 스님과 청년불자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초대의장에 故여익구가, 상임지도위원에는 고은이, 부의장에는 진관 스님 등이 추대됐다. 민불련은 기관지인 〈민중법당〉을 발간하고 당시의 운동 경과와 사상 정립에 대한 글들을 실어 민중불교운동의 확산을 꾀했다. 그만큼 정부의 탄압도 극심했다. 〈민중법당〉은 통권 5호에 실린 운동론을 근거로 이적단체 규정돼 3기 집행부 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 여파로 민불련의 조직적 활동은 중단된다.

민불련이 1989년 해체될 때까지 보여준 활발한 활동은 불교계의 운동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1980년대 대표적 노동착취 기업인 성도섬유 규탄집회에 주도적 참여했던 여성부 간사 김애라는 연행돼 구류를 받았고, 1985년 구로공단의 대우어패럴 파업을 계기로 촉발된 동맹파업 당시 파업 현장에 대한 지원 및 농성도 어느 단체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86년 민주통일민중연합이 중심이 된 민주제 개헌 요구투쟁에서도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낸 것도 민불련이었다. 또한, 불자 故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에도 적극 가담해 6.29선언을 이끌어 냈다.

민불련의 운동적 역량이 폭발했던 것은 1980년대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최대 가두시위로 알려진 ‘5.3 인천사건’에서다. 민불련은 ‘1986년 5.3 인천사건’

2559년 석가탄신기념
능인계향 특별한정판 출시
능인향당에서는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를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능인계향을 출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能仁戒香
계향
능인계향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초파일까지만’ 한정특가로 공급됩니다.
1차분 전량 매진!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2차분 순차 발송중입니다.
■ 한정특가 : 15,000원
(초파일 이후 정상가 30,000원으로 환원되며 현지 사정에 의해 단종될 수 있습니다.)
능인향당 051)746-6818 / 02)3663-6777
www.nihwa.com 홈페이지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불기 2559년 하안거
참 나를 찾는 90일간의 여정
재가안거 수행결사
수행기간 : 불기 2559(2015)년 6월 1일 ~ 8월 28일
–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동참자를 모집합니다 –
재가안거 수행은
나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이고 수행자임을
자각하는 실천입니다.
재가안거 수행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참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발원합니다.
〈90일 수행이력 성취 시 안거증이 수여됩니다.〉
대상 인거 기간 수행을 실천하고 이를 점검받기 원하는 모든 재가신도
방법 부처님의 제자임을 자각하는_ 삼귀의
나와 이웃의 행복을 발원하는_ 수행서원문 염송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_ 1일 1선행
대중의 역량에 맞추어 수행하는_ 선택수행
접수 기간 2015년 4월 21일 ~ 5월 29일
접수 및 문의 재가안거 수행결사 운영 사찰 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051)501-7554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사회 참여

질곡의 현대사 아픔과 갈등을 보듬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진행된 불교계의 민주화 시위. 자비 무적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민불련의 〈민중불교〉 창간호. 발행때마다 민불련 회원들은 고초를 겪었다.


2006년 신계사 낙성식. 남북불교 교류의 새장을 열었다.



불교 최초 통일단체인 평불협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모습.

을 중심에서 이끌었고, 자연히 안기부 등 공안기관의 주요 타깃이 됐다.

이로 인해 여익구 의장이 수배되고 서동석 집행위원장 · 진철승 문화부차장 · 성연스님 등이 구속되는 조직적인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공권력의 탄압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내부적 조직 역량이 단단해진 민불련은 1987년 민주화항쟁에서도 비중있는 역할을 했다.

이런 민중불교운동은 민주화를 위한 독자적 승가 조직 탄생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6년 5월 9일 조계종 스님 1백52명은 '민주화는 정토의 구현이다' 라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스님들을 주축으로 1986년 6월 5일 불교정토구현승가회를 창립하게 되고, 민중불교운동의 열망은 '9.7 해인사 승려대회' 로 이어졌다. 이같은 원력들은 이후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종단 캐치 프라이즈로 '깨달음의 사회화' 를 천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암울했던 1970~80년대 들불처럼 번져나간 민중불교운동은 불교계의 사회참여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했고 1990년대 통일 · 종단 · 환경 등 다양한 부문으로 세분화돼 운동이 발전하게 되는 단초를 제시했다.

"南北 함께 삽시다" 통일 염원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남북 분단이다. 남 · 북한으로 갈라진 현 체재는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문제가 결부되다보니 남 · 북 양측의 관계 무드에 따라 민간 교류 활동도 영향을 받았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사장 법타, 이하 평불협)가 발간한 〈평불협 20년사〉에는 남북불교교류의 역사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남북 불교는 1970년대부터 교류의 형태를 가졌지만 각 체재 수립에 기여하는 고립적 양상이었다. 이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요구가 사회 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물꼬가 터졌다. 이 시기를 기해 북한불교가 국제사회와 국내에 서서히 소개되기 시작했다.

남북 불교가 처음 만난 것은 1991년 10월 미국 LA에서 열린 '제1차 남북 · 해외동포 조국 통일 불교도 합동법회' 에서다. 해외에서 첫 만남을 가졌지만 합동법회는 곧 국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통일 운동 단체인 평불협이 1992년 2월 창립됐고 본격적인 교류사업이 진행됐다. 초대 회장에는 월주 스님이 추대됐으며, 상임부회장에 법타 스님이 선임됐다. 1993년 7월 13일에는 전국불교운동연합이 창립하면서 사회적 실천운동과 통일 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남북 불교 교류는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2000년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며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온다. 소위 '햇볕정책' 으로 대변되는 대북 정책은 남북불교교류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2000년 창립되면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이 이뤄졌고, 천태종은 종단적으로 개성 영통사를 복원했다. 또한 남북 불교계 동시 법회 등 교류행사도 자주 진행됐다.

이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비핵 개방 3000' 이 대북 정책으로 발표되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된다. 남북 불교 교류 역시 축소될 수 밖에 없었지만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00년대 이후 새터민들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사업도 전개되고 있다. 불자로 잘 알려진 남지심 작가는 '통일바라밀숲' 을 창립하고 새터민 대학생 28명에 대한 장학금과 밑반찬 등 생활지원과 함께 원융적 사고를 지닌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하고 있다.

불교적 환경운동, 세상과 소통

한국 현대 시민운동사에서 불교가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분야는 단연 '생태 · 환경' 이다. 1990년대 이후 개발 담론으로 나타난 환경 위기에 가장 열정적으로 대응해온 곳은 불교계였다. 불교 환경운동은 1988년 출범해 1991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 한국불교환경교육원(에코붓다 전신)에서 시작된다. 1992년에는 월주 스님을 중심으로 '청정국토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의 전신인 '공해추방불교인모임' 이 결성됐으며, 故 김재일 씨를 중심으로 1994년 '두레생태기행' 이 만들어지면서 에코투어리즘을 바탕으로 한 생태 답사가 진행됐다. 김재일 씨는 2002년 사찰생태연구소를 만들면서 불교와 사찰의 환경문화와 생태적 전통을 발굴 · 연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생태 보존에 대해서 종단적 관심이 촉발된 것도 이 시기다. 1996년 11월 22일에는 '사찰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본말사 주지대회' 가 해인사에서 열렸고, 이를 계기로 12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산하에 20여 명의 전문위원을 둔 사찰환경보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조계종은 2000년 총무원장 직속 산하 기구인 환경위원회를 발족하게 된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국가 주도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여기에 사찰 수행환경 침해와 더불어 자연환경이 파괴에 대한 불교계의 반대 목소리는 커져간다. 정부의 지리산댐 조성을 막기 위해 출범한 '지리산 살리기 댐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 는 곧 국민 조직으로 발전했으며, 그 여세에 힘입어 불교환경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창립된다.

법륜 스님은 독립적인 행보를 보였다. 스님은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의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남북 통일 사업을 진행해 왔고, 이후에는 좋은 벗들과 평화재단을 설립하고 북한과의 교류, 인권 신장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불교적 환경운동은 도법 · 수경 · 지율 스님 중심으로 이뤄진다. 도법 스님은 2003년 '지리산 생명평화결사' 를 창립하고 2004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3일까지 5년여 간 생명평화 탁발순례를 진행한다. 또한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출범해 귀농운동과 생협운동 등 도농상생공동체 설립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도법 스님의 도반인 수경 스님은 자신의 몸을 내던지면서 환경운동에 매진했다. 2001년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를 맡은 수경 스님은 새만금 갯벌 간척 반대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스님은 문규현 신부와 함께 2003년 3월 28일 부안 새만금 해창갯벌을 떠나 5월 31일까지 65일간 총 305km를 3보 1배를 하면서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했다. 당시 스님은 과도한 3보 1배로 무릎을 크게 상해 수술을 받고도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자신을 희생했다.

지율 스님은 목숨을 걸고 자연과 생태를 지켜냈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도 잘 알려진 스님은 2004년 2월 15일부터 총 241일 동안 초인적인 단식을 이어갔다.

지율 스님이 진행한 '도롱뇽 소송' 도 한국환경운동사에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2003년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은 2003년 10월에 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 13.2km 구간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일명 도롱뇽 소송)을 냈다. 자연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간이 대신해 소송을 낸 사례로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그 사례가 있어왔으나 한국에서 이 같은 소송이 진행된 것은 두 번째로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법원은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 능력(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현행 법률이 없다" 고 원고 부적격 판결을 내렸다.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앞장서 대규모 개발 사업 반대했지만 새만금도, 천성산도 모두 국가 개발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이 진행됐다. 결국 '이슈 파이팅' 을 위주로 진행되던 환경운동은 시민 참여 확대라는 숙제를 남기고 전환점을 맡게 된다.

'사회 참여' 불교의 영원한 화두

민주화로 시작한 불교의 사회참여는 현대사 속에서 통일, 인권, 환경 운동으로 확대됐으며 다양한 NGO단체를 창립시켰다. 현재에는 다문화, 노동, 국제구호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갈등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대안 문명 공동체로서 불교의 역할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불교 사회참여운동의 동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불교계 사회 참여 운동의 교리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연기와 보살행이다. 박수호 덕성여대 교수는 '한국불교사회운동의 이해' 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이 같은 연기와 보살행을 불교사회운동의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연기법에 근거하면 현상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존재는 서로 분리가 불한 '상즉상입(相卽相入)' 하는 동일체이며, 이는 나와 무관해 보이는 사회 문제들이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준다" 면서 "자비와 회향의 보살행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원리를 제공한다" 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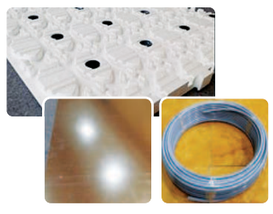
그렇다면 한국불교 사회 참여의 과제는 무엇일까? 종교지형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불교계가 필요한 것은 시민의 삶을 고려한 '시민 공공성' 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윤승용. 갤럽 〈한국인의 종교〉 보고서) 이를 위해서는 전 지구차원의 환경 위기와 자본주의 모순, 계층간 상생 등의 사회 과제에 불교계가 천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광복 후 한국 사회문제와 불교의 대응 및 지향점' 논문에서 "이제 불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추진 기구를 만들고 마스터플랜을 짜고 로드맵을 실천해야 한다" 면서 "단순한 구제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등을 포용하고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할 불교공동체 모델을 개발해 현대사회의 대안이 불교에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이웃과 함께 나누는 짜장 한 그릇,

‘착한스님짜장’ 운천 스님 (남원 선원사 주지)



운천 스님은 … 승복보다 주방장 옷이 잘 어울리는 스님이다. 스님은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짜장면을 뚝딱 만든다. 1998년 37살의 나이에 출가해, 중앙승가대와 절강사범대를 나온 후 2009년부터 짜장면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라남도 남원에 위치한 선원사는 신라시대 고찰이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씩 대형 트럭이 절 문을 나선다. 트럭 한편에는 ‘사랑 실은 스님짜장’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다.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봉사를 하는 스님은 다름 아닌 선원사 주지 운천 스님이다.

스님이 찾아가는 곳은 무료급식소, 군부대, 노인복지관, 장애우복지관 등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이 있는 곳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만큼 행복할 때가 또 있겠습니까. 지금은 흔해진 듯하지만 아직도 이 짜장면 한 그릇을 못 먹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갓 나온 따듯한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5월 7일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당당한 신노인 바운스 바운스’에서는 주방 한켠에서 1000여 인분의 짜장면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운천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스님은 어르신이 맛있게 짜장면을 먹고 있는 표정을 봐도 행복해진다며 연신 솥에 주걱을 휘저었다. 천년고찰에서 수행에 매진하는 대신 스님이 택한 것은 음식 포교다. 스님이 베풀고 있는 ‘착한 스님짜장’은 이름처럼 우리사회 소외계층에게 무료 보시된다. 2009년 11월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스님의 짜장 봉사활동은 200여회를 훌쩍 넘겼다.

짜장 한 그릇으로 맺어지는 인연법

짜장면은 전국 어디서나 배달을 시켜서 간편히 먹을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 그러나 짜장면은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와 중년에게는 가난한 시절의 추억이 담겨있는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운천 스님은 표고버섯과 멸치, 북어 등을 넣어 육수를 우려내고, 밀가루 반죽은 하루 동안 숙성을 시키며, 야채는 육수를 이용해 쪄낸다. 그동안 스님이 보시한 짜장면만 25만 명분에 달하며 트럭을 타고 찾은 거리만도 100,000km가 넘는다.

한 번에 많게는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스님짜장을 만들어 급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봉사를 하면서 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주변의 작은 손길들이 도움을 주어 그나마 나아진 듯도 하다.

스님은 “특히 교정시설이나 군부대에 갈 때 마음이 많이 쓰인다”며 “아직 그 곳에서는 가장 먹고 싶어 하는 음식 중 하나가 짜장면”이라고 말했다.

“어느 무기수형자는 평생 생이별한 줄 알았던 짜장면을 먹으면서 삶의 희망을 찾기도 하고, 짜장면 한 그릇에 감동하여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출소 후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수용자도 있었습니다. 짜장면 파티가 열리면 군부대 안에서는 흥겨운 탄성이 나오고, 맛있는 포만감에 행복한 웃음이 메아리칩니다. 이렇듯 짜장면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이들을 보며 보시의 길에 의지와 힘이 솟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면뽑는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15일간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이다.

고통 속에서도 매주 찾아가는 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스님의 봉사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이다.

직접 선원사에서 돼지감자 키워 비용 마련

스님은 짜장면 재료를 직접 재배한다. 선원사 일대에서 돼지감자를 키운다. 감자로 국우차를 생산해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보시에 쏟는다. 부족한 비용은 소규모로 건축자재 납품업을 하는 운천 스님의 친형인 김승윤(56) 씨와 친구인 직장인 박정운(53) 씨가 돕고 있었다. 직접 생산현장에서 있다 보니 스님은 시주받은 돈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두려워한다.

“남원 선원사 신도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을 모아 자식들 잘되라고 기도비로 조금씩 내시죠. 여기에는 많은 사연이 있어요.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아낀 돈과 어렵게

지금까지 25만 그릇 보시 넘어
남원서 전국 누빈 거리 10만km
선원사서 농사지어 재료비 조달
“짜장면 먹고 감동받는 이 많아”

천주교 집안, 늦깎기 출가 인연
집안 모두 개종, 십시일반 도움줘
‘착한 가게’ 등 생산불교 서원
노인·외국인 위한 무료식당 ‘꿈’

번 돈 그리고 눈물로 만들어진 돈 들이죠. 이런 보시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귀한 돈은 좋은 곳에 잘 썼을 때 보시한 분에게 복이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사실 처음 스님이 짜장면 보시를 시작하고 나서는 선원사 신도들이 많이 나섰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다보니 과정이 복잡했다. 처음 대형버스로 이동하던데서 이제는 실장을 맡은 거사님 한분과 트럭을 직접 몰고 현장을 찾아간다.

“요즘에는 원재료 등을 사찰에서 다듬어서 나르기도 하고, 현지에서 취사반 등의 협조를 얻습니다. 처음에는 재료만 다듬고 했어요. 그러다가 조리하시는 분이 떠나고 이후에는 사찰에서 하는 식으로 고기와 조미료를 줄여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현재 기부마라톤으로 유명한 진오 스님과 함께 6월 1일 경에는 베트남에서 보시를 하려고 한다. 진오 스님은 현재 베트남 초등학교에 화장실을 건립을 위해 발원한 2400km 중 1200km를 뛴 상태다. 이를 더욱 알리고 교민사회에서 모금도 진행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카레밥도 보시할 계획이다.

“불교가 중국 인도를 거쳤는데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음식을 매개체로 힘이 되는데까지 돕고 싶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예정입니다.”

소년 ‘베드로’, 늦깎이 출가 하다

스님이 처음 짜장면 봉사에 나서게 된 것은 2006년 중국 유학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앙승가대와 율원을 졸업하고 절강사범대학에 다니던 스님은 한국유학생들을 초청해 한 달에 한 번씩 음식공양을 베풀었다.

“절강성 숙소에서 김치찌개, 된장 등으로 공양을 하니 찾아온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포교를 하게 되면 음식으로 해야겠다구요. 귀국 후 2009년 12월부터 그렇게 짜장면 공양을 하게 됐습니다.”

스님은 보시의 기쁨을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털어놨다. 수원이 고향인 스님은 어렸을 때 수원역 인근에 살았다. 역 근처에서 갈 곳이 없는 행인들을 어머니가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하는 것을 보며 자랐다.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5살 때 세례를 받아 세례명이 ‘베드로’입니다. 중학교 때는 검정고시를 봤는데 교회에도 다녔어요.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지요.”

스님이 출가를 결심한 것은 서른이 훌쩍 넘어서였다. 나이가 들고 우연히 스님들과 인연이 닿은 운천 스님은 인생상담을 하게 된다.

“지금은 맏사형이 된 운강 스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한지 고민해보라’구요. 한 달 정도 고민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산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산에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출가를 결정했습니다.”

스님은 1998년에 37세의 나이로 출가했다. 은사 스님은 어린이포교와 문화포교로 유명한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이다. 스님은 포교에 있어 은사 스님으로부터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스님의 속가 가족들도 그 영향으로 모두 불자가 됐다. 스님의 형님은 수원의 팔달사에 나가며 부산에 사는 누나는 범어사 등으로 활발히 다닌다.

“젊어서 다른 종교를 배워서 일지 굳이 불교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원불교 등 요청만 있으면 다 가요. 신부님이 5월 17일에는 성당에서 짜장면 공양을 해줄 수 있냐고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광주 사랑의 식당 등 어디든 갑니다. 일반인들도 불자봉사자를 만나면 불교의 정신을 알게 되고 차츰 불교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도 늘겠지요.”

필리핀에 우물 40개 파기도… 이젠 해외봉사

스님은 그동안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봉사를 계속했다. 선원사는 남원 시내에 자리하고 있지만 부유한 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필리핀에 40개의 우물을 파서 식수난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기도 했다. 2013년 12월에는 네팔에 ‘선원사 초등학교’를 준공했다. 스님의 지론은 간



그보다 더 좋은 화합은 없죠”



운천 스님의 스님짜장 5t 트럭. 스님은 여기에 대형 솥 등을 싣고 전국을 누빈다.


최근에는 현지의 자원봉사자들과 협동하여 짜장면을 만든다.


스님짜장을 배식받는 교도소 재소자들


남원 선원사 철불과 함께 보물로 일컬어지는 양파 등 짜장면 재료들

단하다.

“종교가 먼저 제 할 일을 해야 하지요. 불교도 꼭 절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고 기도하고 해야 구제하는 게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것이 종교죠. 사찰에 앉아 혼자 평안하다면 어려운 이들을 언제 구제할 수 있나요.”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도, 세월호 사태 때도, 구미 가스누출사고 때도 어김없이 현장에 나가 이재민 등에게 짜장면 보시를 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정말 몸 하나 건강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 달에 한번 진행하는 부산 구서역 봉사에서의 일이에요. 혜일암 우신 스님의 후원으로 매주 수요일 급식을 하는데 하루는 짜장면을 드신 노보살님이 우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하니 ‘할아버지가 이 짜장면을 참 좋아하는데 몸이 아파 거동을 못하는 게 슬퍼서’라고 하셨어요. 안타까우면서도, 이렇게 몸이 건강해 봉사할 수 있어 기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스님들이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 있다고 말했다. 또 스님들이 받는 것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면 불교의 위상이 한층 달라질 것이라 힘줘 말했다.

“말로만 ‘보시, 보시’ 하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하는 선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찰을 생산불교의 현장으로 가꿀 터

스님의 꿈은 결국 사찰을 중심으로 생산불교를 꾸미는 것이다.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 도시에 내다팔고, 그 재원으로 다양한 포교를 병행하는 것이다.

사찰에서 재료를 만들고 지금하고 있는 짜장면 보시를 활용해 사회적기업인 짜장면 가게를 도시에 내어, 외국인과 고령자들에게 무료음식점을 하는 것이 목표다.

“전주 한옥마을에 갔을 때였어요. 정말 한식이 비싸더군요. 사회적 기업형태로 외국인이나 고령자, 유아는 공짜로 먹고, 보시함에 능력이 되는 만큼 기부하는 음식점을 했으면 합니다. 어려서 수녀님들이 해준 밥을 기억해요. 그 맛에 어릴 때 천주교에 호감이 갔죠. 저 외에도 전국에는 이렇게 봉사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스님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주면 저절로 포교가 될 것 같아요.”

스님은 순수하게 불자들뿐만 아니라 나눔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스님이 착한 가게를 내고 싶은 이유는 또 있었다. 매주 두 차례씩 봉사를 나가다 보니 예전과 달리 농사를 병행하기가 힘들어서다. 파종 등은 때가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다. 남원지역을 넘어 지역별 구심점이 있다면 자원봉사자도 좀 더 모이지 않을까하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스님은 수도권 지역에서 거점을 먼저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남원에서 전주만 하더라도 한시간이 걸리는 거리”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님은 끝으로 불교계가 짜장면 처럼 다양한 모습을 하나로 회통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종교로 거듭나길 바랐다.

“율장에는 ‘소욕지족’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금의 불교계에는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60~70년대만 해도 못살아도 마음은 넉넉했습니다. 스님들도 객으로 가면 재워주고 했는데...요즘에는 절집 안에도 그런 풍토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문중 등의 굴레에서 벗어나 불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마치 다양한 재료들이 짜장으로 하나가 되듯이요.”

짜장면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뒤로 스님은 다시금 솥을 힘차게 저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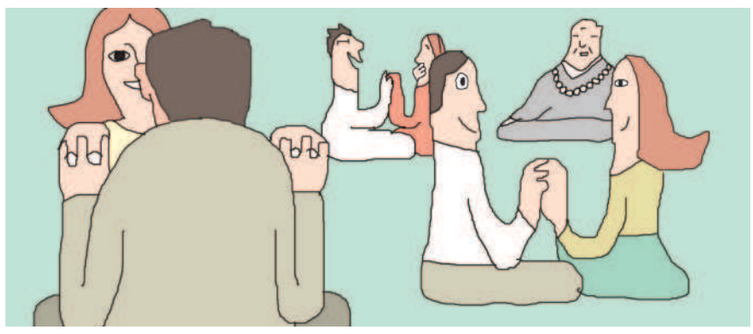
전법일기

선우YB : 즐겁게, 고귀하게

젊은 불자! 요즘 너무나 귀하고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 대부분의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하시는 불자님들에게 ‘젊은 불자’라고 할만한 세대를 여쭈면 아마도 30대 중반 언저리에 계신 분들을 모두 떠올리지 않을까?

난 젊은 불자를 ‘20대’의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물론 30대 역시 젊고, 신행생활 역시도 20대 보다는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청년으로 한정한 까닭은 이들이 지닌 활발함과 모든 것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진취적인 기상, 그리고 흔들림 없는 자기 소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젊은 불자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동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선학(禪學)을 전공하며 교내 사찰인 ‘정각원’에서 조교 소임을 맡게되면서부터였다.


그림 · 박구원

아마도 인연이란, 이처럼 자신이 놓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당시 정각원에서 청년불자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힐링캠프’를 새로이 진행하였고, 총 4개 조로 각 조 20명 정도가 불교 수행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교 문화를 이해하며 신행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때가 청년 불자들과의 첫 활동이었다. 물론 학부와 석사, 박사 모두를 동국대에서만 공부했기에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조언도 해주었다. 그렇지만 청년 불자 장학생들의 모임인 ‘힐링캠프’는 처음이었기에 매우 새로웠다.

이렇게 ‘힐링캠프 1기’에서 인연이 되었던 제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학기가 끝날 때 까지 서로 모임을 가졌고 즐거운 시간을 지냈노라고 내게 자랑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새로이 시작된 ‘힐링캠프 2기’ 모임 역시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모두 함께 신행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모임을 갖는 것을 보니 그저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만 하였다.

그러던 차에 1기와 2기 모두 활동했던 제자에게 ‘불청[불교청년장학생]’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고자 했던 제자들과 ‘젊은 불자’ 모임은 만들어지게 되었고, 선우YB의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나는 ‘성불암’에서 ‘선우(禪友)’ 모임을 만들어 매주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및 참선 수행을 지도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선우에 속해있는 불자님들에게 제자들을 소개하였고, 모두가 부처님의 넉넉하고 자비로운 품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을 부른다고 했던가? 모임을 계속 하던 제자들은 서로 함께 하고픈 친구들에게 모임을 소개하면서 점차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2014년 7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우리 모임의 명칭을 선우YB로 하자고 하였고, YB는 ‘Young Budh’의 약자이고, 그 뜻은 의역해서 ‘젊은 날의 깨달음’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렇게 ‘선우YB’는 새로운 설렘을 안고 그 첫 발자국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만나 ‘젊은 불자’들의 새로운 신행 문화와 어울림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 성지순례를 통해 신심을 키워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선우YB는 내 분신과도 같다. 모두가 소중하고 귀하다. 앞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동량들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장 소중할 수 밖에 없고, 더 이상의 귀한 보배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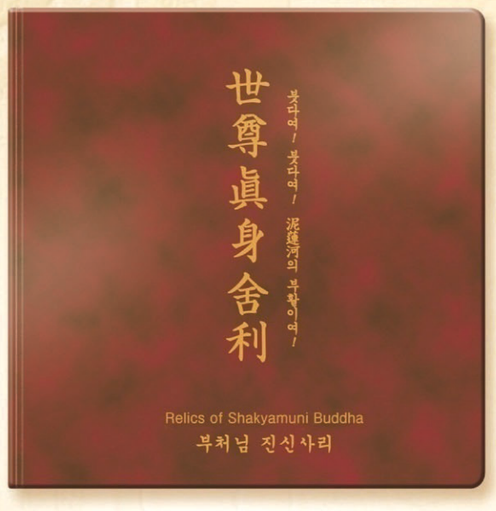
법찬 스님 (서울 성불암 주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부처님의 고귀하고 영롱한 사리사진을 친견하여 세세생생 복덕을 누리세요

- 국내 최초 부처님 진신사리집 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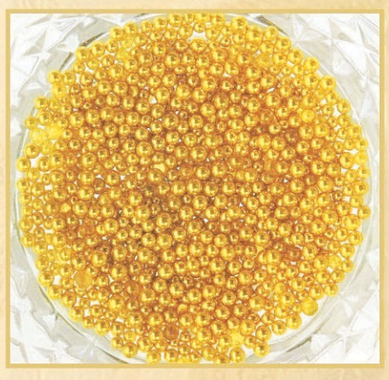
世尊眞身舍利

붓다여! 붓다여! 泥蓮河의 부촬이여!



若見如來舍利 卽是見佛
부처님의 사리를 보는 것은 즉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다
(대반야열반경)


부처님 진신사리


황금사리
부처님의 혈(血) 사리로써 황금색의 장엄하고 화려한 사리


사리불사리외 아라한사리 모음

부처님 사리는 수정같이 맑고 무지개빛 영롱한 빛깔과 함께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황금색 등 오색영롱한 사리를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1.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부처님과 동일체로 생각하였고 가장 진지하고 경건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불자님가정에 진신사리집을 모셔놓고 기도 하시게 되면 엄청난 환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신사리친견법회에서 촬영된 아주 고귀하고 장엄한 사리사진입니다.)

3. 부처님의 사리집을 소장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가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4. 부처님의 진신사리의 진가(眞假)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5. 사찰에서 의식시 법당에 모셔놓고 불공을 드리면 무량한 가피(加被)를 보실수 있습니다.

• 크기 : 30cm X 30cm, 166면, 총천연색 칼라 사진집 • 세계적으로 공인된 부처님 사리 증명서 첨부
• 정가 : 280,000원 구입문의 : 055-388-0919 총 무 : 010-7283- 0089

보급처 :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계좌번호 : 농협 351 - 0793 - 0193-63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찰나찰나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꽉 차서 돌아가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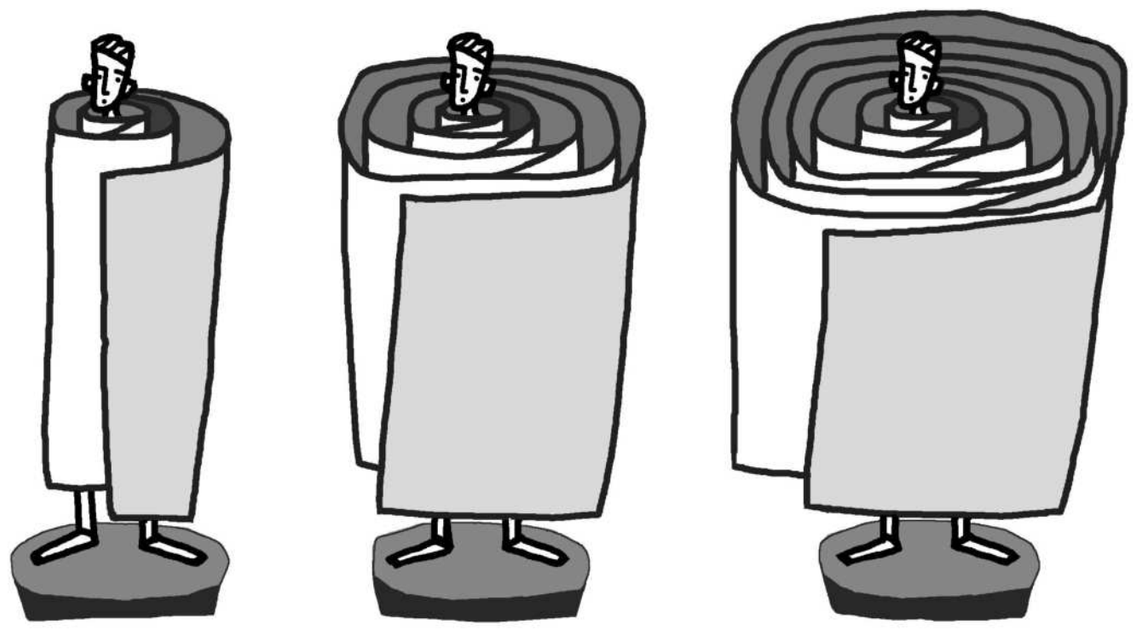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OO선생님과 OO보살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 회장님들, 여러 신도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 지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과 같이 토론 겸 또 설법이라기보다도 우리 생활에서 그 뜻을 한데 모아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젊으나 늙으나 다 내 몸 하나를 끌고 가는 데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에 의해서 내 가정을 끌고 나가는 데에 문제점이 있고 사회, 아니 국가…. 우리는 국가를 등지고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국가를 두면서 항상 여념이 없이 부지런하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 가정을 이끌고 가는 데는 내가 나를 알아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내 몸을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나 이것을 말씀드리죠.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여건이 80%, 90%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항상 이 세상의 노예처럼 또는 습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 큰스님한테 화두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난 그게 아닙니다. 그 화두 받는 것도 옛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공이 없이 뛰어야 하고 시공이 없이 뛰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몸을 끌고 가는 데 그 몇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죠.

내가 나를 발견하는 데는 어떠한 점에서 발견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수억겁 광년 전서부터, 그럼 거기서부터 얘기하죠. 미생물로서 태어났다고 볼 때 그럼 그것이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해서 바로 나투면서 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화하게 되느냐. 그 씨를 심었으면 그 씨대로 또 태어나야 할 텐데 왜 그 씨대로 태어나질 않고 자꾸 모습이 바뀌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생명들은 즐거우나 고가 닥치나 항상 이런 것을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능력이 스스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반드시 나오려고 하는, 애를 쓰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러는 반면에 사람은 차원이 높아지고 바로 진화력을 갖게 되는 거죠, 진화력. 능력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멍을 찾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찾는다 이 소립니다. 그 마음이 아주 자기를,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쫓아 나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마음은 바로 수천수만 가지로 낼 수 있다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수천수만 가지의 마음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차원이 높아질 수도 있고 차원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업보도 윤회도 인과응보도 거기서 모두 가져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날까지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그렇게 쫓고 쫓기면서 그 치열한 싸움에, 치열한 개발에, 치열한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고등 동물로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 잠재의식 속에, 카세트라고 표현합시다. 잠재의식 속의 그 카세트에 수억겁에 거쳐서 감기고 감기고 또 감기고, 그 얽히고설키고 한 업보와 또는 인과응보와 유전성과 모든 것이 거기 감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은 여러분이 해 놓고 받는 거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한 것만치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보에 의해서 또는 인과응보 유전성에 의해서 병고도 가난도 모두 거기서 각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감독한테 대사나 모든 걸 받아서 각본대로 영화를 하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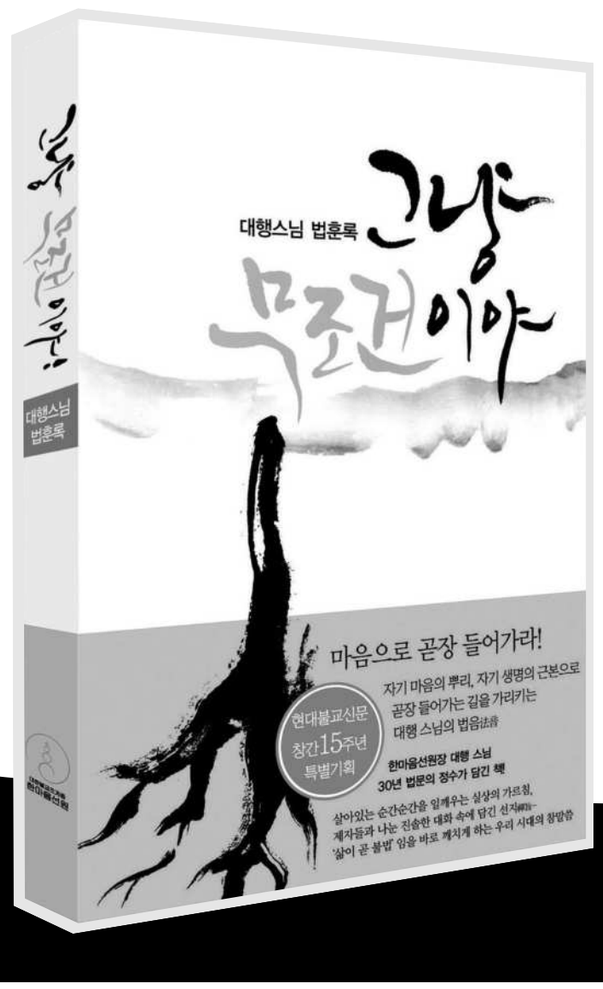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런데 불법에는 팔자 운명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왜? 지금 아까 내 몸 하나 끌고 가는 데도 그러한 여건이 주어져야만이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다면 그 잠재의식 속에 얽히고설킨 그 자체를, 일차적으로는 그 모든 걸 녹여야 된다 이 소립니다. 녹일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망상을 끊어라.' 이럽니다.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즉 말하자면 바로 인과의 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줄이 끊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망상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망상은 끊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니다. 녹이는 게 아니라 둘이 아님을 알게끔 해 주는 것이 바로 녹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습을, 그 살아나오던 악하고 선한 습을, 거기서 각본대로 나오는 모든 걸 그 자리에다 다시 놓는다면, 맡겨 놓는다면 그대로 녹아 버리는 겁니다. '카세트에다 노래를 넣어 놓고 카세트에다 (녹음 안됨) … 한 것을 그대로 그것은 고마운 것이다.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여기에서, 잘못된 것도 여기에서 나를 다지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된 거를 주는 것이다.' 하고 맡겨 놓으면 그건 스스로 잘돼. 여러분이 그것을 지엄하게 실천적으로 생활에서 해 보신다면 그것이 납득이 될 겁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간이나 위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대장 소장이나 이자나 방광이나 어느 부분을 막론해 놓고 모든 생명들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뼈의 세포까지 생명체들이 전부 얼개미 같은 그런 법망을 쫓아다니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운행하는 그 생명들은 어디를 따르느냐. 내 한생각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옛날의 태초의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의 그 뜻, 한 점의 마음에 이 우주를 삼킬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생각에 의해서 주인공에 감사하게 맡겨 놓고 안되는 거는 안되는 것대로 되게 하느라고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주인공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축이 있습니다, 축. 우주의 축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축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이 축에서부터 오관을 통해서 정신으로 가서 이 전체의 몸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 점, 그 한 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도 한 점 마음에 달려 있으니 이 생각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던지고 자식들한테도 아무렇게나 욕을 하고 부부지간에도 아무렇게나, 조금만 잘못해도 "저런 도둑놈 같으니…." 아, 이렇게 말을 마구 하거든요. 그 생각,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금방 그 자리에서 닥치진 않아도 그냥 그대로 닥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방치해 두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인생이 허무하지 않음을 알려면 이 도리를 꼭 공부해야!

☞ 29면에서 계속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그 한생각이 내 몸을 끌고 가는 데 역점이 되고 또는 운전수가 되고 또는 사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침반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축이 모든 거를 행해 나가는 데는 여러분이 용광로와 같다. 용광로와 같아서 잘못된 거, 잘된 거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냥 녹아 버린다. 이런 인연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열치열과 같이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이 녹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업을 스스로서 지은 거는 스스로서 그것을 녹여야지, 강제성을 띠어서 녹이는 것도 아니고, 칼로 끊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말씀해 드릴 것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내 몸 하나 건강하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갖는다면 바로 가정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아까 내가 죽이는 것도,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몇 해 전입니다. 어느 신도가 정성을 보름 동안 지극히 들였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승진을 하려고 정성을 들였는데 끄트머리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승진이 안되고선 좌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도가 그냥 울고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야." 그렇게 인제 쫓아 보냈죠. 그런데 서너 달 만에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참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빠 대신 다른 사람이 승진이 돼 가지고 월남에 갔다 이겁니다. 월남에 가서 해골로 왔습니다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뒤에 아빠는 또 승진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선 울기에 "그것 봐." 그러고선 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사람이 지내 보고 겪어 보고 자기가 걸어 봐야 알아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집념 있고 좀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지켜보면서 연구하면서 발전하면서 나가야지 그냥 절이나 하고 그냥 갖다 기도나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기복이야, 어디까지나. 자기를 떠나서 '신이여, 나를 도와주시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무슨 약사보살, 집신 무슨 조왕, 뭐 용왕 죄 찾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고정관념이 없다 아까 그랬죠.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고정 행도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 그래서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한 것이 바로 그 뜻이야. '이것이 색이면서도 공했고 공이면서도 색이다. 너희가 보이면 보이는 그 물질이 다 공했느니라.' 이 소리거든. '너희 보이는 물질은 다 공했느니라.' 그렇게만 얘기해 놨지 자세히는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외우기만 해. '공 즉 색'이다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전부 공해서 한 찰나에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데, 그 찰나찰나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꽉 차서 돌아가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한 찰나에 돌아갈 때, 한 찰나에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하겠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하겠느냐. 어떤 거를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들었노라고 말하겠느냐. 어떤 거를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귀합해서 바로 그것이 '나'이자, '참나'이자 바로 공했느니라, (몸을 가리키시며) 이것이. 탑돌이 하듯 노상 돌아가고 있어, 이게. 오관을 통해서 노상 돌아가고 있다 이 소리지. 그러니 이 돌아가는 것을 누가, 어느 누가 '내가 부처'라고 말하며 '내가 중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 중생은 둘이 아니니라. 동서가 둘이 아닌데 어찌 남녀가 둘이겠는가.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량인데 어찌 남녀를 구별해서 너는 성불하고 너는 성불 못하느니라 하겠느냐? 어린애가 코를 찔찔 흘리고 와도 그것이 바로 법담의 대상이요, 바로 스승의 대상이요,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이며 중생이며 바로 부처 될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노라 했단 말입니다. 불성이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 자체를 깨닫는 데는 깨닫는다고 하지 말고 '아! 감흥이 됐어. 느꼈어.' 이러고,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 한 소식이다 이러는 거는 열반경지에까지 이르러서, 그릇이 다 비워졌을 때, 비고 나서 거기에 찰나찰나 내가 먹을 수 있고 줄 수 있고 맛을 알고 맛을 알게 해 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의 불교가 이렇게 기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모든 일체 만법의 맛을 모르고 먹을 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이거는 막막하기가 한량이 없어. 그러니 관절이 아프나 관절을 어떻게 처리해야만이 낫는지 그것도 모르고,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만 가는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이 죽는다 산다 이것이,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들도 여간 참 문제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후가 바로 지금이 있어야 사후가 있는 거지 지금 없는데 뭘, 뭘 가지고 말입니까?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굼벵이가 매미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근본 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매미가 돼서도 스스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차원이 조금, '나는 왜 기어 다니기만 할까. 왜 저렇게 날지 못할까.' 할 때 날게 될 수 있는 진화력이 생긴단 얘깁니다. 그렇게 됐건만 굼벵이가 매미가 된 것도 모르고 매미가 굼벵이였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걸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되는지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늙어 가면서 얼마나 허무합니까? 벌써 이 세상에 생겨났다 하면 뚜벅뚜벅 죽으러 가는 형편이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쳇바퀴처럼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자식을 하려니까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이름이 제각각이죠. 이름은 각각이나 그 이름이 해 줍니까? 이름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아무개야 부를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에는 이름,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죠. 그러나 필요 없지 않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진리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우리가 이름을 모르면 불러서 일을 시킬 수가 없고 이름을 불러서 서로 웃을 수가 없고 얘기할 수가 없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그 능력을 길러서 모든 걸 안다면 이 몸도 그냥 그대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신다면 또 답변을 해 드리죠.

이 비행기가 오나 안 오나, 그것도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걸 다 조사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안테나와 같은 이 머리가 오관을 통해서 전부 다섯 가지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첫째 천체영사기와 천체망원경, 천체라 그랬습니다. 그냥 보는 망원경이 아니라 마음속의 망원경 말입니다. 눈 아닌 눈, 눈뜬 사람의 눈 말입니다. 그래서 천체망원경, 그 다음에 숙명통, 저 컴퓨터 천체입니다, 이게. 그 안테나 하나에 다 걸린다, 여기 다 와서 통신이 된다 이 소립니다. 이게 안테나라면 말입니다, 머리라면. 망원경, 컴퓨터, 탐지기, 또 천체무전통신기, 또 가고 옴이 없는 신족, 즉 말하자면 그것을 무전통신기라고 보는데 이 모습 없는 모습들이 가고 오는 거, 이것은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더불어 모든 게 한데 합쳐서 천이통, 이것이 천체무전통신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천체망원경, 또 천이통, 천체무전통신기, 또 컴퓨터, 탐지기 또는 모습 없는 모습, 즉 말하자면 책정기, 또 영사기, 영사기를 뭐라고 할까요? 신족통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걸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스크린처럼 자꾸 돌아가는, 물체가 보이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 없는 물체가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신족통은.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를 책정기가 모든 것을 오관을 통해서, 이게 안테나라면 전부와 닿는 겁니다. 우주의 근본도 여기 와 같이 닿고, 인간들의 근본도 여기 와 같이 닿고, 또 물속의 생명들도 전부 여기 와 닿고, 무정물의 생명도, 식물의 생명도, 흙의 생명도, 물의 생명도, 허공의 생명도, 지수화풍의 생명들이 전부 여기 와서 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나찰나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태풍이 왔다 하면 태풍이 온대로 그것이 내가 된다면, 이게 내가 된다면 내가 나를 죽일 리가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대중 가운데서 예.

큰스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두를 그렇게 해서 자유권을 얻으실 수 있게끔 하려면 첫째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 모든 건 주인공을 믿고, 자기 참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이란 아까 쭈욱 얘기했죠. 주인공이란 꽉 찬 나라고. 이 안테나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안되는 것도 거기서밖에는 못해.' 하고 맡기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거기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서 그대로 부지런히 뛰면서 거기 생각하고 그런다면 앞으로 그런 여건이 머지않아서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기를 꼭 반드시 찾게 됩니다. 그것은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도
한 점 마음에 달려 있으니
이 생각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위 법문은 1987년 5월 24일 산호세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리산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60팩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125,000원 (무료배송)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구성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별분